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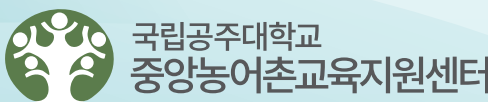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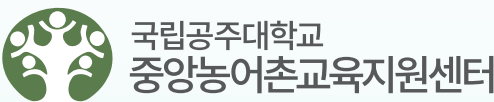
간행물 관리 번호
농어촌교육 위탁연구-202501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황 지 원 (서울시립대학교)

2026. 1.

2026. 1.



간행물 관리 번호
농어촌교육 위탁연구-202501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황 지 원 (서울시립대학교)

공동연구자: 문 지 영 (서울시립대학교)

2026. 1.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제출문

본 보고서를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 이 연구는 2025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나,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 내용이나 정책 제안 등은 연구진들의 견해로서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이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미비한 실정임. 기존의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었음
-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사 도구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2023년부터 단계적 과정을 거침
 - 2023년 (1단계): 농어촌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이론적 모델 개발
 - 2023년 (2단계): 조사 모델의 정교화 및 충남지역 파일럿 조사를 통한 효용성 검증
 - 2025년 (3단계):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전국단위 최초 실태조사 수행 및 정책 제언 도출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조사 설계 및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조사 기간: 2025년 11월 17일 ~ 12월 5일(약 3주간)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전국 읍/면 및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99개 지역) 학생(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일반/특성화) 2학년), 보호자 및 교사(해당 학교의 전 교사)
- 본 연구는 기존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 교육기본통계 등)와 실태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체계는 투입-과정-인식-산출의 단계로 구성하였음
 - 투입: 인구 정보, 교육 여건, 행·재정, 가정 환경(교육포부 등)
 - 과정: 학습 특성, 학교생활, 방과후 활동, 교사 효능감 및 직무 만족도
 - 인식: 전학 의도, 유학 압력, 학교 통폐합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인식
 - 산출: 정의적 성과,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

3.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교육 주체별 인식 불일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역 이탈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학생) 초등학교 시기에는 높은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을 보이지만,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현실적인 유학 압력(도시 진학 욕구)에 직면함. 즉 상급 학교 진학 시점에서 도시 지역 교육에 대한 상대적 격차로 학업 목적의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함
 - (보호자) 실제 이주 결정권을 가진 보호자의 경우, 학생보다 지역의 문화·의료 인프라 결핍을 훨씬 심각하게 체감하며(학생 3.44점, 보호자 2.59점), 이는 자녀 교육 문제보다 더 큰 이주 원인(56.0%)으로 작용함
 - (교사) 열악한 주거 환경 및 행정적 부담이 직무 지속성을 저해하여 이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 요인임
 - 결국, 지역 내 학생 비율을 높이고 지역 내 정주를 위해서는 이주 결정권을 가진 보호자의 정주 만족도(주변 환경 중 의료, 문화 등)를 높이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또한,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정주 여건과 교육 만족도의 결합 양상에 따라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 특징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 먼저, 인구 소멸 위험이 높고 외부 환경(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학교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이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밖 인프라(사교육 등)가 소멸하면서, 학교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돌봄, 문화, 정서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학교가 지역 유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 다음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우수하나, 기초 생활 인프라(의료, 주거 등)가 부족한 지역은 정주 이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함
- 이는 학교 안의 수업 혁신만으로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생활 환경 인프라가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학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 효과가 상쇄되어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4. 정책 제언 및 결론

-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지표 기반의 관리 체계 구축) 정기적인 농어촌 관리 지수 산출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별 위기 단계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학교 공간의 지역 거점화) 학교를 학생들만의 배움터가 아니라,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마을 공동체의 거점으로 재정의가 필요함. 이에 따라 학교 시설과 기능을 지역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교육 인프라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다층적·다각적 통합 지원)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만으로는 학교 교육 위험 지역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긴급 정주 인프라 투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교육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결합된 통합적 정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5. 향후 연구 과제

-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함
- (정주 의향 영향 요인의 다각화) 귀촌(이주) 가구와 전통적 농어촌 거주 가구는 지역에 바라는 교육 수요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으로 이질적인 정주 기제에 맞춘 차별화된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제도 실효성 검증) 농어촌 특별전형 등 대학입시 제도가 실제로 인구 유입이나 정주에 기여하는지 분석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화 교육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농어촌 교육 지수 고도화) 현재의 인프라 중심 분석을 넘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공동체 의식 등 교육 정서적 요인을 결합한 통합 지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3년 동안 고도화를 통해 수행된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농어촌 교육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음.
- 학교 만족도가 높아도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여 학교를 지역의 거점으로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개선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제안함.

차 례

I. 서론	1
1.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 전국단위 실태조사의 필요성	1
2.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2
II. 선행연구	5
1. 농어촌 관련 선행 연구	5
2. 농어촌 관련 정책 연구	8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15
1. 농어촌 범위 설정	15
2. 조사 체계 고도화	15
IV. 기초 분석 결과	21
1. 학생 설문 분석 결과	21
2. 보호자 설문 분석 결과	73
3. 교사 설문 분석 결과	92
V. 학생-교사-보호자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19
1. 공통문항 비교 분석 결과	119
2. 비교 분석 결과 시사점	135
VI. 하드데이터 연계 분석	141
1. 하드데이터 연계 분석 개요	141
2. 지역별 연계 분석 결과	144
3. 공공데이터 연계 분석 결과 시사점	155
4. 환류체계 제안	161
VII. 결론	163
VIII. 참고문헌	167
[부록 1] 설문지 최종(안)	169

표 차 례

〈표 2-1〉 지역 맞춤형 학교 체제 구축 주요 내용	9
〈표 3-1〉 모델 개발 연구(1, 2)의 표집 방법	16
〈표 3-2〉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1) 표집 규모	17
〈표 3-3〉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2) 표집 규모	17
〈표 3-4〉 전국단위 실태조사 표집 규모	18
〈표 3-5〉 공공데이터 출처 및 관련 정보	19
〈표 4-1〉 학생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4-2〉 학생 응답 지역별 분포	22
〈표 4-3〉 학교 시설 환경(초등학생)	25
〈표 4-4〉 학교 학습 활동(초등학생)	26
〈표 4-5〉 학교 생활(초등학생)	27
〈표 4-6〉 교육 포부(초등학생)	28
〈표 4-7〉 가정환경(초등학생)	29
〈표 4-8〉 지역 및 주변환경(초등학생)	30
〈표 4-9〉 수업태도 및 이해정도(초등학생)	31
〈표 4-10〉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초등학생)	32
〈표 4-11〉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초등학생)	33
〈표 4-12〉 디지털 학습역량(초등학생)	33
〈표 4-13〉 학습 동기(초등학생)	34
〈표 4-14〉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초등학생)	35
〈표 4-15〉 주거환경 만족(초등학생)	35
〈표 4-16〉 도시 진학 희망(초등학생)	36
〈표 4-17〉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36
〈표 4-18〉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37
〈표 4-19〉 학교 시설 환경(중학생)	38
〈표 4-20〉 학교 학습 활동(중학생)	39
〈표 4-21〉 학교 생활(중학생)	40
〈표 4-22〉 교육 포부(중학생)	41

〈표 4-23〉 가정환경(중학생)	42
〈표 4-24〉 지역 및 주변 환경(중학생)	43
〈표 4-25〉 수업 태도 및 이해정도(중학생)	44
〈표 4-26〉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중학생)	45
〈표 4-27〉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중학생)	46
〈표 4-28〉 디지털 학습 역량(중학생)	46
〈표 4-29〉 학습 동기(중학생)	47
〈표 4-30〉 자기 이해 및 진로 계획(중학생)	48
〈표 4-31〉 주거환경 만족(중학생)	48
〈표 4-32〉 도시 진학 희망(중학생)	49
〈표 4-33〉 상급 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중학생)	49
〈표 4-34〉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중학생)	49
〈표 4-35〉 학교시설 환경(일반고)	50
〈표 4-36〉 학교 학습 활동(일반고)	51
〈표 4-37〉 학교 생활(일반고)	52
〈표 4-38〉 교육 포부(일반고)	53
〈표 4-39〉 가정환경(일반고)	54
〈표 4-40〉 지역 및 주변환경(일반고)	55
〈표 4-41〉 수업태도 및 이해정도(일반고)	56
〈표 4-42〉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일반고)	57
〈표 4-43〉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일반고)	58
〈표 4-44〉 디지털 학습역량(일반고)	58
〈표 4-45〉 학습 동기(일반고)	59
〈표 4-46〉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일반고)	60
〈표 4-47〉 주거환경 만족(일반고)	60
〈표 4-48〉 도시 진학 희망(일반고)	61
〈표 4-49〉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일반고)	61
〈표 4-50〉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일반고)	61
〈표 4-51〉 학교 시설 환경(특성화고)	62
〈표 4-52〉 학교 학습 활동(특성화고)	63

〈표 4-53〉 학교생활(특성화고)	64
〈표 4-54〉 교육 포부(특성화고)	64
〈표 4-55〉 가정환경(특성화고)	65
〈표 4-56〉 지역 및 주변 환경(특성화고)	66
〈표 4-57〉 수업 태도 및 이해정도(특성화고)	67
〈표 4-58〉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특성화고)	68
〈표 4-59〉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특성화고)	69
〈표 4-60〉 디지털 학습역량(특성화고)	69
〈표 4-61〉 학습 동기(특성화고)	70
〈표 4-62〉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특성화고)	70
〈표 4-63〉 주거환경 만족(특성화고)	71
〈표 4-64〉 도시 진학 희망(특성화고)	71
〈표 4-65〉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특성화고)	72
〈표 4-66〉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특성화고)	72
〈표 4-67〉 보호자 응답자 특성	73
〈표 4-68〉 지역별 응답 결과(보호자)	74
〈표 4-69〉 학교생활 만족도(보호자)	76
〈표 4-70〉 학교 운영 만족도(보호자)	77
〈표 4-71〉 자녀의 통학 수단 및 거리	78
〈표 4-72〉 자녀의 희망 교통 수단	79
〈표 4-73〉 교과별 방과후학교 개설 과정 여부	79
〈표 4-74〉 교과별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80
〈표 4-75〉 자녀와의 대화 및 활동 빈도	82
〈표 4-76〉 자녀 희망 교육수준 및 가능 교육 수준	82
〈표 4-77〉 부모 효능감	83
〈표 4-78〉 디지털 학습환경과 미래역량에 대한 인식	84
〈표 4-79〉 교육 및 정주여건 만족도	85
〈표 4-80〉 보호자 인식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	86
〈표 4-81〉 보호자 인식 자녀의 전인적 발달 수준	87
〈표 4-82〉 주거 및 주변 환경 만족도(보호자)	88

〈표 4-83〉 거주지 이동 의사 및 이유(보호자)	89
〈표 4-84〉 상급학교 진학 지역 선택 및 이동 동기 분석	89
〈표 4-85〉 학교 통폐합 찬성 의견 및 사유(보호자)	90
〈표 4-86〉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우선순위(보호자)	91
〈표 4-87〉 농어촌 학교의 지역 발전 기여도 및 사회적 역할(보호자)	91
〈표 4-88〉 교사 응답자 특성	92
〈표 4-89〉 지역별 응답 분포(교사)	93
〈표 4-90〉 학교 교육 시설 만족도(교사)	95
〈표 4-91〉 학교 풍토(교사)	97
〈표 4-92〉 학교 주변환경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 만족도	98
〈표 4-93〉 학교 교수학습 활동	100
〈표 4-94〉 교과수업 진행 저해 요인	101
〈표 4-95〉 학생 상담 유형 및 빈도	103
〈표 4-96〉 학생상담의 실질적 고민 주제	104
〈표 4-97〉 주당 평균 수업 시간	104
〈표 4-98〉 학교급별 수업 내용 이해도	105
〈표 4-99〉 학생 개인별 특성 및 수준 파악 정도	106
〈표 4-100〉 생활지도 및 비행 행동의 심각성	107
〈표 4-101〉 직무 만족도	108
〈표 4-102〉 교사 효능감	109
〈표 4-103〉 거주 실태 및 타 지역 거주 사유	110
〈표 4-104〉 통근 수단 및 소요 시간	111
〈표 4-105〉 주거환경 만족도(교사)	111
〈표 4-106〉 농어촌 학교 유입 주요 경로 및 동기	112
〈표 4-107〉 농어촌 학교 장기근무 의사 및 동기	113
〈표 4-108〉 실질적 교육 지원 정책 우선 순위(교사)	114
〈표 4-109〉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 인센티브 운영 방안	114
〈표 4-110〉 학교 통폐합 찬성 의견 및 사유(교사)	116
〈표 4-111〉 농어촌 학교의 지역 발전 기여도 및 사회적 역할(교사)	117
〈표 6-1〉 공공데이터 정보	141

〈표 6-2〉 지표 활용 정보 및 산출식	142
〈표 6-3〉 지표에 활용된 설문 문항	142
〈표 6-4〉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44
〈표 6-5〉 경기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45
〈표 6-6〉 경상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46
〈표 6-7〉 경상북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47
〈표 6-8〉 대구광역시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48
〈표 6-9〉 인천광역시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49
〈표 6-10〉 전라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50
〈표 6-1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51
〈표 6-12〉 충청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52
〈표 6-13〉 충청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2023년 시범조사)	153
〈표 6-14〉 2023년 시범조사와 2025년 본조사 충남지역 비교	153
〈표 6-15〉 실태조사 데이터 안정성	153
〈표 6-16〉 충청북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154
〈표 6-17〉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종합)	155
〈표 6-18〉 학생 순 이동 상·하위 지역	158
〈표 6-19〉 학생 비율 5%미만 지역	159
〈표 6-20〉 농어촌 교육 설명지수 핵심 지표	161
〈표 6-21〉 농어촌 교육 설명지수 산출 예시	161

그림 차례

[그림 5-1] 학교급별 학교시설환경 만족도	119
[그림 5-2] 행정구역별 학교시설환경 만족도	120
[그림 5-3] 학교급별 학교학습 활동 만족도	120
[그림 5-4] 행정구역별 학교학습 활동 만족도	121
[그림 5-5] 학교급별 학교생활 만족도	121
[그림 5-6] 행정구역별 학교생활 만족도	122
[그림 5-7] 학교급별 가정환경 만족도	123
[그림 5-8] 행정구역별 가정환경 만족도	123
[그림 5-9] 학교급별 주변환경 만족도	124
[그림 5-10] 행정구역별 주변환경 만족도	125
[그림 5-11] 학생-보호자-교사 주변환경 만족도	125
[그림 5-12] 학교급별 학습태도 및 성향	126
[그림 5-13] 행정구역별 학습태도 및 성향	127
[그림 5-14] 학교급별 디지털 학습 역량	128
[그림 5-15] 행정구역별 디지털 학습역량	128
[그림 5-16] 학교급별 학업동기 및 태도	129
[그림 5-17] 행정구역별 학업동기 및 태도	129
[그림 5-18] 학교급별 자기이해	130
[그림 5-19] 행정구역별 자기이해	130
[그림 5-20] 학교급별 주거환경 만족도	131
[그림 5-21] 행정구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132
[그림 5-22] 학생-보호자-교사 주거환경 만족도	132
[그림 5-23] 학교급별 도시 지역 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133
[그림 5-24] 행정구역별 도시 지역 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134
[그림 6-1] 학교만족도-외부환경 만족도 사분면	156
[그림 6-2] 학교만족도-외부환경 차이 상위 10개 지역	157
[그림 6-3] 학교-외부환경 만족도 차이에 따른 유학압력 상관관계	157

I. 서론

1.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 전국단위 실태조사의 필요성

□ 사회현상의 급격한 변화와 실태조사의 필요성

-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의 다양한 사회현상으로부터 비롯된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역의 학생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사회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변화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면밀한 조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필요성

- 농어촌지역은 일반지역과는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최대한 반영된 별도의 조사 도구와 조사 방법, 조사 체계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이처럼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때, 농어촌 현실에 최대한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정책방안의 도출이 가능함.

□ 교육 문제 특화 조사의 필요성

- 특히, 농어촌지역 문제 중에서도 ‘교육’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20)), 다른 영역보다 교육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소멸 위기 심화와 농어촌 교육의 중요성 증대 속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농어촌 교육 실태 파악이 필수적임.

□ 선행 연구의 성과와 확장

-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로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 지원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황명진 외, 2023, 이하 연구(1)로 지칭)를 수행하였음.
- 다음 해에는 이를 발전시켜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와 함께 「농어촌 지역 학생 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모델 개발연구(II)」(황지원 외, 2023, 이하 연구(2)로 지칭)를 수행하여 실태 파악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였음.
- 특히 실태조사 연구(2)에서는 모델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파

일련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한 바 있음.

- 시범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모델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확장하여 데이터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함의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전국단위 실태조사의 필요성
 - 이에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모델 개발연구(Ⅱ)」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로 확장하여 농어촌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후속연구의 추진이 필요함.
 - 전국의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조사로서,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농어촌교육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 문항 및 조사항목 구성
 - 이 연구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기존 일반적인 실태조사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색을 반영한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체계를 구성하는 것임.
 - 농어촌의 업무 특성이나 인적자원의 특성, 학교 특성에 맞는 조사 도구 및 조사 체계를 구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최적의 설문지 개발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 학생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 수행
 -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학생의 가정배경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수반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함.
 - 그중에서도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언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사항이 될 것임.
- 농어촌 학생 및 농어촌교육 관련 계획 수립 지원
 - 2023년에 수행된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모델 개발연구(Ⅱ)」를 기반으로, 시범 지역인 충남에서 확장하여 전국 단위로 조사 대상을 확장하는 첫 실태조사임.

- 따라서 농어촌 교육 및 학습 실태를 종합적이고 대표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배경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결과를 제공해야 함.
- 농어촌지역의 현황 점검 및 대안 탐색이 가능한 조사 체계 구축
 -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농어촌 지역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지자체, 거주자 등에게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발적인 대안 탐색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함.
- 농어촌 교육 정책의 효과성 검토 자료로 활용
 - 실태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 기본적인 실태조사 문항에 더하여, 각종 지수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제안하고, SMART*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로서의 속성을 강화해야 함(*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ly)
- 농어촌 정책 관련 아이디어 제안 및 후속과제 제안
 - 이 연구를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에 기반한 연구자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연구의 실제적 효용을 높여야 함.
 - 아울러 연구에 모두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후속과제로 제안함으로써 농어촌 실태조사 연구의 지속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II. 선행연구

1. 농어촌 관련 선행 연구

□ 이지나, 황명진, 박소영(2025).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보호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리뷰, 10(1), 225-244.

- 농어촌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요인을 분석하였음.
- 보호자들은 학교시설의 노후화, 교사 수급 불균형, 진학 정보 접근성 부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함.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진로지도 서비스가 도시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함.
- 연구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교사 배치의 순환구조, 시설 접근성, 지역사회 연계 미흡으로 지적함.
- 교육정책의 방향으로는 ① 농어촌 교사 장기근속 유도 및 역량강화, ② 지역사회와 협력한 진로상담체계 구축, ③ 학부모 참여형 학교거버넌스 활성화를 제안함.
- 보호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교육실태 연구로서, 정책 수요자 인식 기반의 실증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생 및 교사 관점의 통합적 분석은 미흡함.

□ 이로(2025). 농촌의 초·중등학교 STEM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미국과 호주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5), 597-606.

- 한국 농촌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 농촌교육 정책을 비교·분석함.
- 미국의 Rural STEM Collaboration Program, 호주의 Digital Technologies Hub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완화 및 지역 맞춤형 STEM 콘텐츠 개발 방안을 검토함.
- 해외 사례는 농촌지역 학생에게 온라인 실험실, 원격 멘토링, 산업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함을 보여줌.
- 한국의 농촌교육 정책은 ICT 인프라와 교사 전문성 지원이 미흡하여, STEM 교육의 질적 확산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함.
- 제안된 개선방안은 ① 지역대학·공공기관 연계형 STEM 교육 네트워크 구축, ② 디지털 실험실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 ③ 농촌산업과 연계한 STEM 교육 콘텐츠 개발임.

- 해외사례를 통해 농촌 STEM 교육의 디지털·산학협력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비교 정책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국내 실증자료의 결합이 부족함.

□ 고정국, 이민우(2024). 농어촌 청년의 생활여건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33(4), 439-450.

- 농어촌 청년층의 생활·복지여건을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여 정책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함.
- 분석 결과, 청년층은 교육 및 문화시설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남.
- 주거, 의료, 교통 여건도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정주환경의 복합적 불만 요인이 확인됨.
- 연구는 농어촌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② 지역 직업·창업 교육 강화, ③ 청년정착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함.
- 특히 교육복지 요소를 지역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하여 청년층의 지역사회 참여와 학습 기회 보장이 농촌 활성화의 관건임을 시사함.
- 다만 청년 개별 특성(직업, 소득, 학력 등)을 세분화한 분석이 부족하여, 맞춤형 정책 설계에는 한계가 있음.

□ 김경태, 김은주, 김지현(2024).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농어촌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2(2), 151-167.

- 농어촌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매체 기반 단계별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실험연구임.
- 프로그램은 온라인 수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시간 피드백을 결합한 구조로 설계됨.
- 연구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음악 표현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만족도가 유의하게 향상됨.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예술교육이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강화 및 참여도 제고에 효과적임을 확인함.
- 정책적으로는 ① 농어촌 디지털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② 예술교육 전담교사 배치, ③ 순회형 예술교육제 도입을 제안함.
- 농어촌의 열악한 예술교육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기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실증적

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검증은 미흡함.

□ 황혜민, 김효정(2025).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학교 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인식조사: 초등학교 학부모와 미술강사를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371-403.

- 본 연구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학부모와 미술강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함.
- 연구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10여 곳의 방과후학교 참여 학부모 및 미술강사이며, 설문 및 면담을 병행함.
- 분석 결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서 발달, 창의성, 문화적 경험 확대를 위해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나, 전문 강사 부족과 프로그램의 지속성 한계를 문제로 지적함.
- 미술강사들은 교통 여건, 예산 제약, 수업공간 부족, 지역 간 지원 불균형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언급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성 개발 기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연구는 학교-학부모-강사 간 협력체계 미비가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제약 요인임을 밝혔으며, ① 지자체 및 교육청 차원의 순회형 예술강사 제도 확대, ② 온라인·디지털 미술교육 콘텐츠 활용, ③ 학부모 자율참여형 지역 미술동아리 연계 모델을 제안함.
- 본 연구의 의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미술교육을 ‘참여자 중심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데 있음.
- 다만 학생 직접 참여자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효과나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적 검증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농어촌 교육정책이 ‘인프라 보완’ 중심의 단일 과제를 넘어서, 지역 맞춤형 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함.

- 농어촌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격차 보완형에서 지역기반 통합지원형으로 전환 중이며, 디지털 전환, 문화예술교육, 청년정착, 복지 연계가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장 기반 실태조사와 정량·정성 통합지표 개발을 통한 정책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함.

2. 농어촌 관련 정책 연구

1) 농촌 진흥청,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교육 및 문화·여가 관련 생활 만족도 결과,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을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인식함.

○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평균 54.8점('보통' 수준)임

○ 교육 여건(46.0점과 문화·여가 여건(48.0점)은 낮음 수준임.

○ 복지서비스(49.8), 보건의료(49.7), 기초생활기반(48.3), 교육여건 (46.0), 문화·여가 (48.0)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

○ 상대적으로 환경·경관(67.1), 안전(65.4), 이웃관계(61.9)는 높음.

□ 세대 및 소득별 교육·문화 인식 차이 결과 특히, 고령층 가구의 편차가 있으므로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기초교육, 학부모-학생 공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반 평생교육 및 세대통합형 학습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65세 이상 고령가구 및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교육·문화·여가·정보화 중요도 인식이 낮게 나타남.

○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교육 여건 중요도와 정보화 여건 중요도가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음.

□ 지역공동체 참여 및 주민역량 교육은 증가하고 있으며 긍정적 평가이므로 교육참여를 마을 차원으로 확장 필요함

○ 최근 5년간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역량교육 참여율은 12.7%, 참여 의향은 30.2%로 상승 추세. 특히 면 지역에서 참여 및 향후 의향률이 높게 나타남.

○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화합(50.7%), 마을 발전(48.3%)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2%로 낮았음.

□ 정보화 및 학습 접근성(인터넷 활용)이 낮으므로 디지털 접근성 구축이 필요함.

○ 농어촌 주민의 인터넷 이용 목적 중 교육·학습은 49.0%, 도시에 비해 약 10.9%p 낮음. 홈페이지 운영(53.7%), 직업·구직 활동(22.4%)도 낮게 나타남.

2) 농어촌 학생 맞춤 지원 관련 정책 분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맞춤형 학교 체제 구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025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p.193)

〈표 2-1〉 지역 맞춤형 학교 체제 구축 주요 내용

세부전략	주요 내용
지역 맞춤형 학교 체제 구축	- 소멸 위험 지역에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을 확대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 체제 재구조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 -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시범사업 추진 - 교육특구 내 학교는 365일 열린 학교, 사교육 부담 제로 학교 등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학교 모델로 운영
농산어촌형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 체제 구축	-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마을교육체제로 전환해 지역과 학교의 상생 기반 마련 - 학교, 관공서, 보건소, 마을회관,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 조성 - 도시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산어촌 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교육 다양성 확보

- 윤석열 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지역교육 정책 비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20번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와 새 정부(국민주권정부) 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지역 맞춤형 학교 체제 구축' 공약은 모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보임.
- 1) 지역 특구를 지정하여 자율성과 혁신성 부여, 2)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학교를 연결하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 수행, 3)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교육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정책을 활용함.
- 전 정부 국정과제 방향은 규제 완화,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반면, 새 정부 정책 방향은 유·초·중·고 통합학교, 마을교육 체제, 농산어촌 유학 등 특정 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 자체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여 농촌의 교육적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차이점을 보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관련 정책 사업 중 교육 격차 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기회 확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등 교육적 측면을 중점으로 분석

- 농어촌 참 좋은 학교(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교육부): 농어촌 지역의 강점과 특색이 반영된 우수한 농어촌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굴 프로그램임. 성공적인 교육 모델 분석, 정책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실질적 발전 방안 모색

- 농촌 유학(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교육청, 강원/전남/전북/제주): 도시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 학교로 유학을 가는 프로그램임. 농어촌 교육의 잠재적 가치와 외부의 수요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의 구체성 강화
- 우리동네 예술학교(교육부,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농어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에 대한 효과성 검토
- 그 외, 농어촌 교육의 잠재적 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대안의 연계성 확보 가능성을 높임.

3) 기존 실태조사 연구 결과 검토

-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모델 개발 II(연구 2)의 연구결과 분석 수행
- 전국단위 본 조사에 앞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조사는 농어촌 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인 현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작용하였음. 이는 본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될 문제들의 축소판으로서, 정책적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 여건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격차
 - 학교 시설 만족도: 학생들은 급식 시설이나 보건실 등 학교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컴퓨터·멀티미디어 기기나 교실 냉난방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시설 유형별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함.
 - 지역 환경 만족도: 학교 시설과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지역 사회의 교육 및 생활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문화시설(5점 만점 평균 2.52점), 진로체험 시설(평균 2.31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학교 밖 교육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하며, 정책적 투자가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줌.
- 학생의 학습 특성 및 잠재력
 - 높은 학습 의욕: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문항에 68.5%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내재된 학습 동기와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효능감: 반면, '공부에 자신이 있다' 또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문항에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응답이 많아, 높은 학습 의욕이 실제 학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부족한 비교과 활동: 단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4%에서 85.8%로 매우 높음. 지역 사회의 문화 및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문제와 맞물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계발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음

○ 도시 진학 의향 및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 도시 진학 희망: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응답은 학생(58.9%)이 보호자(41.4%)보다 높게 나타나, 당사자인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음.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재 유출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입장 차이: 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성률은 학생(55.8%) > 보호자(41.9%) > 교사(28.0%)순으로 나타나, 교육 주체별로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름
- 통폐합 찬반 이유 분석: 통폐합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학교 시설이 좋아질 것 같아서'(19.9%)와 '더 많은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서'(12.9%)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 반면, 반대 이유는 '현재 학교 교육에 만족해서'(12.3%)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져서(통학 거리)',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서'(7.2%) 등으로, 이는 통폐합 정책 추진 시 물리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존 교육의 질적 유지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시범조사 결과는 농어촌 교육의 현실이 단순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교육 주체 간의 인식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4)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통합 분석 결과를 통한 설문 내용 재구성

- 최근 농어촌 교육 관련 연구들과 2024년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단순한 학력격차 문제가 아닌 생활·문화·정보·공동체 구조 전반의 불균형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교육은 복지의 결과이자 복지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
- 특히, 충남지역 시범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농어촌 학생들의 특성(시설 만족도 격차, 도시 진학 욕구, 심리적 특성(높은 의욕 vs 낮은 효능감) 등의 핵심 요인들이 설문 문항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농어촌 교육의 핵심 이슈와 시사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한 설문 문항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함(최종 설문(안) 부록 1 참고).
- (디지털 전환 및 미래역량 교육 수요 반영) 선행연구는 농어촌 지역에서 ICT 인프라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기회가 부족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당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단순한 교육환경 조사가 아닌 미래역량 기반 농어촌 교육정책의 기초 데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함.
-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등 인프라 실태
- 코딩, 빅데이터 등 정보화 관련 과목 개설 희망 여부 등 미래 기술 교육 수요

- AI 및 디지털 학습환경에 관한 신설 문항을 추가하여 최근 교육정책 변화(디지털 전환, 생성형 AI 활용, 미래 역량교육 등)를 반영
- (학생)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 AI/코딩 역량의 중요성 인식 및 노력 여부
 - 나는 최근 1년 동안 미래 기술 관련 활동(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나는 필요한 학습 자료를 온라인(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 나는 학교 과제 수행 시 디지털 도구(문서, 슬라이드, 간단한 영상 편집 등)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다.
 - 나는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디지털 역량(AI, 코딩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호자) 자녀의 온라인 학습환경, 미래 디지털 역량교육 등
 - 우리 집에는 자녀가 온라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디지털 기기(PC, 태블릿)가 충분하다.
 - 자녀의 미래 진로를 위해 디지털 역량(AI 이해, 코딩 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녀의 디지털 학습을 위해 정보화 기기 구매나 인터넷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데 부담이 없다.
 - 우리 지역은 자녀의 디지털 역량(코딩, 정보화 등)을 키울 수 있는 학원이나 교육 기관이 충분하다.
- (교사) 교수학습 지원 및 활용 정도
 - 우리 학교는 AI,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관련 교육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 나는 수업 시간에 디지털 도구(AI 도구, 태블릿, 학습 플랫폼 등)를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문화·예술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부족) 선행연구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강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또한 지역 환경 만족도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해당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등) 충분성
 - 최근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활동 참여 경험을 통한 실제 접근성
 - 예체능 과목에 대한 추가 개설 희망을 물어, 교과 과정 내에서의 예술교육 수요를 확인
- (도시 진학 욕구와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 및 시범조사 결과, 학생들은 보호자보다 도시 지역 진학을 더 희망하며(58.9%),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과 교우 관계 확대를 이유로 찬성하는 비율이 교사보다 높게 나타남. 설문지는 이러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됨.

- 상급 학교 진학 시 도시 이주 희망 여부와 그 이유(교육환경, 문화시설 등)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의 원인을 진단
- 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과목 다양화, 시설 개선, 통학 거리, 친구 이별)를 물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실리적/관계적 욕구를 재확인
- (학습 심리 특성) 선행연구 결과, 농어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68.5%)은 높지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와 같은 차이를 측정하여 맞춤형 정서 지원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함.
-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효능감)
-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동기)
- (정주 여건 및 교육 격차의 구조적 원인 파악) 선행연구는 교육 외적인 정주 여건(의료, 교통, 주거)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함. 교육문제가 지역 인프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문항 구성
- 주거 환경 및 주변 환경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학원, 의료, 문화시설 등)
- 사교육(학원, 과외) 기회의 충분성을 물어 공교육 외적인 교육 격차 요인을 조사
- 이와 같이,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우리 연구의 방향도 지속가능한 농어촌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며, 농어촌 교육을 단순한 학교정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 육성 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정책적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함.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농어촌 범위 설정

- 농어촌 정의: '인구규모 5만명 이하의 읍면 지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기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 포함 여부, 도농복합시의 성격 파악 방안 모색 등 다양한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의 명확한 범주 설정
- 읍면 구분: 대부분의 행정 자료에서 읍/면을 농어촌으로 보는 경향을 고려하되, 세부적인 차이점 분석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사 설계에 반영
- 본 연구에서는 양희준 외(2018)에서 사용한 농촌 개념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이를 준용한 농촌 개념을 정의하였음.
- '군' 지역을 기본적인 농어촌으로 보지만, '시'에서도 도농복합시처럼 실질적인 농어촌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완적으로 활용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99개의 시·군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

2. 조사 체계 고도화

1) 조사대상

- 농어촌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학생-학부모 집단별 독립적 응답 구조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연구(1)에서 제안한 학생-학부모 매칭 방법은 익명 온라인 조사에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식별코드 필요, 복잡한 행정절차, 응답률 저하 등 단점)하며 익명성 원칙에 위배됨.
-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응답 전체와 학부모 응답 전체를 서로 독립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의 평균적인 인식 차이(예: 학교 만족도, 진학 희망도), 간접적 영향력 분석(예: 부모님의 관심 및 지원 정도,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정도)을 수행하고자 함.
-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2)에서 도출된 초등학교 저학년의 낮은 응답률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원 또는 교사 대상의 사전 교육 필요성 논의하였으며, 문항의 형식 조정 등의 개선 방안 마련하고자 함.
- 이에 연구진, 교육부 및 중앙 농어촌 교육지원센터의 논의 결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을 고려하여 사전 교육 대신 초등학교급은 6학년만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더불어 학생 설문 문항 수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여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춰 응답률과 응답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함.

□ 교사는 해당 학교의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함.

- 연구(1)에서는 학생이 선정되면 학생의 담임교사도 교사 표본으로 같이 선정하여 학생-학부모-교사 데이터의 유기적 연결. 반면, 연구(2)에서는 학교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 응답자를 지정, 학교 현황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전체의 대표성 확보, 담임교사 업무 부담 가중 고려, 매칭 및 익명성 문제, 행정적 오류 발생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학교 전체의 평균적인 인식을 묻는 방법으로 교사 표본을 선정함.

2) 표집방법

□ 전국 단위 조사의 신뢰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 및 고도화

- 모델 개발 연구(1,2)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4월 1일자)를 표집틀로 사용하며, 층화 2단 군집 추출을 수행함.

〈표 3-1〉 모델 개발 연구(1, 2)의 표집 방법

구분	연구(1)	연구(2)
층화변수	15개 시·도(서울, 광주 제외), 학교급	14개 시·도(서울, 광주, 대전 제외)의 99개 기초자치단체, 학교급
표본학교 (1차추출)	확률비례추출	체계적 확률비례추출
표본학급 (2차추출)	표본학교 내에서 조사대상이 될 학년을 계통추출로 먼저 뽑은 후, 해당 학년의 학급을 단순임의추출	표본학교 내에서 학년을 따로 추출하지 않고, 단순임의추출 1개 학급 선정
학생추출	추출된 표본학급에 속한 모든 학생은 조사 대상(표본)이 됨	

- 본 연구 역시, 교육통계연보 2025.4.1.일자 기준 자료를 표집틀로 활용하였으며, 연구(2)에서 제안된 99개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설정함. 단, 본 연구는 층화변수를 99개 기초자치단체와 학년(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일반고 2학년, 특성화고 2학년)으로 두어 전수조사를 수행함(층화 임의 표집 방법 활용).

- 연구 대상인 농어촌 지역 학생의 특성(지역별, 학교급별)을 정확히 반영하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99개 지역과 4개 학년을 층화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층내에서는 동질적이고 층 간에는 이질적인 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층화된 각 층(예: A 지역 초6 학생)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층 내의 모든 대상(학생, 학부모, 교사)을 조사 대상으로 함.

3) 표집 규모

-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교육부 협의 및 연구진 검토를 통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최적화된 표본 설계를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고 확정함.
-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1)에서 제시된 최종 표집 규모는 학생 37,028명, 학부모 27,028명, 교사 1,970명 등 총 76,026명으로 제시하였음.

〈표 3-2〉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1) 표집 규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특성화고)	계
학생 수	13,501	12,248	9,171	2,105	37,028
학교 수	866	568	412	124	1,970

-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2)에서 모집단 대비 3%의 표집 규모는 학생 11,670명 학부모 11,670명, 교사 1,741명임. 단, 모집단 대비 3%를 표본크기로 삼으면 전체 실태 보고에는 적절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 보고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판단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읍지역의 학교를 하나 이상 표집하는 보완된 5.7%의 표본 설계를 각각 제안함.

〈표 3-3〉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2) 표집 규모

모집단 대비 표집규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특성화고)	계
3%	학생 수	4,563	3,636	2,756	715	11,670
	학교 수	1,627	879	358	144	3,008
5.7%	학생 수	6,518	6,088	6,039	3,500	22,145
	학교 수	1,627	879	358	144	3,008

-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15개 시도 (대전 제외 14개), 4개 학교급(초등, 중등, 일반고 (종합고 포함), 특성화고) 층화 표집 방안 반영(99개 지역, 4개 학교급별(초등, 중등, 일반고, 특성화고) 대표 학년(6학년, 2학년) 추출)함.
- 선정된 3개 학년(초6, 중2, 고2)은 각각 상급 학교 진학(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취업)을 앞두고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진로/진학 고민을 하는 시기이며, 농어촌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함.
- 모든 학년을 조사할 필요 없이, 가장 변별력이 높은 시기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표 3-4〉 전국단위 실태조사 표집 규모

구분	모집단 대비 표집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계
학생 수 (해당학년)	전체	35,457	40,248	25,089	7,529	
	3%	1,064	1,207	1,053	226	3,550
교원수	전체	26,347	15,569	12,845	3,853	
	3%	790	467	385	116	1,758
학교 수	전체	1,067	873	400	141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별로 정확하게 3%를 배분했으므로, 학교급별 모집단 특성은 대표할 수 있으며, 학생 3,550명, 교원 1,758명이라는 표본 크기는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오차 한계를 관리하는 데는 충분한 규모임.
- 학부모 전체 명단인 표집률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학교 단위의 협조를 통한 비확률 표집 방법(편의 표집)을 실시함.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 및 모바일 알림장 앱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음. 이러한 방식은 학교라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응답자를 모집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학부모 역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함.
- 단 온라인 조사 특성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만 집중하여 조사하거나, 응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표본 크기가 충분해도 대표성은 저해될 수 있음.

4) 조사 절차 및 방법

- 조사 기간: 2025년 11월 17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약 3주간 실시
- 조사 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5) 조사 내용 및 설문 설계

- 설문은 '투입-과정-인식-산출'의 교육학적 틀을 기반으로 하되, 2023년 연구(2)와 선행연구 분석에서 드러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문항을 고도화함.
-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표형 통계로 제공하는 행정 기초자료와 본 조사의 설문 결과를 연계 분석하여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를 결합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 전수조사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 표본조사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학교공시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 학생, 교원 등에 대한 통계
- 그 이외에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 등을 실태 조사 내용에 포함

〈표 3-5〉 공공데이터 출처 및 관련 정보

영역	조사명	출처	관련정보	조사기준일/ 자료갱신일
인구정보	주민등록인구 통계	행정안전부	행정기관별 총인구수, 세대수, 성별 인구 수 등	2025.10
	유초중등교육 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행정구역별 학년별 학교수, 학급수 및 학생수 등	2025.4. 1
			연령별 학생수	2025.4월 1일
			학생 변동 현황	2024.3.1.월- 2025.2월 말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현황	2024.3.1.- 2025.2월 말
			입학 및 졸업 후 현황	2025년 3월 입학 기준, 2025년 2월 졸업 기준
교육여건	유초중등교육 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시설 현황	2025.4. 1
	사설학원 및 독서실	KOSIS 국가통계포털	사설학원 현황, 평생교육 시설 현황	행정구역별 상이함
행·재정	유초중등교육 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직위별 교원수	2025. 4.1
가정환경	유초중등교육 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다문화(유형별)학생수	2025. 4. 1
	지역소득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내 총 생산(GRDP)	행정구역별 상이함

IV. 기초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연구(2)에서 시범조사를 통해 검증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역량 영역을 추가함. 단, 학생조사는 문항을 축소하되 측정 영역은 변동 사항 없음
- 본 조사의 결과는 99개 시·군 지역, 학교급별 학년을 선정하여 표본을 설정하였으며, 교육청의 참여 요청 공문에 따라 응답하기로 한 대상의 결과임
- 조사 대상을 학생, 보호자, 교사로 나누어 각각의 문항별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비교가 필요한 경우 비교 결과를 보완하였음.
- 학생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나누어 부가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학생과 학부모/교사 집단의 비교가 가능한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결과에 추가적으로 집단별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음
- 마지막에 전체적인 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1. 학생 설문 분석 결과

- 학생 응답자 3,624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 빈도분석 결과임
- 남학생(50.7%)과 여학생(49.3%)로 비슷하게 분포함
- 중학교(34.9%)와 일반계 고등학교(31.5%)가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형제 및 자매 구성은 본인을 포함해 2명인 가구가 50.8%로 가장 높았음
- 면 지역(41.0%)과 읍 지역(42.9%)이 높게 나타남

〈표 4-1〉 학생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836	50.7
	여자	1,788	49.3
학교급	초등학교	976	26.9
	중학교	1,266	34.9
	고등학교(일반계)	1,141	31.5
	고등학교(특성화)	241	6.7
형제 및 자매 수 (본인 포함)	1명	556	15.3
	2명	1,840	50.8
	3명	921	25.4
	4명	213	5.9
	5명 이상	94	2.6
지역구	면 지역	1,486	41.0
	읍 지역	1,556	42.9
	동 지역	582	16.1
전체		3,624	100.0

- 총 99개 지역, 학생 표본 118,323명 중 3,624명이 응답하여 전체 응답률 3.1%를 기록함.
- 충청남도 4.5% (789명), 경상북도 4.0% (797명), 전라남도 3.8% (691명), 전북특별자치도 3.5% (437명), 경상남도 3.1% (556명)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0.0%), 경기도(0.1%), 강원특별자치도(1.5%) 순으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남.
 - 최고 응답률 지역은 경상북도 영양군(53.2%)으로, 표본 대비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확보하여 데이터 신뢰도가 매우 높음.
 - 고응답 지역(20% 이상)은 경상북도 청송군(28.0%) 및 영덕군(21.2%) 전라남도 강진군(25.6%), 충청북도 단양군(23.8%)으로 나타남
 - 주요 응답 거점(인원수 기준)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512명), 경상북도 칠곡군(494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430명) 등 특정 시·군에서 대량의 응답이 집중됨.
 - 99개 지역 중 상당수(예: 강원 대부분, 인천 전체, 경기 포천 등)의 응답률이 0.0%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경북(797명)과 충남(789명)이 전체 응답자의 약 43.8%를 차지하고 있어, 분석 결과가 특정 지역의 의견에 쏠릴 가능성이 큼.
 - 경기도는 표본 수(10,224명)가 많으나 실제 응답자(8명)가 극히 적어, 경기도 지역에 대한 표본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표 4-2〉 학생 응답 지역별 분포

지역1	지역2	학생 표본	응답 인원	표본 대비 응답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419		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1,217	105	8.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534	20	3.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443		0.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647		0.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553		0.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557		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870		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674		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1,217		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427		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922		0.0
소계		8,480	125	1.5
경기도	가평군	1,310		0.0
경기도	양평군	2,756	2	0.1
경기도	여주시	2,622	4	0.2
경기도	연천군	754	2	0.3
경기도	포천시	2,782		0.0
소계		10,224	8	0.1
경상남도	거창군	1,694		0.0
경상남도	고성군	1,119	1	0.1
경상남도	남해군	863	1	0.1

지역1	지역2	학생 표본	응답 인원	표본 대비 응답률
경상남도	밀양시	2,142		0.0
경상남도	사천시	2,879		0.0
경상남도	산청군	507		0.0
경상남도	의령군	361		0.0
경상남도	창녕군	1,309	1	0.1
경상남도	통영시	3,473	512	14.7
경상남도	하동군	584		0.0
경상남도	함안군	1,519		0.0
경상남도	함양군	649		0.0
경상남도	합천군	634	41	6.5
소계		17,733	556	3.1
경상북도	고령군	422		0.0
경상북도	김천시	3,563	1	0.0
경상북도	문경시	1,359	1	0.1
경상북도	봉화군	459		0.0
경상북도	상주시	2,070	1	0.0
경상북도	성주군	629		0.0
경상북도	영덕군	491	104	21.2
경상북도	영양군	231	123	53.2
경상북도	영주시	2,452		0.0
경상북도	영천시	1,717		0.0
경상북도	예천군	958		0.0
경상북도	울릉군	114		0.0
경상북도	울진군	961		0.0
경상북도	의성군	583		0.0
경상북도	청도군	763		0.0
경상북도	청송군	261	73	28.0
경상북도	칠곡군	2,947	494	16.8
소계		19,980	797	4.0
대구광역시	군위군	230	6	2.6
소계		230	6	2.6
인천광역시	강화군	1,324		0.0
인천광역시	옹진군	200		0.0
소계		1,524	0	0.0
전라남도	강진군	671	172	25.6
전라남도	고흥군	818	5	0.6
전라남도	곡성군	518	1	0.2
전라남도	구례군	424		0.0
전라남도	나주시	3,227	4	0.1
전라남도	담양군	863		0.0
전라남도	무안군	2,672	4	0.1
전라남도	보성군	714	108	15.1
전라남도	신안군	444	78	17.6
전라남도	영광군	1,061		0.0
전라남도	영암군	1,078	3	0.3
전라남도	완도군	843	2	0.2
전라남도	장성군	868	1	0.1
전라남도	장흥군	615	3	0.5
전라남도	진도군	506	18	3.6
전라남도	함평군	591		0.0
전라남도	해남군	1,142	220	19.3
전라남도	화순군	1,320	72	5.5

지역1	지역2	학생 표본	응답 인원	표본 대비 응답률
소계		18,375	691	3.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225		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1,716	3	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820	1	0.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462		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956	1	0.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527		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195	430	19.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377	1	0.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450		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470		0.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415	1	0.2
소계		12,613	437	3.5
충청남도	계룡시	1,524	9	0.6
충청남도	공주시	2,419	137	5.7
충청남도	금산군	963	65	6.7
충청남도	논산시	2,816	141	5.0
충청남도	보령시	1,946	146	7.5
충청남도	부여군	1,000	158	15.8
충청남도	서천군	941	3	0.3
충청남도	예산군	1,907		0.0
충청남도	청양군	509	90	17.7
충청남도	태안군	1,060	40	3.8
충청남도	홍성군	2,555		0.0
소계		17,640	789	4.5
충청북도	괴산군	419	1	0.2
충청북도	단양군	450	107	23.8
충청북도	보은군	503		0.0
충청북도	영동군	764		0.0
충청북도	옥천군	923		0.0
충청북도	음성군	2,040	7	0.3
충청북도	제천시	2,920	3	0.1
충청북도	증평군	924		0.0
충청북도	진천군	2,581	97	3.8
소계		11,524	215	1.9
총계(99개)		118,323	3,624	3.1

□ 지역별 응답률 편차를 보였으며 이이 따라 분석 단위를 시·군(지역2)으로 설정하였음

- 광역 단위(지역1)로만 분석할 경우 응답률이 높은 특정 시·군·구의 의견이 해당 광역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음. 시·군 단위(지역2)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야만 이 결과는 특정 지역의 응답이 주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 분석의 투명성이 높아짐.
- 교육 정책이나 지원 예산은 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집행됨에 따라 실제 정책을 제안할 때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 학생들의 생활 양식, 가족 구성 등이 전혀 다름. 시·군 단위 분석을 통해 소멸 위험 지역이나 농어촌 교육 소외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포착

할 수 있음.

1) 초등학교 설문 결과

□ 학교시설환경 만족도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급식시설(4.27)과 보건실 시설(4.25)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함.
- 체육활동 시설(4.19)은 '매우 그렇다' 비중이 48.1%로 높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에 불과해 거부감이 가장 적은 시설임.
- 교실 냉난방시설(4.12) 역시 만족도는 높으나 표준편차(1.03)가 항목 중 가장 커서, 학교별 혹은 교실 위치별 냉난방 성능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도서실 도서량(3.99)이 유일하게 3점대 평점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별로 그렇지 않다' 이상의 부정 응답(8.5%)이 가장 높음.
- 전반적으로 학교 시설 환경의 모든 항목의 평균이 4.0 내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표 4-3〉 학교 시설 환경(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 충분	전혀그렇지않다	14	1.4	4.03(0.95)
	별로그렇지않다	41	4.2	
	보통이다	218	22.3	
	대체로그렇다	327	33.5	
	매우그렇다	376	38.5	
2) 도서실 도서량	전혀그렇지않다	17	1.7	3.99(1.02)
	별로그렇지않다	66	6.8	
	보통이다	215	22.0	
	대체로그렇다	292	29.9	
	매우그렇다	386	39.5	
3) 교실 냉난방시설	전혀그렇지않다	19	1.9	4.12(1.03)
	별로그렇지않다	60	6.1	
	보통이다	170	17.4	
	대체로그렇다	267	27.4	
	매우그렇다	460	47.1	
4) 체육활동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10	1.0	4.19(0.94)
	별로그렇지않다	41	4.2	
	보통이다	171	17.5	
	대체로그렇다	285	29.2	
	매우그렇다	469	48.1	
5) 보건실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16	1.6	4.25(0.95)
	별로그렇지않다	33	3.4	
	보통이다	149	15.3	
	대체로그렇다	269	27.6	
	매우그렇다	509	52.2	
6) 급식시설	전혀그렇지않다	23	2.4	4.27(0.96)
	별로그렇지않다	23	2.4	
	보통이다	143	14.7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대체로그렇다	268	27.5	
	매우그렇다	519	53.2	

□ 학교 교육활동(선생님, 참여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선생님의 열정(4.37) 항목은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신뢰와 만족도를 보임.
 - '매우 그렇다' 응답이 57.6%로 과반을 상회함.
 -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단 2.8%에 불과하며, 표준편차(0.88) 또한 가장 낮아 학생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일치함.
- 반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3.77)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교사의 열의에 비해 학생들의 실제 참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
 - 평균(3.77)이 가장 낮고 표준편차(1.04)는 상대적으로 큼.
 - '보통이다' 이하 응답이 약 40%에 달해, 교실 내 학습 동기 부여나 참여 유도 전략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인됨.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매우 그렇다(36.3%)'가 가장 많으나, 동시에 '전혀 그렇지 않다' 비중(3.5%)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음.
 - 표준편차(1.08)가 가장 커서 프로그램의 질이나 학생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임.

〈표 4-4〉 학교 학습 활동(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선생님의 열정	전혀그렇지않다	18	1.8	4.37(0.88)
	별로그렇지않다	10	1.0	
	보통이다	125	12.8	
	대체로그렇다	261	26.7	
	매우그렇다	562	57.6	
2)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전혀그렇지않다	17	1.7	3.77(1.04)
	별로그렇지않다	95	9.7	
	보통이다	280	28.7	
	대체로그렇다	291	29.8	
	매우그렇다	293	30.0	
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	전혀그렇지않다	34	3.5	3.84(1.08)
	별로그렇지않다	52	5.3	
	보통이다	301	30.8	
	대체로그렇다	235	24.1	
	매우그렇다	354	36.3	

□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친구들과의 관계(4.35)로, 또래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유대감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음.
- '매우 그렇다' 응답이 59.9%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음.
- 표준편차가 0.94로 가장 낮아, 대다수의 학생이 교우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공통된 경향을 보임.
- 반면, 선배·후배들과의 관계(3.99)가 유일하게 3점대 평점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전반적 학교생활이 4.18점으로 구성원 간의 관계 점수들이 전반적으로 높아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4점 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긍정 응답(대체로+매우)' 합계가 74%에 달해 전반적인 학교 소속감과 안녕감이 양호함.

〈표 4-5〉 학교 생활(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10	1.0	4.35(0.94)
	별로그렇지않다	43	4.4	
	보통이다	131	13.4	
	대체로그렇다	207	21.2	
	매우그렇다	585	59.9	
2) 선배·후배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17	1.7	3.99(1.04)
	별로그렇지않다	54	5.5	
	보통이다	269	27.6	
	대체로그렇다	222	22.7	
	매우그렇다	414	42.4	
3) 선생님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18	1.8	4.21(0.97)
	별로그렇지않다	24	2.5	
	보통이다	197	20.2	
	대체로그렇다	236	24.2	
	매우그렇다	501	51.3	
4) 전체적인 학교생활	전혀그렇지않다	12	1.2	4.18(0.97)
	별로그렇지않다	35	3.6	
	보통이다	207	21.2	
	대체로그렇다	230	23.6	
	매우그렇다	492	50.4	

□ 기대 교육 수준(교육 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학(4년제) 수준(46.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생들의 약 절반 가까이가 학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함. 대학(4년제)과 대학원(7.4%)을 합친 대졸 이상의 고등 교육 기대치는 54.2%로, 과반의 학생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희망함.
-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을 마치겠다는 응답은 30.5%이며, 전문대학 수준은 15.3%로 가

장 적은 비중을 보임.

- 대학(4년제) 이상을 희망하는 집단(54.2%)과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희망하는 집단(30.5%)으로 교육포부가 이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표 4-6〉 교육 포부(초등학생)

응답	빈도	퍼센트
고등학교 수준	298	30.5
전문대학(2,3년제) 수준	149	15.3
대학(4년제) 수준	457	46.8
대학원(석사,박사) 수준	72	7.4

□ 가정환경, 부모님의 지원, 가족관계 만족도 및 생활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정환경 및 관계 만족도의 정서적 영역은 다음과 같음
 - 보호자 관계 만족도(4.55)와 가정의 행복감(4.45)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가정 내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강함.
 - 대화 빈도(4.36)와 관계 만족도(4.55)가 모두 높아,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음.
 - 형제·자매 만족도(3.90)는 보호자 관계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표준편차(1.23)가 커서, 형제 간 갈등이나 개인차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함
 - 부모님의 학습 및 진로 지원의 행동적 영역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서적 지지는 높으나, 실질적인 학습 관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공부·숙제 확인(3.06) 항목은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을 기록함.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친 부정 응답이 37.7%에 달해 부모의 직접적인 학습 개입은 적은 편임.
 - 공부 분위기 조성(3.39) 항목 역시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1.25)가 커서 가정마다 학습 환경 지원 역량의 편차가 큼.
 - 진로 지원(4.09)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아 일상적 학습 확인보다는 자녀의 미래 방향(진로)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 경제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정생활 수준의 '보통이다' 이상 응답이 약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스스로를 '하(못 산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0.3%로 극히 미미함.
 - 용돈 만족도(4.18)는 생활 수준 인식(3.74)에 비해 용돈 만족도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보임.

〈표 4-7〉 가정환경(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가정 환경	1) 우리가정은 행복한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7	0.7	4.45(0.85)
		별로그렇지않다	27	2.8	
		보통이다	110	11.3	
		대체로그렇다	205	21.0	
		매우그렇다	627	64.2	
	2) 용돈은 필요한만큼 주신다	전혀그렇지않다	26	2.7	4.18(1.06)
		별로그렇지않다	54	5.5	
		보통이다	156	16.0	
		대체로그렇다	225	23.1	
		매우그렇다	515	52.8	
	3) 보호자와 대화를 자주 나눈다	전혀그렇지않다	6	0.6	4.36(0.89)
		별로그렇지않다	30	3.1	
		보통이다	150	15.4	
		대체로그렇다	212	21.7	
		매우그렇다	578	59.2	
부모 님의 지원	1) 집안에서 공부 분위기 조성	전혀그렇지않다	89	9.1	3.39(1.25)
		별로그렇지않다	142	14.5	
		보통이다	279	28.6	
		대체로그렇다	232	23.8	
		매우그렇다	234	24.0	
	2) 학교 공부·숙제 확인	전혀그렇지않다	158	16.2	3.06(1.38)
		별로그렇지않다	210	21.5	
		보통이다	235	24.1	
		대체로그렇다	160	16.4	
		매우그렇다	213	21.8	
	3) 진로지원	전혀그렇지않다	21	2.2	4.09(1.02)
		별로그렇지않다	50	5.1	
		보통이다	194	19.9	
		대체로그렇다	263	26.9	
		매우그렇다	448	45.9	
가족 관계 만족	1)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 관계 만족도	매우불만족한다	9	0.9	4.55(0.23)
		약간불만족한다	15	1.5	
		보통이다	102	10.5	
		약간만족한다	129	13.2	
		매우만족한다	660	67.6	
	2) 형제·자매 만족도	해당없음	61	6.3	3.90(1.23)
		매우불만족한다	53	5.4	
		약간불만족한다	54	5.5	
		보통이다	172	17.6	
		약간만족한다	171	17.5	
		매우만족한다	359	36.8	
가정생활수준		해당없음	167	17.1	3.74(0.86)
		하(못산다)	3	0.3	
		중하(못사는편이다)	28	2.9	
		보통이다	419	42.9	
		중상(잘사는편이다)	294	30.1	
		상(잘산다)	232	23.8	

□ 지역사회 환경(교육, 의료, 문화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교 밖 교육기회(3.88)와 의료시설(3.88)이 동일한 점수로 지역 내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됨
 - 학교 밖 교육기회 항목은 '매우 그렇다(36.5%)'가 가장 많지만, 표준편차(1.09)가 커서 지역별 사교육이나 공공 교육 서비스 수혜 정도에 차이가 큼
 - 의료시설 인프라는 교육기회와 유사한 만족도(3.88)를 보이며, 약 64.5%의 학생들이 긍정적(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함.
- 문화시설(3.31)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나타남.
 - '별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 응답이 28.4%로 타 항목 대비 압도적으로 높음.
 - 표준편차(1.28)가 가장 커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지역과 소외된 지역 간의 양극화가 매우 뚜렷함.
- 앞서 분석한 학교 내부 시설 만족도(4.0 이상)에 비해 지역사회 인프라 만족도는 모두 3 점대에 머물러 있어, 학교 밖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함

〈표 4-8〉 지역 및 주변환경(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교 밖 교육기회	전혀그렇지않다	28	2.9	3.88(1.09)
	별로그렇지않다	82	8.4	
	보통이다	227	23.3	
	대체로그렇다	283	29.0	
	매우그렇다	356	36.5	
의료시설	전혀그렇지않다	19	1.9	3.88(1.05)
	별로그렇지않다	82	8.4	
	보통이다	246	25.2	
	대체로그렇다	276	28.3	
	매우그렇다	353	36.2	
문화시설	전혀그렇지않다	85	8.7	3.31(1.28)
	별로그렇지않다	192	19.7	
	보통이다	281	28.8	
	대체로그렇다	169	17.3	
	매우그렇다	249	25.5	

□ 교육활동 및 성취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업 태도 분석 (수업 중 판생각 빈도) 결과, 수업 시간에 판생각을 '자주' 또는 '가끔'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합계 52.0%로 과반을 차지함. 평균 점수가 2.65로 나타나,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함.
 - '별로 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4%에 불과하여, 수업 집중도가 높은 학생층이 상대적으로 얇음.

○ 교과별 수업 이해도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음

- 국어 교과(4.19)가 가장 높았음. 학생들의 언어적 기초 역량이 다른 교과에 비해 안정적임을 시사함.
- 반면, 과학(3.93)과 사회(3.94)가 상대적으로 낮음. 탐구 교과군에서 개념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영어(3.97), 수학(3.99)은 평균이 유사함. 두 과목 모두 표준편차가 1.14로 전체 항목 중 가장 커서, 잘 이해하는 학생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간의 학력 격차(양극화)가 가장 심함.

- 수업 이해도는 대부분 4.0 내외(긍정적)이나, 수업 중 판생각 빈도(2.65)가 높은 점은 주목할 부분임. 이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습관적인 집중력 분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표 4-9〉 수업태도 및 이해정도(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수업태도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자주하는편이다	151	15.5	2.65(1.13)
	가끔하는편이다	356	36.5	
	보통이다	201	20.6	
	별로하지않는다	221	22.6	
	전혀하지않는다	47	4.8	
국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16	1.6	4.19(0.89)
	21-40%	27	2.8	
	41-60%	137	14.0	
	61-80%	369	37.8	
	81-100%	427	43.8	
영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40	4.1	3.97(1.14)
	21-40%	80	8.2	
	41-60%	169	17.3	
	61-80%	265	27.2	
	81-100%	422	43.2	
수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47	4.8	3.99(1.14)
	21-40%	66	6.8	
	41-60%	165	16.9	
	61-80%	273	28.0	
	81-100%	425	43.5	
사회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33	3.4	3.94(1.05)
	21-40%	63	6.5	
	41-60%	179	18.3	
	61-80%	357	36.6	
	81-100%	344	35.2	
과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34	3.5	3.93(1.07)
	21-40%	63	6.5	
	41-60%	200	20.5	
	61-80%	318	32.6	
	81-100%	361	37.0	

- 학업성적 자기평가 및 학습 성향(자아효능감, 성취동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업성적 자기평가(주관적 성적)는 중상위권 중심의 분포를 보임. 성적이 '보통이다'(37.8%)와 '잘하는 편이다'(37.7%)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은 3.57로 나타남. 자신을 상위권('잘함' 이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3.2%로 과반을 차지하며, '못함' 이하로 평가하는 비율(9.1%)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의 평균(3.69)이 학습 성향 중 가장 높음. '매우 그렇다' 응답이 32.2%로 나타나, 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의지 자체는 매우 강한 편임.
 -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의 해결 능력(자기효능감, 3.28)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동기)은 크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동기-능력 간 격차'가 관찰됨.
 - 공부 자신감(3.35)은 성적 자기평가(3.57)에 비해 자신감 점수가 낮게 형성됨. 이는 실제 성적과는 별개로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함으로 해석됨

〈표 4-10〉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업성적 정도 자기평가 (지난학기 기준)	매우못한다	23	2.4	3.57(0.91)
	못하는편이다	65	6.7	
	보통이다	369	37.8	
	잘하는편이다	368	37.7	
	매우잘한다	151	15.5	
학습태도 및 성향 1) 공부 자신감	전혀그렇지않다	62	6.4	3.35(1.12)
	별로그렇지않다	152	15.6	
	보통이다	314	32.2	
	대체로그렇다	281	28.8	
	매우그렇다	167	17.1	
학습태도 및 성향 2) 어려운 과제 해결능력	전혀그렇지않다	60	6.1	3.28(1.10)
	별로그렇지않다	165	16.9	
	보통이다	342	35.0	
	대체로그렇다	258	26.4	
	매우그렇다	151	15.5	
학습태도 및 성향 3)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	전혀그렇지않다	66	6.8	3.69(1.20)
	별로그렇지않다	88	9.0	
	보통이다	240	24.6	
	대체로그렇다	268	27.5	
	매우그렇다	314	32.2	

- 활동 경험 여부(최근 1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89.3%)과 건강보건(87.7%) 영역의 참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활동이나 예술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직업진로(83.5%) 및 미래기술(76.3%) 참여율이 높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4차 산업 관련 교육에 대한 접점이 넓음.
 - 과학·정보(66.1%) 영역으로, 타 영역 대비 약 20%p 이상 낮은 참여율을 보임. 실험이나 정

보화 교육 기회의 확충이 필요함.

- 기후 위기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환경보존 참여율(71.5%)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활동 경험(있다/없다) 결과와 달리, 실제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표 4-11〉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초등학생)

구분	활동 분야	응답	빈도	퍼센트
활동 참여 경험 여부	문화·예술	없다	104	10.7
		있다	872	89.3
	과학·정보	없다	331	33.9
		있다	645	66.1
	미래기술	없다	231	23.7
		있다	745	76.3
	직업진로	없다	161	16.5
		있다	815	83.5
	건강보건	없다	120	12.3
		있다	856	87.7
	환경보존	없다	278	28.5
		있다	698	71.5
단체·동아리 활동 여부	청소년단체	없다	763	78.2
		있다	213	21.8
	온라인단체	없다	784	80.3
		있다	192	19.7
	기타	없다	709	72.6
		있다	267	27.4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3.68)은 가장 높았으며,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나 정보를 학습에 활용하는 데 가장 익숙함.
-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기술 역량)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기기 활용 능력을 의미하며, 평균 3.63으로 나타남. ‘보통이다’ 응답(32.8%)이 가장 많아, 기초적인 활용은 가능하나 숙련도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반면,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3.38)이 항목 중 가장 낮음. 활용 능력에 비해 스스로 디지털 역량이 미래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지는 편임. 표준편차(1.07)가 가장 커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가치관 차이가 뚜렷함.

〈표 4-12〉 디지털 학습역량(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28	2.9	3.68(1.02)
	별로그렇지않다	82	8.4	
	보통이다	301	30.8	
	대체로그렇다	331	33.9	
	매우그렇다	234	24.0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25	2.6	3.63(1.05)
	별로그렇지않다	104	10.7	
	보통이다	320	32.8	
	대체로그렇다	287	29.4	
	매우그렇다	240	24.6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	전혀그렇지않다	34	3.5	3.38(1.07)
	별로그렇지않다	161	16.5	
	보통이다	365	37.4	
	대체로그렇다	234	24.0	
	매우그렇다	182	18.6	

- 학습 동기(외재적·내재적) 및 학교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적 호기심(3.66)에 의한 공부가 부모님의 권유(3.24)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학생들이 외부의 압력(부모님 권유)보다 내부의 욕구(지적 호기심)로 공부한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지표임.
 - 부모님 권유에 대해 '그렇지 않다' 계열(부정적)의 응답(43.3%)이 '그렇다' 계열(긍정적) 응답(26.2%)보다 훨씬 많아, 타율적 학습보다는 자발적 학습 경향이 더 강함.
 - 지적 호기심 항목은 '보통이다' 이상의 긍정 응답이 89.5%로 매우 높으며, 표준편차(0.99)가 항목 중 가장 낮아 학생들 사이에 비교적 공통된 학습 동기로 작용함.
 - '학교에서 시간이 아깝다'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 67.3%(별로+전혀 그렇지 않다)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음. 평균 점수가 3.83(5점 만점 기준, 역채점 문항)으로 대다수의 학생이 학교생활을 의미미하게 느끼고 있음.
 - 다만, 해당 문항의 표준편차(1.17)가 가장 커서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들과 심한 회의감을 느끼는 학생(13.3%) 간의 인식 차이가 큼.

〈표 4-13〉 학습 동기(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부모님 권유로 공부함	매우그렇다	78	8.0	3.24(1.16)
	대체로그렇다	178	18.2	
	보통이다	298	30.5	
	별로그렇지않다	273	28.0	
	전혀그렇지않다	149	15.3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함	전혀그렇지않다	25	2.6	3.66(0.99)
	별로그렇지않다	77	7.9	
	보통이다	315	32.3	
	대체로그렇다	343	35.1	
	매우그렇다	216	22.1	
학교에서 시간 낭비 느낌임	매우그렇다	61	6.3	3.83(1.17)
	대체로그렇다	68	7.0	
	보통이다	190	19.5	
	별로그렇지않다	315	32.3	
	전혀그렇지않다	342	35.0	

○ 자기이해 및 진로 계획(진로 성숙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다(4.09)의 평균은 매우 높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우수한 편임.
- 반면, 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3.68)과 잘하는 일을 안다(3.69)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이는 '좋아하는 것(흥미)'에 대한 확신은 강하지만, 이를 '잘하는 것(재능)'으로 연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

〈표 4-14〉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잘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44	4.5	3.69(1.15)
	별로그렇지않다	111	11.4	
	보통이다	244	25.0	
	대체로그렇다	279	28.6	
	매우그렇다	298	30.5	
좋아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22	2.3	4.09(1.04)
	별로그렇지않다	64	6.6	
	보통이다	164	16.8	
	대체로그렇다	283	29.0	
	매우그렇다	443	45.4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전혀그렇지않다	44	4.5	3.68(1.15)
	별로그렇지않다	109	11.2	
	보통이다	266	27.3	
	대체로그렇다	255	26.1	
	매우그렇다	302	30.9	

□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주거 환경 및 주변 지역 환경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두 항목 모두 평균 4.0을 상회하여 긍정적인 수준이나, '내 집'(4.37)이라는 사적 공간보다 '동네'(4.07)라는 공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 4-15〉 주거환경 만족(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살고 있는 집	매우불만족한다	6	0.6	4.37(0.83)
	약간불만족한다	18	1.8	
	보통이다	129	13.2	
	약간만족한다	283	29.0	
	매우만족한다	540	55.3	
주변 환경	매우불만족한다	13	1.3	4.07(0.97)
	약간불만족한다	47	4.8	
	보통이다	210	21.5	
	약간만족한다	294	30.1	
	매우만족한다	412	42.2	

-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진학 희망 여부 및 희망 진학 지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시로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50.3%)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9.7%)이 거의 1:1에 가까운 비중을 보임. 현재 거주지(읍·면 지역 중심)를 벗어나 도시로 나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절반에 달해,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확인됨.
 - 도시 진학 희망자 대상, 희망 지역으로 '가까운 대도시(42.0%)'와 '서울(28.3%)'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이는 상위 학교 진학 시 대도시의 교육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함.
 - 지역 내 잔류 수요는 23.8%로 나타나 동일 지역 내의 조금 더 큰 행정 구역인 '읍 지역'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약 1/4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6〉 도시 진학 희망(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도시 진학 희망 여부	그렇지않다	485	49.7
	그렇다	491	50.3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도시진학 희망여부 “그렇다” 응답자 중)	동일지역내의 읍지역	117	23.8
	가까운대도시	206	42.0
	경기,인천	29	5.9
	서울	139	28.3
	전체	491	100.0

- 성적에 따른 도시 진학 및 주변인(부모님, 선생님)의 권유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적이 좋으면 도시로 가야 함(3.03)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 사이에서 '학업 성취 = 도시 진학'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
 - 부모님이 도시 진학을 원한다는 응답 평균(2.66)이 낮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들 또한 무조건적인 도시 진학보다는 자녀의 의사나 지역 내 진학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단, 표준편차(1.22)가 커서 성적에 따른 진학 거점 선택에 대해 학생들 간 가치관 차이가 큼.
 - 또한, 선생님의 도시 진학 권유(2.47)가 가장 낮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시 유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함.
 - 모든 항목의 평균이 2.4~3.0점대에 머물러 있어, 도시 진학이 '필수'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른 '보통 수준'의 고민임을 알 수 있음.

〈표 4-17〉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함	전혀그렇지않다	121	12.4	3.03(1.22)
	별로그렇지않다	216	22.1	
	보통이다	284	29.1	
	대체로그렇다	220	22.5	
	매우그렇다	135	13.8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하길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198	20.3	2.66(1.23)
	별로그렇지않다	252	25.8	
	보통이다	309	31.7	
	대체로그렇다	113	11.6	
	매우그렇다	104	10.7	
선생님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가기를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246	25.2	2.47(1.13)
	별로그렇지않다	227	23.3	
	보통이다	367	37.6	
	대체로그렇다	74	7.6	
	매우그렇다	62	6.4	

○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60.9%)이 찬성 의견(39.1%)보다 약 21.8%p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60% 이상이 통폐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학교가 지역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과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해석됨

〈표 4-18〉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초등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통폐합에 대한 생각	반대	594	60.9
	찬성	382	39.1

2) 중학교 설문 결과

□ 학교시설환경 만족도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건실 시설(3.91)과 급식시설(3.89)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함.
 - 급식시설은 '매우 그렇다' 응답이 38.0%로 가장 높지만, 표준편차(1.14)가 있어 학교별 급식 질의 차이가 존재함.
 - 보건시설은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67.9%로 가장 안정적인 만족도를 보임.
- 반면,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3.58)로 상대적으로 낮음.
 - 부정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이 16.7%로 시설 중 가장 많음.
 - 표준편차(1.18)가 커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모든 항목의 평균이 3점대 중후반(3.58~3.91)에 형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시설 환경에 대해 '보통' 이상의 긍정적 태도를 보임

〈표 4-19〉 학교 시설 환경(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 충분	전혀그렇지않다	92	7.3	3.58(1.18)
	별로그렇지않다	119	9.4	
	보통이다	350	27.6	
	대체로그렇다	372	29.4	
	매우그렇다	333	26.3	
2) 도서실 도서량	전혀그렇지않다	52	4.1	3.73(1.09)
	별로그렇지않다	101	8.0	
	보통이다	355	28.0	
	대체로그렇다	381	30.1	
	매우그렇다	377	29.8	
3) 교실 냉난방시설	전혀그렇지않다	67	5.3	3.78(1.15)
	별로그렇지않다	102	8.1	
	보통이다	308	24.3	
	대체로그렇다	360	28.4	
	매우그렇다	429	33.9	
4) 체육활동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59	4.7	3.72(1.12)
	별로그렇지않다	110	8.7	
	보통이다	341	26.9	
	대체로그렇다	377	29.8	
	매우그렇다	379	29.9	
5) 보건실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43	3.4	3.91(1.05)
	별로그렇지않다	70	5.5	
	보통이다	294	23.2	
	대체로그렇다	411	32.5	
	매우그렇다	448	35.4	
6) 급식시설	전혀그렇지않다	68	5.4	3.89(1.14)
	별로그렇지않다	73	5.8	
	보통이다	273	21.6	
	대체로그렇다	371	29.3	
	매우그렇다	481	38.0	

- 학교 교육활동(선생님, 참여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선생님의 열정(4.13)은 최고 긍정 항목으로, 중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 의지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높은 신뢰를 보임.
 - '매우 그렇다' 응답이 44.0%로 가장 높으며,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76.5%에 달함.
 - 표준편차(0.96)가 항목 중 유일하게 1.0 미만으로 나타나, 교사의 열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생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함.
 - 반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3.52)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교수자의 열의와 학습자의 실제 반응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
 - '보통이다' 응답이 34.4%로 가장 많으며, 평균(3.52) 또한 가장 낮음.
 -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15.4%로 나타나, 교실 내 학습 동기 저하나 참여 부족 현상이 관찰됨.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은 상대적으로 양극화된 응답 경향을 보임
 - 평균은 3.59점으로 참여도보다는 소폭 높으나, 표준편차(1.17)가 가장 커서 학생 간 만족도 편차가 매우 큼.
 - '매우 그렇다'는 응답(28.7%)도 적지 않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6.2%)'는 응답도 타 항목 대비 높아 프로그램의 질이나 본인 적성 일치 여부에 따라 평가가 극명히 갈림.
 - 선생님의 열정은 4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참여도와 방과 후 프로그램은 3점대 중반에 머물러 있어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엄격한 편임.

〈표 4-20〉 학교 학습 활동(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선생님의 열정	전혀그렇지않다	29	2.3	4.13(0.96)
	별로그렇지않다	35	2.8	
	보통이다	234	18.5	
	대체로그렇다	411	32.5	
	매우그렇다	557	44.0	
2)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전혀그렇지않다	58	4.6	3.52(1.08)
	별로그렇지않다	137	10.8	
	보통이다	435	34.4	
	대체로그렇다	361	28.5	
	매우그렇다	275	21.7	
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	전혀그렇지않다	78	6.2	3.59(1.17)
	별로그렇지않다	115	9.1	
	보통이다	418	33.0	
	대체로그렇다	292	23.1	
	매우그렇다	363	28.7	

-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친구들과의 관계(4.05)가 가장 높으며, 중학생 시기 또래 집단과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보여줌.
 - '매우 그렇다' 응답이 43.7%로 가장 높음.
 -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69.1%에 달해, 대다수 중학생이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선배·후배들과의 관계(3.62)가 가장 낮으며, 학년 간 교류나 수직적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만족도가 떨어짐.
 - 친구(4.05) 및 선생님(4.01)과의 관계는 4점대 이상의 긍정적 수준이나,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3.86으로 관계 만족도에 비해 소폭 낮게 형성됨.
 - '매우 그렇다' 응답이 35.5%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
 - 다만 부정 응답(전혀+별로) 합계가 8.9%로 관계 문항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관계 외적인 요인(학업 스트레스, 시설 등)이 만족도를 낮추는 변수로 작용함.

〈표 4-21〉 학교 생활(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19	1.5	4.05(1.01)
	별로그렇지않다	65	5.1	
	보통이다	308	24.3	
	대체로그렇다	321	25.4	
	매우그렇다	553	43.7	
2) 선배·후배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51	4.0	3.62(1.10)
	별로그렇지않다	101	8.0	
	보통이다	493	38.9	
	대체로그렇다	257	20.3	
	매우그렇다	364	28.8	
3) 선생님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29	2.3	4.01(1.00)
	별로그렇지않다	32	2.5	
	보통이다	362	28.6	
	대체로그렇다	323	25.5	
	매우그렇다	520	41.1	
4) 전체적인 학교생활	전혀그렇지않다	43	3.4	3.86(1.07)
	별로그렇지않다	69	5.5	
	보통이다	363	28.7	
	대체로그렇다	341	26.9	
	매우그렇다	450	35.5	

- 기대 교육 수준(교육 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학(4년제) 수준(4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학생 응답자 약 2명 중 1명은 학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함.

- 대학(4년제)과 대학원(7.5%)을 합친 대졸 이상의 고등 교육 기대치는 55.3%로 과반의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희망함.
- 전문대학(2,3년제) 수준은 9.8%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대학(4년제) 이상 진학 희망자(55.3%)와 고졸 학력 희망자(34.9%)로 교육 포부가 뚜렷하게 나뉘는 현상이 관찰됨.

〈표 4-22〉 교육 포부(중학생)

구분	빈도	퍼센트
고등학교 수준	442	34.9
전문대학(2,3년제) 수준	124	9.8
대학(4년제) 수준	605	47.8
대학원(석사,박사) 수준	95	7.5

□ 가정환경, 부모님의 지원, 가족관계 만족도 및 생활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정환경 및 관계 만족도의 정서적 영역은 다음과 같음
 - 보호자 관계 만족도(4.42)와 가정의 행복도(4.32)가 매우 높음. 중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안정적임.
 - 보호자와의 대화 빈도(4.17)와 관계 만족도(4.42)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고 부모님이 정서적 지지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형제·자매 만족도(3.99)는 보호자 관계에 비해 낮고 표준편차(1.08)가 있어, 형제간 갈등이나 개인차에 따른 만족도 편차가 관찰됨.
- 부모님의 학습 및 진로 지원의 행동적 영역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모님들이 정서적·진로 지지에는 적극적이거나, 직접적인 학습 관리에는 거리를 두는 양상을 보임.
 - 공부·숙제 확인(2.48)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을 기록함.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57.5%에 달해, 중학생 부모 대다수가 자녀의 숙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음.
 - 집안 공부 분위기 조성(3.20)은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1.20)가 커서, 가정마다 학습 환경 지원 역량의 차이가 큼.
 - 진로 지원(3.90)은 일상적 학습 개입(2.48)보다 자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지원(3.90) 점수가 월등히 높아, 지지적 조력자로서의 부모상이 뚜렷함.
- 경제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정생활 수준(3.43)은 '보통이다' 응답이 54.0%로 과반이며, 스스로를 '중상' 이상으로 평가하는 비율도 38.5%에 달해 경제적 자존감이 양호함.

- 용돈 만족도(4.11)는 주관적 생활 수준(3.43)에 비해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부모님이 자녀의 경제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주려는 경향이 있음.

〈표 4-23〉 가정환경(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가정환경	1) 우리가정은 행복한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19	1.5	4.32(0.88)
		별로그렇지않다	21	1.7	
		보통이다	178	14.1	
		대체로그렇다	367	29.0	
		매우그렇다	681	53.8	
	2) 용돈은 필요한만큼 주신다	전혀그렇지않다	37	2.9	4.11(1.07)
		별로그렇지않다	72	5.7	
		보통이다	222	17.5	
		대체로그렇다	320	25.3	
		매우그렇다	615	48.6	
	3) 보호자와 대화를 자주 나눈다	전혀그렇지않다	18	1.4	4.17(0.97)
		별로그렇지않다	56	4.4	
		보통이다	236	18.6	
		대체로그렇다	342	27.0	
		매우그렇다	614	48.5	
부모님의 지원	1) 집안에서 공부 분위기 조성	전혀그렇지않다	103	8.1	3.20(1.20)
		별로그렇지않다	261	20.6	
		보통이다	421	33.3	
		대체로그렇다	246	19.4	
		매우그렇다	235	18.6	
	2) 학교 공부·숙제 확인	전혀그렇지않다	337	26.6	2.48(1.28)
		별로그렇지않다	391	30.9	
		보통이다	262	20.7	
		대체로그렇다	141	11.1	
		매우그렇다	135	10.7	
	3) 진로지원	전혀그렇지않다	33	2.6	3.90(1.02)
		별로그렇지않다	66	5.2	
		보통이다	334	26.4	
		대체로그렇다	397	31.4	
		매우그렇다	436	34.4	
가족관계만족	1)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 관계 만족도	매우불만족한다	17	1.4	4.42(0.91)
		약간불만족한다	25	2.1	
		보통이다	180	14.9	
		약간만족한다	204	16.8	
		매우만족한다	785	64.8	
	2) 형제·자매 만족도	해당없음	55		3.99(1.08)
		매우불만족한다	34	3.1	
		약간불만족한다	52	4.7	
		보통이다	281	25.6	
		약간만족한다	255	23.2	
		매우만족한다	477	43.4	
		해당없음	167		
	가정생활수준	하(못산다)	14	1.1	3.43(0.83)
		중하(못사는편이다)	80	6.3	
		보통이다	684	54.0	
		중상(잘사는편이다)	328	25.9	
		상(잘산다)	160	12.6	

□ 지역사회 환경(교육, 의료, 문화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교 밖 교육기회 (사교육 및 공공교육) 평균은 3.38점이며, '보통이다(30.5%)' 응답이 가장 많아 지역 내 교육 자원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가 강함.
- 의료시설(3.47)이 가장 높으나, 절대적인 수치는 3점대 중반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 평균 3.47점으로 세 항목 중 가장 양호하나, 여전히 '매우 그렇다' 응답은 21.6% 수준에 머물러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문화시설(2.88)이 유일하게 2점대 평점을 기록하며 지역 인프라 중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나타남.
 -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39.7%로 긍정 응답(32.0%)보다 많음.
 - 표준편차(1.30)가 항목 중 가장 커서, 거주하는 지역의 입지 조건에 따라 문화적 혜택의 양극화가 매우 극명함.

〈표 4-24〉 지역 및 주변환경(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교 밖 교육기회	전혀그렇지않다	93	7.3	3.38(1.17)
	별로그렇지않다	189	14.9	
	보통이다	386	30.5	
	대체로그렇다	345	27.3	
	매우그렇다	253	20.0	
의료시설	전혀그렇지않다	78	6.2	3.47(1.14)
	별로그렇지않다	160	12.6	
	보통이다	395	31.2	
	대체로그렇다	360	28.4	
	매우그렇다	273	21.6	
문화시설	전혀그렇지않다	234	18.5	2.88(1.30)
	별로그렇지않다	268	21.2	
	보통이다	359	28.4	
	대체로그렇다	224	17.7	
	매우그렇다	181	14.3	

□ 교육활동 및 성취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업 태도 분석 (수업 중 판생각 빈도) 결과 다음과 같음.
 - 수업 시간에 판생각을 '자주' 또는 '가끔'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합계 52.0%로 과반을 차지함.
 - 평균 점수가 2.61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 중 주의 분산을 경험하고 있음.
- 교과별 수업 이해도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음
 -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인 과목은 국어(3.83)로 나타나며, 타 교과 대비 상대적으로 학습 진

도를 잘 따라가고 있음.

- 반면, 최저 이해도를 교과는 영어(3.50)로 가장 낮음. 뒤이어 사회(3.60), 수학(3.63), 과학(3.64) 순으로 나타남.
- 영어(3.50)와 수학(3.63)은 평균은 낮으나 표준편차(1.33, 1.30)가 항목 중 가장 커서, 학생 간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학력 양극화가 가장 심각함.
- 판생각 빈도(2.61)가 높고 영어 이해도(3.50)가 낮은 점은 중학교 교실의 학습 활력이 다소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줌.

〈표 4-25〉 수업태도 및 이해정도(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수업태도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자주하는편이다	223	17.6	2.61(1.15)
	가끔하는편이다	436	34.4	
	보통이다	298	23.5	
	별로하지않는다	236	18.6	
	전혀하지않는다	73	5.8	
국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42	3.3	3.83(1.03)
	21-40%	84	6.6	
	41-60%	299	23.6	
	61-80%	464	36.7	
	81-100%	377	29.8	
영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141	11.1	3.50(1.33)
	21-40%	157	12.4	
	41-60%	274	21.6	
	61-80%	312	24.6	
	81-100%	382	30.2	
수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116	9.2	3.63(1.30)
	21-40%	146	11.5	
	41-60%	248	19.6	
	61-80%	333	26.3	
	81-100%	423	33.4	
사회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92	7.3	3.60(1.19)
	21-40%	127	10.0	
	41-60%	323	25.5	
	61-80%	380	30.0	
	81-100%	344	27.2	
과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87	6.9	3.64(1.23)
	21-40%	150	11.8	
	41-60%	284	22.4	
	61-80%	351	27.7	
	81-100%	394	31.1	

- 학업성적 자기평가 및 학습 성향(자아효능감, 성취동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업성적 자기평가는 '보통이다'(41.9)라고 평가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체 평균은 2.98로 나타남. 자신을 상위권('잘함'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28.0%)보다 하위권('못함' 이하)으로 인식하는 비율(30.1%)이 더 높음. 이는 중학교 진학 후 상대적인 성적 위치에 대해 학생들이 다소 엄격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의 평균(3.68)이 학습 성향 중 가장 높음. '대체로+매우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59.1%에 달해, 중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성공에 대한 욕구는 높음.
- 반면, 실제 성취 욕구(3.68)에 비해 '공부 자신감(2.78)'이 현저히 낮음.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정작 자신이 잘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은 매우 부족한 '의욕-자신감 간 불일치' 상태임.
- 어려운 과제 해결능력(2.87, 새로운 문제나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자기효능감) 역시 낮은 수준임. '보통이다' 이하 응답이 72.2%에 육박함.
- 중학생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3.68)은 있으나, 실제 학습 과정에서의 자신감(2.78)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학습 효능감을 높여주는 작은 성공 경험의 제공이 시급함을 시사함.

〈표 4-26〉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업성적 정도 자기평가 (지난학기 기준)	매우못한다	96	7.6	2.98(1.02)
	못하는편이다	285	22.5	
	보통이다	530	41.9	
	잘하는편이다	260	20.5	
	매우잘한다	95	7.5	
학습태도 및 성향 1) 공부 자신감	전혀그렇지않다	174	13.7	2.78(1.12)
	별로그렇지않다	348	27.5	
	보통이다	426	33.6	
	대체로그렇다	218	17.2	
	매우그렇다	100	7.9	
학습태도 및 성향 2) 어려운 과제 해결능력	전혀그렇지않다	169	13.3	2.87(1.15)
	별로그렇지않다	300	23.7	
	보통이다	446	35.2	
	대체로그렇다	232	18.3	
	매우그렇다	119	9.4	
학습태도 및 성향 3)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	전혀그렇지않다	69	5.5	3.68(1.17)
	별로그렇지않다	135	10.7	
	보통이다	313	24.7	
	대체로그렇다	370	29.2	
	매우그렇다	379	29.9	

○ 활동 경험 여부(최근 1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업진로(84.7%)와 문화·예술(82.9%) 영역의 참여도가 가장 높음. 중학생 시기 진로 탐색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학교 내외의 문화예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함.
- 건강보건(78.0%) 및 미래기술(61.9%) 영역이 뒤를 이음. 특히 미래기술 분야의 참여율이 60%를 상회하여 신기술 기반 교육에 대한 접점이 확보되어 있음.
- 과학·정보(54.1%)와 환경보존(57.5%) 영역임. 과학·정보 분야는 참여와 미참여 비중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 타 영역 대비 교육 기회의 편중이나 접근성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 단체 및 동아리 여부는 활동 '경험'이 50~80%대에 달하는 것과 달리,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은 20~30%대에 머물러 있어 일회성 체험 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룸.

〈표 4-27〉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퍼센트
활동 참여 경험 여부	문화·예술	없다	217	17.1
		있다	1,049	82.9
	과학·정보	없다	581	45.9
		있다	685	54.1
	미래기술	없다	482	38.1
		있다	784	61.9
	직업진로	없다	194	15.3
		있다	1,072	84.7
	건강보건	없다	279	22.0
		있다	987	78.0
	환경보존	없다	538	42.5
		있다	728	57.5
단체·동아리 활동 여부	청소년단체	없다	932	73.6
		있다	334	26.4
	온라인단체	없다	993	78.4
		있다	273	21.6
	기타	없다	868	68.6
		있다	398	31.4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3.50)은 중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찾아 활용하는 역량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3.36)은 단순 콘텐츠 소비(학습 자료 활용)에 비해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직접 조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숙련도 측면으로 자신감이 다소 낮음.
-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3.12) 항목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디지털 기기를 사용은 하지만, 이것이 미래 역량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지는 편임.
-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디지털 자신감과 가치 인식 수준은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임

〈표 4-28〉 디지털 학습역량(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54	4.3	3.50(1.05)
	별로그렇지않다	139	11.0	
	보통이다	434	34.3	
	대체로그렇다	402	31.8	
	매우그렇다	237	18.7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58	4.6	3.36(1.05)
	별로그렇지않다	177	14.0	
	보통이다	483	38.2	
	대체로그렇다	350	27.6	
	매우그렇다	198	15.6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	전혀그렇지않다	97	7.7	3.12(1.09)
	별로그렇지않다	218	17.2	
	보통이다	554	43.8	
	대체로그렇다	227	17.9	
	매우그렇다	170	13.4	

- 학습 동기(외재적·내재적) 및 학교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모님 권유(3.41)에 의한 공부가 지적 호기심(3.30)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중학생들이 스스로의 흥미보다는 부모님의 기대나 권유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학습을 지속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시사함. 부모님 권유에 대해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48.8%에 달해, 타율적 학습자와 자율적 학습자 집단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음.
 - 지적 호기심의 경우, '대체로+매우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42.1%로 나타나며, '보통이다(37.9%)'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어 배움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내재적 동기는 다소 약화된 상태임.
 - '학교에서 시간이 아깝다'는 인식에 대해 51.6%(전혀+별로 그렇지 않다)의 학생들이 부정하여, 절반 이상의 학생은 학교생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반면,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끼는 학생(대체로+매우 그렇다)도 20.2%에 달함. 5명 중 1명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앞서 분석한 초등학생 데이터(지적 호기심 3.66 > 부모님 권유 3.24)와 달리, 중학생은 부모님 권유(3.41) > 지적 호기심(3.30)으로 역전됨.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의 본질적인 재미보다 의무감이 앞서는 양상을 보임.

〈표 4-29〉 학습 동기(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부모님 권유로 공부함	매우그렇다	77	6.1	3.41(1.14)
	대체로그렇다	187	14.8	
	보통이다	384	30.3	
	별로그렇지않다	370	29.2	
	전혀그렇지않다	248	19.6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함	전혀그렇지않다	79	6.2	3.30(1.06)
	별로그렇지않다	173	13.7	
	보통이다	480	37.9	
	대체로그렇다	360	28.4	
	매우그렇다	174	13.7	
학교에서 시간 낭비 느낌임	매우그렇다	115	9.1	3.43(1.19)
	대체로그렇다	140	11.1	
	보통이다	358	28.3	
	별로그렇지않다	394	31.1	
	전혀그렇지않다	259	20.5	

- 자기이해 및 진로 계획(진로성숙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좋아하는 일을 안다 (흥미 파악) 응답 결과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57.5%로 과반 이상으로 높음. 특히, '매우 그렇다' 응답이 27.3%로 항목 중 가장 높아, 중학생 단계에서 자신의 취향은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음
 - 반면, 잘하는 일을 안다 (역량 인지) 평균(3.26)이 가장 낮고,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25.1%로 높음. '매우 그렇다'는 응답(16.7%)이 좋아하는 일(27.3%)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실행 의지) 평균은 3.43점이며, '보통이다(32.0%)'에 응

답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음. 표준편차(1.15)도 높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진 학생과 막연한 희망만 가진 학생 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4-30〉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잘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115	9.1	3.26(1.18)
	별로그렇지않다	202	16.0	
	보통이다	405	32.0	
	대체로그렇다	332	26.2	
	매우그렇다	212	16.7	
좋아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77	6.1	3.62(1.16)
	별로그렇지않다	131	10.3	
	보통이다	330	26.1	
	대체로그렇다	382	30.2	
	매우그렇다	346	27.3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전혀그렇지않다	78	6.2	3.43(1.15)
	별로그렇지않다	176	13.9	
	보통이다	405	32.0	
	대체로그렇다	334	26.4	
	매우그렇다	273	21.6	

□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주거 환경 및 주변 지역 환경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살고 있는 집(3.98), 주변 환경(3.78) 모두 4점 수준(긍정)에 근접해 있으나, '집'이라는 개별 공간보다 '동네'라는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

〈표 4-31〉 주거환경 만족(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살고 있는 집	매우불만족한다	32	2.5	3.98(1.01)
	약간불만족한다	57	4.5	
	보통이다	287	22.7	
	약간만족한다	412	32.5	
	매우만족한다	478	37.8	
주변 환경	매우불만족한다	48	3.8	3.78(1.08)
	약간불만족한다	87	6.9	
	보통이다	360	28.4	
	약간만족한다	373	29.5	
	매우만족한다	398	31.4	

○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진학 희망 여부 및 희망 진학 지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시로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이 59.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0.9%)보다 약 18.2%p 높게 나타남. 앞선 초등학교 데이터(그렇다 50.3%)와 비교했을 때, 중학생 단계에서 도시 진학에 대한 욕구가 약 9%p 가량 상승하며 지역 이탈 의사가 더욱 공고해짐을 알 수 있음.
- 가까운 대도시(49.2%)가 매우 높음. 이는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먼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생활권 내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도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함. 서울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층이 약 20.6%로 이는 고교 및 대학 진학 시의 높은 학구열과 연결됨.

- 동일 지역 내의 조금 더 큰 행정구역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23.9%로 나타남.

〈표 4-32〉 도시 진학 희망(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도시 진학 희망 여부	그렇지않다	518	40.9
	그렇다	748	59.1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도시진학 희망여부 “그렇다” 응답자 중)	동일지역내의 읍지역	179	23.9
	가까운대도시	368	49.2
	경기,인천	47	6.3
	서울	154	20.6
	전체	748	100.0

○ 성적에 따른 도시 진학 및 주변인(부모님, 선생님)의 권유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적이 좋으면 도시로 가야 함(3.00) 항목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업 성취와 도시 진학을 연결 짓는 사회적 통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 다음으로, 부모님(보호자)의 희망(2.69), 선생님의 권유(2.56) 순으로 나타남.

〈표 4-33〉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함	전혀그렇지않다	132	10.4	3.00(1.15)
	별로그렇지않다	303	23.9	
	보통이다	407	32.1	
	대체로그렇다	281	22.2	
	매우그렇다	143	11.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하길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205	16.2	2.69(1.13)
	별로그렇지않다	345	27.3	
	보통이다	452	35.7	
	대체로그렇다	162	12.8	
	매우그렇다	102	8.1	
선생님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가기를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232	18.3	2.56(1.04)
	별로그렇지않다	314	24.8	
	보통이다	563	44.5	
	대체로그렇다	90	7.1	
	매우그렇다	67	5.3	

○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51.7%)이 찬성 의견(48.3%)로 차이가 거의 없음.
- 초등학생의 경우 반대(60.9%)가 찬성(39.1%)을 압도했던 것과 달리 중학생은 통폐합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음.

〈표 4-34〉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중학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통폐합에 대한 생각	반대	655	51.7
	찬성	611	48.3

3) 일반 고등학교 설문 결과

□ 학교시설환경 만족도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

○ 급식시설(3.89)과 보건실 시설(3.7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급식시설은 긍정 응답(대체로+매우) 비율이 61.5%로 매우 높음. 단, 표준편차가 1.14로 조사 항목 중 가장 커서, 이용자 간 만족도 편차가 다른 항목에 비해 큰 편임.

- 보건실(3.76점)은 표준편차가 0.97로 가장 낮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3.52)로 상대적으로 낮아, 디지털 장비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평균 3.52점으로 가장 낮으며, 부정 응답(전혀+별로) 비율이 13.7%로 가장 높음.

〈표 4-35〉 학교 시설 환경(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 충분	전혀그렇지않다	51	4.5	3.52(1.03)
	별로그렇지않다	105	9.2	
	보통이다	380	33.3	
	대체로그렇다	406	35.6	
	매우그렇다	199	17.4	
2) 도서실 도서량	전혀그렇지않다	36	3.2	3.65(1.02)
	별로그렇지않다	102	8.9	
	보통이다	337	29.5	
	대체로그렇다	418	36.6	
	매우그렇다	248	21.7	
3) 교실 냉난방시설	전혀그렇지않다	29	2.5	3.70(1.01)
	별로그렇지않다	105	9.2	
	보통이다	310	27.2	
	대체로그렇다	427	37.4	
	매우그렇다	270	23.7	
4) 체육활동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31	2.7	3.63(0.99)
	별로그렇지않다	103	9.0	
	보통이다	358	31.4	
	대체로그렇다	415	36.4	
	매우그렇다	234	20.5	
5) 보건실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27	2.4	3.76(0.97)
	별로그렇지않다	75	6.6	
	보통이다	318	27.9	
	대체로그렇다	442	38.7	
	매우그렇다	279	24.5	
6) 급식시설	전혀그렇지않다	33	2.9	3.89(1.14)
	별로그렇지않다	67	5.9	
	보통이다	339	29.7	
	대체로그렇다	425	37.2	
	매우그렇다	277	24.3	

- 학교 교육활동(선생님, 참여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사의 열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반면, 학생 스스로의 참여도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선생님의 열정(3.92)은 가장 높게 나타남
 - 선생님의 열정 (최고 우수 항목)긍정 응답(대체로+매우) 비율이 70.9%에 달하며, 부정 응답은 5.5%에 불과함.
 - 표준편차가 0.90으로 가장 낮아, 대다수의 학생이 선생님의 열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중간 수준임
 -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선생님의 열정(3.92점)에 비해 학생 스스로 느끼는 참여도(3.38점)가 낮아, 교사의 노력 대비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끌어낼 방안이 필요함.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평균 3.22점으로 가장 낮음
 - 부정 응답(전혀+별로) 비율이 23.8%로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높음.
 - 또한, 표준편차가 1.15로 가장 커서, 프로그램의 질이나 유익함에 대해 학생 간의 호불호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표 4-36〉 학교 학습 활동(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선생님의 열정	전혀그렇지않다	18	1.6	3.92(0.90)
	별로그렇지않다	45	3.9	
	보통이다	269	23.6	
	대체로그렇다	490	42.9	
	매우그렇다	319	28.0	
2)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전혀그렇지않다	35	3.1	3.38(0.97)
	별로그렇지않다	145	12.7	
	보통이다	466	40.8	
	대체로그렇다	343	30.1	
	매우그렇다	152	13.3	
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	전혀그렇지않다	102	8.9	3.22(1.15)
	별로그렇지않다	170	14.9	
	보통이다	416	36.5	
	대체로그렇다	279	24.5	
	매우그렇다	174	15.2	

-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관계 항목(친구, 선후배, 선생님)의 평균이 3.5점 이상으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교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친구 및 선생님과 관계 점수가 학교생활 전체 평균(3.68)보다 높게 나타나, 인적 유대가 학교생활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친구들과의 관계(3.99점)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긍정 응답(대체로+매우) 비율이 68.8%에 달하며, 특히 '매우 그렇다'가 36.8%로 단일 응답 중 가장 높음.
 - 평균 3.99점으로 4점에 육박하여, 학생들에게 있어 또래 관계가 학교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을 시사함.
 -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평균 3.89점으로 안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됨
 -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1.1%로 전 항목 중 가장 낮음.
 - 표준편차 또한 0.92로 가장 낮아, 학생 대다수가 선생님과 관계에 대해 큰 갈등 없이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 선배·후배들과의 관계는 3.5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보통이다(45.8%)'라는 유보적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함.
 - 친구/선생님 관계에 비해 교급 간 교류 기회가 적거나 관계가 다소 형식적일 수 있음

〈표 4-37〉 학교 생활(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16	1.4	3.99(0.96)
	별로그렇지않다	46	4.0	
	보통이다	294	25.8	
	대체로그렇다	365	32.0	
	매우그렇다	420	36.8	
2) 선배·후배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26	2.3	3.58(0.97)
	별로그렇지않다	65	5.7	
	보통이다	523	45.8	
	대체로그렇다	270	23.7	
	매우그렇다	257	22.5	
3) 선생님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13	1.1	3.89(0.92)
	별로그렇지않다	37	3.2	
	보통이다	360	31.6	
	대체로그렇다	383	33.6	
	매우그렇다	348	30.5	
4) 전체적인 학교생활	전혀그렇지않다	28	2.5	3.68(1.00)
	별로그렇지않다	78	6.8	
	보통이다	403	35.3	
	대체로그렇다	349	30.6	
	매우그렇다	283	24.8	

□ 기대 교육 수준(교육 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학(4년제) 수준(59.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문대학 이상을 포함한 대학 교육 수준의 응답자가 전체의 약 77.7%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매우 높게 형성됨
- 한편, 고등학교 수준 22.3%로 대학 수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38〉 교육 포부(일반고)

구분	빈도	퍼센트
고등학교 수준	255	22.3
전문대학(2,3년제) 수준	93	8.2
대학(4년제) 수준	677	59.3
대학원(석사, 박사) 수준	116	10.2

□ 가정환경, 부모님의 지원, 가족관계 만족도 및 생활 수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서적·경제적(용돈) 지원 및 진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실제적인 학습 개입(공부 분위기 조성, 숙제 확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가정환경 및 경제 수준의 세부적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서적 안녕은 '매우 그렇다' 응답이 행복(49.4%), 대화(49.5%) 항목에서 절반에 육박하며, 가정 내 소통이 원활함.
 - 주관적 생활수준은 '보통이다(60.0%)'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며, 전체 평균 3.25점으로 안정적인 중산층 형태의 분포를 보임.
 - 용돈 만족도는 평균 4.11점으로 경제적 필요에 대한 충족도가 높은 편임.
- 부모님의 학습 및 진로 지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로 지원(4.00점)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정서적·방향성 지원은 적극적임.
 - 학습 분위기 조성(3.09점)은 보통 수준이나,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30.9%로 낮지 않음.
 - 학습/숙제 확인(2.18점)은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67.2%로 높음. 이는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을 방임하기보다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거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접적인 학습 개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가족관계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보호자 관계(4.46점)는 '매우 만족'이 66.0%로 매우 높음. 부모(보호자)가 가장 강력한 심리적 지지 기반임.
 - 형제·자매 관계(4.17점)는 보호자 관계보다는 다소 낮으나 여전히 매우 우수한 수준임

〈표 4-39〉 가정환경(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가정 환경	1) 우리가정은 행복한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11	1.0	4.29(0.84)
		별로그렇지않다	14	1.2	
		보통이다	173	15.2	
		대체로그렇다	379	33.2	
		매우그렇다	564	49.4	
	2) 용돈은 필요한만큼 주신다	전혀그렇지않다	19	1.7	4.11(0.97)
		별로그렇지않다	49	4.3	
		보통이다	219	19.2	
		대체로그렇다	350	30.7	
		매우그렇다	504	44.2	
	3) 보호자와 대화를 자주 나눈다	전혀그렇지않다	7	0.6	4.24(0.89)
		별로그렇지않다	41	3.6	
		보통이다	184	16.1	
		대체로그렇다	344	30.1	
		매우그렇다	565	49.5	
부모님의 지원	1) 집안에서 공부 분위기 조성	전혀그렇지않다	96	8.4	3.09(1.14)
		별로그렇지않다	257	22.5	
		보통이다	394	34.5	
		대체로그렇다	238	20.9	
		매우그렇다	156	13.7	
	2) 학교 공부·숙제 확인	전혀그렇지않다	389	34.1	2.18(1.16)
		별로그렇지않다	378	33.1	
		보통이다	223	19.5	
		대체로그렇다	80	7.0	
		매우그렇다	71	6.2	
	3) 진로지원	전혀그렇지않다	18	1.6	4.00(0.96)
		별로그렇지않다	59	5.2	
		보통이다	246	21.6	
		대체로그렇다	402	35.2	
		매우그렇다	416	36.5	
가족 관계 만족	1)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 관계 만족도	매우불만족한다	13	1.2	4.46(0.87)
		약간불만족한다	23	2.1	
		보통이다	139	12.5	
		약간만족한다	202	18.2	
		매우만족한다	733	66.0	
		해당없음	31		
	2) 형제·자매 만족도	매우불만족한다	24	2.3	4.17(1.02)
		약간불만족한다	38	3.7	
		보통이다	203	19.7	
		약간만족한다	241	23.4	
		매우만족한다	522	50.8	
		해당없음	113		
가정생활수준		하(못산다)	19	1.7	3.25(0.78)
		중하(못사는편이다)	97	8.5	
		보통이다	685	60.0	
		중상(잘사는편이다)	258	22.6	
		상(잘산다)	82	7.2	

□ 지역사회 환경(교육, 의료, 문화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의료시설 (3.20점)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나 '보통' 수준이며, 학교 밖 교육기회 (3.15점), 문화시설 (2.39점) 순으로 나타남. 문화 시설은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주요 항목별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시설은 부정 응답(전혀+별로) 비율이 57.0%로 과반을 상회함. 평균 2.39점은 조사된 모든 데이터 중 '학습/숙제 확인(2.18)'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며, 공공 인프라 중에서는 최하위임. 표준편차(1.21)가 커서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지역 내 편차나 개인별 기대치 차이가 큼을 시사함.
 - 의료시설은 평균 3.20점으로 세 항목 중 가장 높지만, '보통이다(34.9%)' 응답이 주를 이룸.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27.3%인 것에 비해 부정 응답도 25.1%에 달해, 응급 의료나 전문 진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학교 밖 교육기회는 평균 3.15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1%로 의료시설보다 높음. 청소년을 위한 학원, 도서관, 체험 시설 등 지역 내 교육 자원이 풍부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4-40〉 지역 및 주변환경(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교 밖 교육기회	전혀그렇지않다	104	9.1	3.15(1.17)
	별로그렇지않다	228	20.0	
	보통이다	364	31.9	
	대체로그렇다	279	24.5	
	매우그렇다	166	14.5	
의료시설	전혀그렇지않다	92	8.1	3.20(1.11)
	별로그렇지않다	194	17.0	
	보통이다	398	34.9	
	대체로그렇다	311	27.3	
	매우그렇다	146	12.8	
문화시설	전혀그렇지않다	330	28.9	2.39(1.21)
	별로그렇지않다	321	28.1	
	보통이다	290	25.4	
	대체로그렇다	116	10.2	
	매우그렇다	84	7.4	

□ 교육활동 및 성취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업 태도 분석 (수업 중 판생각 빈도) 결과 다음과 같음.
 - 판 생각을 '자주' 또는 '가끔' 한다는 응답이 55.8%인 반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함.
 - 이는 학생들의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으나, 교과 내용의 난이도나 수업 방식에 따른 흥미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큼.

○ 교과별 수업 이해도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음

- 인문·사회 계열 교과(국어, 사회)의 이해도는 높은 반면, 자연 계열(수학, 영어, 과학)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보임.
- 국어 및 사회 두 교과 모두 61% 이상 이해한다는 응답이 약 59% 내외로, 과목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준편차 또한 1.0~1.1 수준으로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음.
- 반면, 수학 교과는 양극화의 특징을 보임. 평균 3.03점으로 가장 낮으며, 특히 이해도가 20% 이하인 응답자가 21.0%로 전 교과 중 가장 많음. 표준편차가 1.40으로 가장 커서, 소위 '수포자'와 상위권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영어·과학 교과의 경우, 41-60% 이해 그룹(보통 수준)의 비중이 높아, 기초 학력 미달자와 심화 학습자 사이의 허리층이 형성되어 있음. 다만 과학 역시 20% 이하 이해도가 13.1%로 적지 않아 기초 보충 지도가 필요함.

〈표 4-41〉 수업태도 및 이해정도(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수업태도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자주하는편이다	212	18.6	2.50(1.09)
	가끔하는편이다	424	37.2	
	보통이다	266	23.3	
	별로하지않는다	197	17.3	
	전혀하지않는다	42	3.7	
국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46	4.0	3.68(1.06)
	21-40%	96	8.4	
	41-60%	321	28.1	
	61-80%	393	34.4	
	81-100%	285	25.0	
영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138	12.1	3.23(1.27)
	21-40%	184	16.1	
	41-60%	318	27.9	
	61-80%	281	24.6	
	81-100%	220	19.3	
수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240	21.0	3.03(1.40)
	21-40%	173	15.2	
	41-60%	252	22.1	
	61-80%	268	23.5	
	81-100%	208	18.2	
사회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61	5.3	3.62(1.11)
	21-40%	114	10.0	
	41-60%	293	25.7	
	61-80%	397	34.8	
	81-100%	276	24.2	
과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149	13.1	3.14(1.23)
	21-40%	177	15.5	
	41-60%	352	30.9	
	61-80%	295	25.9	
	81-100%	168	14.7	

- 학업성적 자기평가 및 학습 성향(자아효능감, 성취동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업성적 자기평가 (평균 2.71점)는 '보통이다(46.0%)' 응답이 가장 많으나, 부정 평가(매우 못함+못함)가 38.8%로 긍정 평가(15.2%)보다 약 2.5배 높음. 대다수의 학생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나 노력 대비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공부 자신감 (평균 2.55점)은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50.9%로 과반을 차지함.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매우 낮아, 새로운 학습 과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가능성이 큼.
 - 어려운 과제 해결능력 (평균 2.84점)은 '보통이다(38.3%)'가 주를 이루지만, 자신감 점수(2.55)보다는 소폭 높음. 심리적 자신감은 낮아도 실제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 (평균 3.62점)은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58.1%에 달하며, 특히 '매우 그렇다'가 25.8%로 높음.
 - 스스로의 성적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음. 반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는 매우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신감'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4-42〉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업성적 정도 자기평가 (지난학기 기준)	매우못한다	102	8.9	2.71(0.90)
	못하는편이다	341	29.9	
	보통이다	525	46.0	
	잘하는편이다	137	12.0	
	매우잘한다	36	3.2	
학습태도 및 성향 1) 공부 자신감	전혀그렇지않다	185	16.2	2.55(1.05)
	별로그렇지않다	396	34.7	
	보통이다	364	31.9	
	대체로그렇다	141	12.4	
	매우그렇다	55	4.8	
학습태도 및 성향 2) 어려운 과제 해결능력	전혀그렇지않다	129	11.3	2.84(1.07)
	별로그렇지않다	287	25.2	
	보통이다	437	38.3	
	대체로그렇다	211	18.5	
	매우그렇다	77	6.7	
학습태도 및 성향 3)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	전혀그렇지않다	70	6.1	3.62(1.15)
	별로그렇지않다	109	9.6	
	보통이다	299	26.2	
	대체로그렇다	369	32.3	
	매우그렇다	294	25.8	

- 활동 경험 여부(최근 1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81.8%), 직업진로(76.8%), 건강보건(69.1%) 분야의 참여율은 매우 높은 반면, 과학·정보(33.6%) 및 환경보존(41.3%) 등 이공계열/사회현안 분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이는 학교 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지역사회 인프라가 문화 예술 및 직업진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함.

- 청소년 단체(20.6%), 온라인 단체(15.2%) 모두 80%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 경험이 없음. 이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단기적 체험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체 소속 활동'에는 부담을 느끼거나 기회가 부족함을 의미함.

〈표 4-43〉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퍼센트
활동 참여 경험 여부	문화·예술	없다	208	18.2
		있다	933	81.8
	과학·정보	없다	758	66.4
		있다	383	33.6
	미래기술	없다	655	57.4
		있다	486	42.6
	직업진로	없다	265	23.2
		있다	876	76.8
	건강보건	없다	353	30.9
		있다	788	69.1
	환경보존	없다	670	58.7
		있다	471	41.3
단체·동아리 활동 여부	청소년단체	없다	906	79.4
		있다	235	20.6
	온라인단체	없다	968	84.8
		있다	173	15.2
	기타	없다	898	78.7
		있다	243	21.3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3.71) 및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3.61)은 평균 3.6점 이상으로, 실무적인 활용 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 (3.15점)은 활용 능력(3.71점)에 비해 중요성 인식 점수가 현저히 낮음. 특히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고, 부정 응답(전혀+별로)도 24.8%로 적지 않음.
- 도구는 잘 다루지만, 이것이 왜 자신의 미래나 학업에 필수적인 역량인지에 대한 가치 부여는 부족한 상태임.

〈표 4-44〉 디지털 학습역량(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29	2.5	3.71(0.96)
	별로그렇지않다	83	7.3	
	보통이다	310	27.2	
	대체로그렇다	485	42.5	
	매우그렇다	234	20.5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33	2.9	3.61(0.99)
	별로그렇지않다	101	8.9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	보통이다	365	32.0	3.15(1.04)
	대체로그렇다	418	36.6	
	매우그렇다	224	19.6	
	전혀그렇지않다	68	6.0	
	별로그렇지않다	215	18.8	
	보통이다	460	40.3	
	대체로그렇다	277	24.3	
	매우그렇다	121	10.6	

- 학습 동기(외재적·내재적) 및 학교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모님 권유에 의한 학습(역문항)은 '그렇지 않다(별로+전혀)'가 63.6%로 매우 높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공부하는 학생은 11.2%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학생이 외적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임.
 - 지적 호기심에 의한 학습 (3.19점)은 '보통이다(37.9%)' 응답이 가장 많으며, 긍정 응답(38.9%)이 부정 응답(23.2%)보다 우세함. 앞서 분석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3.62점)'에 비하면 지적 호기심 수치는 다소 낮아, 배움 그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성취나 목적 지향적 학습 성향이 강함.
 - '학교에서 시간이 아깝다'는 인식의 긍정 응답(매우+대체로)이 26.0%로 적지 않은 비중임.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태도가 32.9%에 달해, 학교 교육 과정이 학생 개개인의 필요나 흥미를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부모님의 압박은 적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공존하는 상태임. 교과 지식이 실제 삶이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습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동기 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강화할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음.

〈표 4-45〉 학습 동기(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부모님 권유로 공부함	매우그렇다	27	2.4	3.77(1.02)
	대체로그렇다	100	8.8	
	보통이다	288	25.2	
	별로그렇지않다	421	36.9	
	전혀그렇지않다	305	26.7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함	전혀그렇지않다	66	5.8	3.19(1.01)
	별로그렇지않다	199	17.4	
	보통이다	433	37.9	
	대체로그렇다	342	30.0	
	매우그렇다	101	8.9	
학교에서 시간 낭비 느낌임	매우그렇다	96	8.4	3.19(1.13)
	대체로그렇다	201	17.6	
	보통이다	375	32.9	
	별로그렇지않다	324	28.4	
	전혀그렇지않다	145	12.7	

○ 자기이해 및 진로 계획(진로성숙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좋아하는 일을 안다(3.66점) 의 긍정 (대체로+매우)이 60.2%로 과반을 차지함. 자신의 취향과 흥미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많으며, 이는 진로 선택의 내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
- 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3.63점)은 긍정 응답 비율이 55.9%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1.6%로 전 항목 중 가장 낮음. 앞서 분석했던 '직업진로 활동 참여 경험(76.8%)'이 실제적인 미래 계획 수립으로 잘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잘하는 일을 안다(평균 3.28점) 의 경우, 세 항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으며,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24.8%로 가장 높음. 본인이 가진 강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성취 경험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표 4-46〉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잘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66	5.8	3.28(1.10)
	별로그렇지않다	217	19.0	
	보통이다	355	31.1	
	대체로그렇다	339	29.7	
	매우그렇다	164	14.4	
좋아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39	3.4	3.66(1.08)
	별로그렇지않다	136	11.9	
	보통이다	279	24.5	
	대체로그렇다	402	35.2	
	매우그렇다	285	25.0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전혀그렇지않다	18	1.6	3.63(1.00)
	별로그렇지않다	130	11.4	
	보통이다	355	31.1	
	대체로그렇다	387	33.9	
	매우그렇다	251	22.0	

□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주거 시설과 주변 환경 모두 평균 3.5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주거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 사회 환경보다 높게 나타남.

〈표 4-47〉 주거환경 만족(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살고 있는 집	매우불만족한다	19	1.7	3.95(0.95)
	약간불만족한다	62	5.4	
	보통이다	242	21.2	
	약간만족한다	448	39.3	
	매우만족한다	370	32.4	
주변 환경	매우불만족한다	58	5.1	3.57(1.07)
	약간불만족한다	99	8.7	
	보통이다	364	31.9	
	약간만족한다	380	33.3	
	매우만족한다	240	21.0	

-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진학 희망 여부 및 희망 진학 지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67.3%가 현재 거주지를 벗어나 도시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고등 교육 단계에서의 지역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지역 내 잔류를 희망하는 비율(32.7%)이 적지 않으나, 도시 진학 희망자의 절반 수준임.
 - 서울 및 가까운 대도시(각 43.0%)가 공동 1위를 차지함. 이는 교육의 질(서울)과 거주 편의성(대도시)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됨.

〈표 4-48〉 도시 진학 희망(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도시 진학 희망 여부	그렇지않다	373	32.7
	그렇다	768	67.3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도시진학 희망여부 “그렇다” 응답자 중)	동일지역내의 읍지역	35	4.6
	가까운대도시	330	43.0
	경기,인천	73	9.5
	서울	330	43.0
	전체	768	100.0

- 성적이 좋으면 도시로 가야 함(3.24) 항목 가장 높으며, 앞선 분석에서 도시 진학 희망률이 67.3%로 매우 높았던 것과 결합해 볼 때, 도시 진학은 주변의 강요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판단과 사회적 통념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큼.

〈표 4-49〉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함	전혀그렇지않다	92	8.1	3.24(1.18)
	별로그렇지않다	232	20.3	
	보통이다	300	26.3	
	대체로그렇다	341	29.9	
	매우그렇다	176	15.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하길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163	14.3	2.95(1.24)
	별로그렇지않다	267	23.4	
	보통이다	329	28.8	
	대체로그렇다	233	20.4	
	매우그렇다	149	13.1	
선생님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가기를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155	13.6	2.92(1.14)
	별로그렇지않다	210	18.4	
	보통이다	457	40.1	
	대체로그렇다	206	18.1	
	매우그렇다	113	9.9	

-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53.5%)이 찬성 의견(46.5%)로 차이가 거의 없음.

〈표 4-50〉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일반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통폐합에 대한 생각	반대	611	53.5
	찬성	530	46.5

4) 특성화 고등학교 설문 결과

□ 학교시설환경 만족도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항목의 평균이 3.5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편이며, 특히 보건실 시설(4.00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표준편차(0.87) 또한 가장 낮아, 대다수 학생이 보건실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매우 균일하고 높은 만족감을 보임.
-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기기 항목은 평균 3.66점으로 양호하지만, 특성화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인 점을 고려할 때 '보통이다(34.4%)'라는 유보적 응답이 많음.
- 도서실 도서량은 평균 3.53점으로 가장 낮으며, 부정 응답 비율이 14.5%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음. 전공 관련 전문 서적이나 최신 기술 관련 도서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함.
- 급식시설은 평균은 3.89점으로 높으나, 표준편차가 1.14로 가장 큼. 이는 식단이나 급식 환경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 차이가 뚜렷함을 의미함.

〈표 4-51〉 학교 시설 환경(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 충분	전혀그렇지않다	4	1.7	3.66(0.96)
	별로그렇지않다	20	8.3	
	보통이다	83	34.4	
	대체로그렇다	82	34.0	
	매우그렇다	52	21.6	
2) 도서실 도서량	전혀그렇지않다	7	2.9	3.53(1.03)
	별로그렇지않다	28	11.6	
	보통이다	85	35.3	
	대체로그렇다	72	29.9	
	매우그렇다	49	20.3	
3) 교실 냉난방시설	전혀그렇지않다	7	2.9	3.71(1.01)
	별로그렇지않다	13	5.4	
	보통이다	85	35.3	
	대체로그렇다	73	30.3	
	매우그렇다	63	26.1	
4) 체육활동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4	1.7	3.73(0.93)
	별로그렇지않다	12	5.0	
	보통이다	86	35.7	
	대체로그렇다	82	34.0	
	매우그렇다	57	23.7	
5) 보건실 시설	전혀그렇지않다	3	1.2	4.00(0.87)
	별로그렇지않다	4	1.7	
	보통이다	61	25.3	
	대체로그렇다	95	39.4	
	매우그렇다	78	32.4	
6) 급식시설	전혀그렇지않다	6	2.5	3.89(1.14)
	별로그렇지않다	12	5.0	
	보통이다	78	32.4	
	대체로그렇다	79	32.8	
	매우그렇다	66	27.4	

□ 학교 교육활동(선생님, 참여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항목에서 평균 3.4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며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방과 후 학교'와 '교사 열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학생들이 우호적임.
- 주요 항목별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생님의 열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0.0%로, 모든 학생이 선생님의 열의를 최소 '별로'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65.6%에 달하며 표준편차(0.83)가 가장 낮아,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매우 견고하고 일관됨.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평균 3.69점으로, 특성화계 특성상 전공 자격증 취득이나 실무 교육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보통이다(40.7%)라는 유보적 응답이 가장 많으며, 부정 응답(전혀+별로) 비율도 16.2%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음.

〈표 4-52〉 학교 학습 활동(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선생님의 열정	전혀그렇지않다	0	0.0	3.90(0.83)
	별로그렇지않다	6	2.5	
	보통이다	77	32.0	
	대체로그렇다	92	38.2	
	매우그렇다	66	27.4	
2)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전혀그렇지않다	8	3.3	3.40(1.02)
	별로그렇지않다	31	12.9	
	보통이다	98	40.7	
	대체로그렇다	64	26.6	
	매우그렇다	40	16.6	
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도움	전혀그렇지않다	9	3.7	3.69(0.99)
	별로그렇지않다	10	4.1	
	보통이다	83	34.4	
	대체로그렇다	84	34.9	
	매우그렇다	55	22.8	

□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관계 항목에서 평균 3.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원만한 교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3.9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 앞선 분석에서 확인된 '교사의 열정'에 대한 신뢰가 실제 친밀한 관계로도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 항목별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0.8%(2명)에 불과할 정도로 사제간의 신뢰가 매우 두터움. 표준편차(0.91)가 낮아 학생 대다수가 고르게 선생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음.

-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긍정 응답이 35.3%로 전 항목 중 가장 높음. 평균 3.90점으로 친구 관계가 학교생활의 핵심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고 있음.
- 선배·후배들과의 관계는 평균 3.61점으로 가장 낮으며, '보통이다(44.0%)'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함. 타 관계에 비해 선후배 간의 교류는 다소 형식적이거나 빈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학교생활은 평균 3.70점이며, '보통이다(41.1%)'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음. 관계 만족도(3.9점대)에 비해 전체 학교생활 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시설이나 학업적 부담 등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4-53〉 학교 생활(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친구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4	1.7	3.90(0.99)
	별로그렇지않다	11	4.6	
	보통이다	74	30.7	
	대체로그렇다	67	27.8	
	매우그렇다	85	35.3	
2) 선배·후배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7	2.9	3.61(1.01)
	별로그렇지않다	13	5.4	
	보통이다	106	44.0	
	대체로그렇다	55	22.8	
	매우그렇다	60	24.9	
3) 선생님들과의 관계	전혀그렇지않다	2	0.8	3.92(0.91)
	별로그렇지않다	6	2.5	
	보통이다	80	33.2	
	대체로그렇다	74	30.7	
	매우그렇다	79	32.8	
4) 전체적인 학교생활	전혀그렇지않다	2	0.8	3.70(0.91)
	별로그렇지않다	12	5.0	
	보통이다	99	41.1	
	대체로그렇다	72	29.9	
	매우그렇다	56	23.2	

□ 기대 교육 수준(교육 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등학교 수준(43.2%)'과 '대학(4년제) 수준(42.3%)'이 1%p 미만의 차이로 양극화 구조임.
-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년제 대학 희망자가 약 60%로 압도적이었으나, 특성화계는 고졸 학력 지향성이 약 2배 이상(일반고 22.3%, 특성화계 43.2%) 높은 특징을 보임.

〈표 4-54〉 교육 포부(특성화고)

구분	빈도	퍼센트
고등학교 수준	104	43.2
전문대학(2,3년제) 수준	30	12.4
대학(4년제) 수준	102	42.3
대학원(석사,박사) 수준	5	2.1

□ 가정환경, 부모님의 지원, 가족관계 만족도 및 생활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정 행복(4.30)', '보호자 관계 만족(4.41)' 등 가정환경 및 정서적 소통 지표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는 응답 중 '매우 그렇다(51.5%)'가 과반을 차지하며, 보호자와의 대화 수치(4.18)도 매우 안정적임.

- 용돈 만족도(4.17)가 높고, 가정생활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9.8%에 달해 경제적 결핍감이 낮은 편임.

○ 부모님이 학습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학생의 진로를 지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환경이 뚜렷함.

- 진로 지원(3.95점)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69.3%에 육박함.

- 공부 분위기 조성(2.90)과 숙제 확인(2.18) 점수는 매우 낮음. 특히 숙제 확인의 경우 부정 응답(전혀+별로)이 63.5%로 나타나, 보호자가 학생의 학습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보다 자녀의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강함.

〈표 4-55〉 가정환경(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가정 환경	1) 우리가정은 행복한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1	0.4	4.30(0.82)
		별로그렇지않다	1	0.4	
		보통이다	47	19.5	
		대체로그렇다	68	28.2	
		매우그렇다	124	51.5	
	2) 용돈은 필요한만큼 주신다	전혀그렇지않다	4	1.7	4.17(0.96)
		별로그렇지않다	8	3.3	
		보통이다	45	18.7	
		대체로그렇다	71	29.5	
		매우그렇다	113	46.9	
	3) 보호자와 대화를 자주 나눈다	전혀그렇지않다			4.18(0.87)
		별로그렇지않다	8	3.3	
		보통이다	50	20.7	
		대체로그렇다	74	30.7	
		매우그렇다	109	45.2	
부 모 님 의 지 원	1) 집안에서 공부 분위기 조성	전혀그렇지않다	24	10.0	2.90(1.08)
		별로그렇지않다	58	24.1	
		보통이다	99	41.1	
		대체로그렇다	37	15.4	
		매우그렇다	23	9.5	
	2) 학교 공부·숙제 확인	전혀그렇지않다	84	34.9	2.18(1.12)
		별로그렇지않다	69	28.6	
		보통이다	60	24.9	
		대체로그렇다	17	7.1	
		매우그렇다	11	4.6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가족관계만족	3) 진로지원	전혀그렇지않다	4	1.7	3.95(0.98)
		별로그렇지않다	14	5.8	
		보통이다	56	23.2	
		대체로그렇다	84	34.9	
		매우그렇다	83	34.4	
	1)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 관계 만족도	매우불만족한다	2	0.8	4.41(0.88)
		약간불만족한다	5	2.1	
		보통이다	36	15.2	
		약간만족한다	46	19.4	
		매우만족한다	148	62.4	
		해당없음	4		
	2) 형제·자매 만족도	매우불만족한다	2	0.9	4.21(0.96)
		약간불만족한다	7	3.2	
		보통이다	49	22.4	
		약간만족한다	45	20.5	
		매우만족한다	116	53.0	
		해당없음	22		
	가정생활수준	하(못산다)	4	1.7	3.22(0.75)
		중하(못사는편이다)	18	8.5	
		보통이다	156	60.0	
		중상(잘사는편이다)	47	22.6	
		상(잘산다)	16	7.2	

□ 지역사회 환경(교육, 의료, 문화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의료시설의 경우,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50.2%로 절반을 넘음. 평균 3.54점으로, 지역 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학교 밖 교육기회는 '보통이다(41.1%)'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부정 응답(17.0%)에 비해 긍정 응답(41.9%)이 훨씬 높음. 특성화계 학생들의 경우, 일반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실무나 취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요구치가 다를 수 있어 일반계 학생들보다 현재의 교육 기회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
- 문화시설은 부정 응답(전혀+별로) 비율이 24.1%로 지역 인프라 중 가장 높음. 다만, '보통이다(45.6%)'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최저 점수가 3점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 4-56〉 지역 및 주변환경(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교 밖 교육기회	전혀그렇지않다	15	6.2	3.33(1.05)
	별로그렇지않다	26	10.8	
	보통이다	99	41.1	
	대체로그렇다	66	27.4	
	매우그렇다	35	14.5	
의료시설	전혀그렇지않다	12	5.0	3.54(1.06)
	별로그렇지않다	18	7.5	
	보통이다	90	37.3	
	대체로그렇다	69	28.6	
	매우그렇다	52	21.6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문화시설	전혀그렇지않다	24	10.0	3.08(1.10)
	별로그렇지않다	34	14.1	
	보통이다	110	45.6	
	대체로그렇다	44	18.3	
	매우그렇다	29	12.0	

□ 교육활동 및 성취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비중('자주'+ '가끔')이 48.1%로, 수업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국어와 사회 교과와 이해도가 가장 높으며, 수학 교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 현상은 특성화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 수학 교과는 평균 2.78점이며, 이해도가 20% 이하인 응답자가 22.4%에 달함. 표준편차가 1.33으로 매우 커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과 상위권 학생 간의 학력 양극화가 가장 심각함.

〈표 4-57〉 수업태도 및 이해정도(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수업태도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자주하는편이다	35	14.5	2.60(1.03)
	가끔하는편이다	81	33.6	
	보통이다	80	33.2	
	별로하지않는다	36	14.9	
	전혀하지않는다	9	3.7	
국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9	3.7	3.60(1.02)
	21-40%	21	8.7	
	41-60%	76	31.5	
	61-80%	86	35.7	
	81-100%	49	20.3	
영어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18	7.5	3.21(1.14)
	21-40%	44	18.3	
	41-60%	86	35.7	
	61-80%	56	23.2	
	81-100%	37	15.4	
수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54	22.4	2.78(1.33)
	21-40%	50	20.7	
	41-60%	63	26.1	
	61-80%	43	17.8	
	81-100%	31	12.9	
사회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10	4.1	3.57(1.06)
	21-40%	26	10.8	
	41-60%	69	28.6	
	61-80%	88	36.5	
	81-100%	48	19.9	
과학 교과 수업이해정도	20%이하	25	10.4	3.18(1.16)
	21-40%	34	14.1	
	41-60%	91	37.8	
	61-80%	55	22.8	
	81-100%	36	14.9	

- 학업성적 자기평가 및 학습 성향(자아효능감, 성취동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업성적 자기평가 (평균 2.82점)는 '보통이다(53.9%)' 응답이 지배적임. 부정 평가(매우 못함+못함)가 29.8%로, 일반고 결과(38.8%)보다 약 9%p 낮음. 이는 특성화계 학생들이 상대평가 수치보다는 실무 능력이나 전공 적성 등을 포함하여 본인의 성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함.
 - 공부 자신감(2.51점)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3.23점) 낮게 나타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된 상태임.
 - 일반계 학생들은 '자신감은 없어도 욕심은 많은(이상-현실 격차 큼)' 양상을 보였으나, 특성화계 학생들은 '자신감도 낮고 욕심도 상대적으로 적은' 양상을 보임. 이는 학업에 대한 피로도나 진로 방향의 차이(취업 중심 등)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표 4-58〉 학업 성적 및 학습 태도(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학업성적 정도 자기평가 (지난학기 기준)	매우못한다	16	6.6	2.82(0.84)
	못하는편이다	56	23.2	
	보통이다	130	53.9	
	잘하는편이다	33	13.7	
	매우잘한다	6	2.5	
학습태도 및 성향 1) 공부 자신감	전혀그렇지않다	43	17.8	2.51(1.01)
	별로그렇지않다	71	29.5	
	보통이다	97	40.2	
	대체로그렇다	21	8.7	
	매우그렇다	9	3.7	
학습태도 및 성향 2) 어려운 과제 해결능력	전혀그렇지않다	30	12.4	2.71(0.99)
	별로그렇지않다	65	27.0	
	보통이다	101	41.9	
	대체로그렇다	36	14.9	
	매우그렇다	9	3.7	
학습태도 및 성향 3)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	전혀그렇지않다	20	8.3	3.23(1.13)
	별로그렇지않다	38	15.8	
	보통이다	85	35.3	
	대체로그렇다	63	26.1	
	매우그렇다	35	14.5	

- 활동 경험 여부(최근 1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업진로, 건강보건, 문화·예술 분야에서 7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실무와 밀접하거나 대중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
 - 과학·정보 및 환경보존 분야의 참여율은 30% 초반대로 낮아, 전공 외 기초 과학이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노력이 적은 편임.
 - 청소년 단체(19.1%), 온라인 단체(14.1%) 모두 80% 이상의 학생이 활동 경험이 없음. 특정 주제의 '체험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지만, 지속적인 '소속 단체 활동'은 드물어 공동체적 유대 활동보다는 개인/학교 단위 활동에 치중되어 있음.

〈표 4-59〉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험 여부(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퍼센트
활동 참여 경험 여부	문화·예술	없다	66	27.4
		있다	175	72.6
	과학·정보	없다	184	76.3
		있다	57	23.7
	미래기술	없다	144	59.8
		있다	97	40.2
	직업진로	없다	57	23.7
		있다	184	76.3
	건강보건	없다	64	26.6
		있다	177	73.4
단체·동아리 활동 여부	환경보존	없다	161	66.8
		있다	80	33.2
	청소년단체	없다	195	80.9
		있다	46	19.1
	온라인단체	없다	207	85.9
		있다	34	14.1
	기타	없다	189	78.4
		있다	52	21.6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자료 활용(3.37점) 및 도구 활용(3.14점) 능력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반고 학생 평균(3.6~3.7점대)에 비해 낮게 형성됨.
-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2.82점으로 낮아, 미래 직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태임.

〈표 4-60〉 디지털 학습역량(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10	4.1	3.37(0.96)
	별로그렇지않다	24	10.0	
	보통이다	103	42.7	
	대체로그렇다	75	31.1	
	매우그렇다	29	12.0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전혀그렇지않다	16	6.6	3.14(0.98)
	별로그렇지않다	32	13.3	
	보통이다	117	48.5	
	대체로그렇다	55	22.8	
	매우그렇다	21	8.7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	전혀그렇지않다	23	9.5	2.82(0.93)
	별로그렇지않다	52	21.6	
	보통이다	118	49.0	
	대체로그렇다	41	17.0	
	매우그렇다	7	2.9	

○ 학습 동기(외재적·내재적) 및 학교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 공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학습에 대한 외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임.

- 지적 호기심 수치(3.11점)가 낮은 편이며, 보통이다(45.6%) 응답이 절반에 육박하며, 긍정 응답(32.7%)이 전체 결과(38.9%)에 비해 낮음. 순수한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등 실용적 목적에 의한 학습 성향이 강함을 시사함.
-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낭비라고 느끼는 부정적 체감(3.38점)이 다소 높은 편임. 학교생활을 낭비라고 느끼는 긍정 응답(매우+대체로)이 18.2%이며, '보통이다'까지 합치면 52.2%가 학교생활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표 4-61〉 학습 동기(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부모님 권유로 공부함	매우그렇다	5	2.1	3.78(0.95)
	대체로그렇다	13	5.4	
	보통이다	72	29.9	
	별로그렇지않다	92	38.2	
	전혀그렇지않다	59	24.5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함	전혀그렇지않다	17	7.1	3.11(0.97)
	별로그렇지않다	35	14.5	
	보통이다	110	45.6	
	대체로그렇다	63	26.1	
	매우그렇다	16	6.6	
학교에서 시간 낭비 느낌임	매우그렇다	15	6.2	3.38(1.07)
	대체로그렇다	29	12.0	
	보통이다	82	34.0	
	별로그렇지않다	79	32.8	
	전혀그렇지않다	36	14.9	

○ 자기이해 및 진로 계획(진로성숙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항목이 3.4점 이상의 평균을 기록하며,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가 뚜렷함. 좋아하는 일(3.66)과 계획 수립(3.65) 점수가 거의 일치함. 이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실제 직업 계획으로 연결하는 '진로 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함.
- 좋아하는 일을 안다(3.66)의 경우, 긍정 응답(대체로+매우)이 56.5%이며, '매우 그렇다'가 24.1%에 달함. 자신이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많으며, 이는 특성화고 선택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큼.
- 구체적인 계획 수립(3.65점)은 긍정 응답 비율이 56.5%로, 좋아하는 일을 인지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나타남. 특성화계 학생들이 조기 취업이나 전문 진학 등 실질적인 로드맵을 더 명확히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표 4-62〉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잘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7	2.9	3.42(1.02)
	별로그렇지않다	34	14.1	
	보통이다	91	37.8	
	대체로그렇다	69	28.6	
	매우그렇다	40	16.6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좋아하는 일을 안다	전혀그렇지않다	5	2.1	3.66(1.02)
	별로그렇지않다	25	10.4	
	보통이다	75	31.1	
	대체로그렇다	78	32.4	
	매우그렇다	58	24.1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전혀그렇지않다	7	2.9	3.65(1.04)
	별로그렇지않다	23	9.5	
	보통이다	75	31.1	
	대체로그렇다	79	32.8	
	매우그렇다	57	23.7	

□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주거 공간(3.80점)과 주변 환경(3.65점) 모두 평균 3.5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하며, 삶의 기초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표 4-63〉 주거환경 만족(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살고 있는 집	매우불만족한다	2	0.8	3.80(0.99)
	약간불만족한다	19	7.9	
	보통이다	78	32.4	
	약간만족한다	69	28.6	
	매우만족한다	73	30.3	
주변 환경	매우불만족한다	8	3.3	3.65(1.02)
	약간불만족한다	17	7.1	
	보통이다	82	34.0	
	약간만족한다	79	32.8	
	매우만족한다	55	22.8	

-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진학 희망 여부 및 희망 진학 지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특성화계 응답자의 68.0%가 도시 지역으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고 학생 결과(67.3%)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높음.
 - 단, 서울(20.7%)보다는 가까운 대도시(34.4%)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취업 인프라와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 중심적 선택으로 풀이됨.

〈표 4-64〉 도시 진학 희망(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도시 진학 희망 여부	그렇지않다	77	32.0
	그렇다	164	68.0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도시진학 희망여부 “그렇다” 응답자 중)	동일지역내의 읍지역	12	5.0
	가까운대도시	83	34.4
	경기,인천	19	7.9
	서울	50	20.7
	전체	164	68.0

○ 성적에 따른 도시 진학 및 주변인(부모님, 선생님)의 권유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적이 좋으면 도시로 가야 한다'는 인식(3.07점)이 일반고 평균(3.24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응답 빈도는 '보통이다(36.9%)'가 가장 많으며, 긍정 응답(34.4%)과 부정 응답(28.6%)이 비슷하게 나타남. 성적과 거주지 이동을 결합하지 않는 중립적 진학 인식이 있음.
- 또한, 부모님(2.55점)과 선생님(2.48점)의 도시 진학 권유 정도가 매우 낮아, 학생들의 도시 지향성은 주변의 권유보다 본인의 진로 목표에 따른 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음

〈표 4-65〉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함	전혀그렇지않다	20	8.3	3.07(1.07)
	별로그렇지않다	49	20.3	
	보통이다	89	36.9	
	대체로그렇다	61	25.3	
	매우그렇다	22	9.1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하길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49	20.3	2.55(1.07)
	별로그렇지않다	60	24.9	
	보통이다	91	37.8	
	대체로그렇다	32	13.3	
	매우그렇다	9	3.7	
선생님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가기를 원함	전혀그렇지않다	47	19.5	2.48(0.97)
	별로그렇지않다	63	26.1	
	보통이다	104	43.2	
	대체로그렇다	23	9.5	
	매우그렇다	4	1.7	

○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47.7%)이 찬성 의견(52.3%)로 차이가 거의 없음.

〈표 4-66〉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특성화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통폐합에 대한 생각	반대	115	47.7
	찬성	126	52.3

2. 보호자 설문 분석 결과

1) 기본항목

□ 보호자 응답자 980명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 빈도분석 결과임

○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성별 및 관계) 여성(83.4%) 및 어머니(83.3%) 응답자가 압도적이며, 남성 및 아버지는 약 16% 수준임.
- (거주 지역) 읍 지역(44.5%)과 면 지역(39.9%) 거주자가 전체의 84.4%를 차지하여 농어촌 중심의 표집 특성을 보임.
- (다문화 여부) 다문화 가정 응답자는 7.9%(77명)로 나타남.

○ 교육 및 경제적 여건은 다음과 같음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34.2%) 및 전문대 졸업(29.4%)이 주를 이루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은 약 33.2%임.
- (가구 소득) 월 평균 300~500만 원 미만(35.3%) 구간이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4.3%에 불과함.
- (주요 직업) 사무직(18.7%), 농어임업(16.7%), 전문직(16.5%), 판매/서비스업(13.6%) 순으로 고르게 분포됨.

〈표 4-67〉 보호자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63	16.6
	여자	817	83.4
학생과의 관계	아버지	154	15.7
	어머니	816	83.3
	친척	5	0.5
	할아버지	3	0.3
	할머니	2	0.2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7	0.7
	중학교 졸업	25	2.6
	고등학교 졸업	335	34.2
	전문대학(2~3년제) 졸업	288	29.4
	대학교(4년제) 졸업	280	28.6
	대학원 이상(석, 박사) 졸업	45	4.6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없음	17	1.7
	100만 원 미만	30	3.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8	9.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40	14.3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73	17.7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72	17.6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29	13.2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86	8.8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52	5.3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27	2.8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24	2.4
	1,000만 원 이상	42	4.3
주된 소득의 직업	농업·어업·임업	164	16.7
	단순 노무 종사자	60	6.1
	생산직 종사자	85	8.7
	판매, 서비스업	133	13.6
	사무직	183	18.7
	관리직	75	7.7
	전문직	162	16.5
	기타	118	12.0
거주 행정구역	동 지역	153	15.6
	면 지역	391	39.9
	읍 지역	436	44.5
다문화 여부	예	77	7.9
	아니오	903	92.1

□ 지역별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27.9% (273명)가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25.3% (248명), 경상북도 25.1% (246명), 경상남도 8.7% (85명), 전북특별자치도 5.2% (51명), 강원특별자치도 4.5% (44명), 충청북도 3.4% (3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는 응답자가 없었음
- 지역 내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밀집 기초 지자체 응답은 다음과 같음
 - 칠곡군 (경북) 15.8% (155명)이 단일 기초 지자체 중 최다 응답을 보였으며, 해남군 (전남) 12.8% (125명), 통영시 (경남) 7.8% (76명), 논산시 (충남) 5.8% (57명), 부여군 (충남) 5.7% (56명), 보령시 (충남) 5.6% (55명) 순으로 높았음

〈표 4-68〉 지역별 응답 결과(보호자)

지역1	지역2	빈도	퍼센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1	2.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3	2.3
소계		44	4.5
경상남도	고성군	1	0.1
경상남도	통영시	76	7.8
경상남도	합천군	8	0.8
소계		85	8.7
경상북도	문경시	1	0.1
경상북도	영덕군	46	4.7
경상북도	영양군	23	2.3
경상북도	청송군	21	2.1
경상북도	칠곡군	155	15.8
소계		246	25.1
전라남도	강진군	21	2.1

지역1	지역2	빈도	퍼센트
전라남도	나주시	1	0.1
전라남도	보성군	29	3.0
전라남도	신안군	29	3.0
전라남도	영광군	2	0.2
전라남도	완도군	2	0.2
전라남도	장흥군	2	0.2
전라남도	진도군	13	1.3
전라남도	해남군	125	12.8
전라남도	화순군	24	2.4
소계		248	25.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3	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	0.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1	0.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46	4.7
소계		51	5.2
충청남도	계룡시	2	0.2
충청남도	공주시	44	4.5
충청남도	금산군	15	1.5
충청남도	논산시	57	5.8
충청남도	보령시	55	5.6
충청남도	부여군	56	5.7
충청남도	서천군	2	0.2
충청남도	청양군	31	3.2
충청남도	태안군	10	1.0
충청남도	홍성군	1	0.1
소계		273	27.9
충청북도	단양군	14	1.4
충청북도	음성군	1	0.1
충청북도	증평군	2	0.2
충청북도	진천군	16	1.6
소계		33	3.4
전체		980	100.0

2) 학교 교육 여건 및 현황

- ☐ 보호자가 체감하는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결과 교내 대인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친구 관계' 및 '교사 관계' 평균이 4.08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음.
 - 특히 친구 관계의 경우 긍정 응답(대체로+매우 그렇다) 비율이 80.3%에 달해 학교 내 사회적 지지 체계가 공고한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 만족도(3.81) 및 학교 가는 즐거움(3.76) 모두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함.
 - 다만,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는 문항은 대인관계 점수 대비 낮게 나타나 학습 부담 등 기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급식 만족도' 평균은 3.66으로 전체 항목 중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표준편차가 1.04로 유일하게 1.0을 상회하여 편차가 가장 큼을 시사함.

〈표 4-69〉 학교생활 만족도(보호자)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1.3	3.76(0.89)
	별로 그렇지 않다	54	5.5	
	보통이다	294	30.0	
	대체로 그렇다	415	42.3	
	매우 그렇다	204	20.8	
	전체	980	100.0	
2)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0.8	4.08(0.80)
	별로 그렇지 않다	24	2.4	
	보통이다	161	16.4	
	대체로 그렇다	479	48.9	
	매우 그렇다	308	31.4	
	전체	980	100.0	
3) 선생님을 좋아하고 잘 따른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0.5	4.08(0.80)
	별로 그렇지 않다	24	2.4	
	보통이다	180	18.4	
	대체로 그렇다	454	46.3	
	매우 그렇다	317	32.3	
	전체	980	100.0	
4) 급식을 맛있어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3.2	3.66(1.04)
	별로 그렇지 않다	101	10.3	
	보통이다	268	27.3	
	대체로 그렇다	353	36.0	
	매우 그렇다	227	23.2	
	전체	980	100.0	
5) 자녀가 학교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0.7	3.81(0.82)
	별로 그렇지 않다	44	4.5	
	보통이다	268	27.3	
	대체로 그렇다	473	48.3	
	매우 그렇다	188	19.2	
	전체	980	100.0	

□ 학교 운영 및 대외 관계에 대한 보호자 인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호자들은 학교의 '생활지도'와 '교사 신뢰도'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반면, '학업 강조' 및 '진학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학교의 학업적 역할보다는 인성 및 관리 측면을 더 긍정적으로 체감함.
 - 생활지도(3.82)와 교사 신뢰도(3.81)가 나란히 최고점을 기록함. 보호자 10명 중 6~7명은 학교의 훈육과 교사진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임.
 - 반면, 학업 강조(3.27) 문항이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기록함.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5.7%로 압도적으로 많아, 학교가 학업 성취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느끼는 보호자는 적은 것으로 보임.
 - 진학지도(3.49) 역시 하위권에 머물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요구가 잠재되어 있음.

- 학부모 소통(3.68) 및 지역사회 협력(3.69)은 전반적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임.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69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보호자층의 거부감이 낮음

〈표 4-70〉 학교 운영 만족도(보호자)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1.0	3.82(0.83)
	별로 그렇지 않다	38	3.9	
	보통이다	267	27.2	
	대체로 그렇다	472	48.2	
	매우 그렇다	193	19.7	
	전체	980	100.0	
2)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해 강조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2.6	3.27(0.88)
	별로 그렇지 않다	134	13.7	
	보통이다	448	45.7	
	대체로 그렇다	298	30.4	
	매우 그렇다	75	7.7	
	전체	980	100.0	
3)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3.81(0.87)
	별로 그렇지 않다	41	4.2	
	보통이다	287	29.3	
	대체로 그렇다	422	43.1	
	매우 그렇다	218	22.2	
	전체	980	100.0	
4) 지역 주민의 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2.0	3.52(0.93)
	별로 그렇지 않다	87	8.9	
	보통이다	392	40.0	
	대체로 그렇다	323	33.0	
	매우 그렇다	158	16.1	
	전체	980	100.0	
5) 학교는 지역사회와 잘 협력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1.1	3.69(0.86)
	별로 그렇지 않다	53	5.4	
	보통이다	333	34.0	
	대체로 그렇다	414	42.2	
	매우 그렇다	169	17.2	
	전체	980	100.0	
6) 학교는 학부모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1.8	3.68(0.93)
	별로 그렇지 않다	74	7.6	
	보통이다	301	30.7	
	대체로 그렇다	399	40.7	
	매우 그렇다	188	19.2	
	전체	980	100.0	
7) 상급학교 진학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1.8	3.49(0.90)
	별로 그렇지 않다	90	9.2	
	보통이다	401	40.9	
	대체로 그렇다	340	34.7	
	매우 그렇다	131	13.4	
	전체	980	100.0	
8) 학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3.69(0.87)
	별로 그렇지 않다	57	5.8	
	보통이다	330	33.7	
	대체로 그렇다	406	41.4	
	매우 그렇다	175	17.9	
	전체	980	100.0	

□ 자녀의 통학거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64.1%가 15분 이내에 등교를 완료하며, 거리 또한 3km 이내(57.2%)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통학 편의성이 우수함.
- 단일 수단으로 자가용(26.3%)이 도보(25.9%)를 근소하게 앞서며 가장 높고, 복합 수단 까지 포함할 경우 보호자의 차량 지원 비중이 매우 높음.
 - 순수 자가용(26.3%) 외에도 도보+자가용, 대중교통+자가용 등 약 45.3%의 학생이 통학 과정에서 자가용을 이용함.
 - 15분 이내(64.1%)와 30분 이내(26.9%)를 합치면 전체의 91%에 달함.
 - 대부분의 학생이 통학으로 인한 피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극소수(1.3%)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표 4-71〉 자녀의 통학 수단 및 거리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거리	1km 미만	314	32.0
	1km 이상 3km 미만	247	25.2
	3km 이상 5km 미만	129	13.2
	5km 이상 10km 미만	130	13.3
	10km 이상	122	12.4
	잘 모름	38	3.9
수단	자가용	258	26.3
	도보	254	25.9
	통학버스	123	12.6
	대중교통	70	7.1
	통학택시	17	1.7
	자전거	6	0.6
	도보+자가용	95	9.7
	대중교통+자가용	61	6.2
	통학버스+자가용	30	3.1
	기타	66	6.7
소요시간	15분 이내	628	64.1
	15분~30분	264	26.9
	30분~45분	58	5.9
	45분~1시간	17	1.7
	1시간~1시간 15분	6	0.6
	1시간 15분~1시간 30분	5	0.5
	1시간 30분 이상	2	0.2

- 통학에 대해 보호자의 57.2%가 만족(만족+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 응답은 8.8%로 낮은 수준임.
- 현재 통학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은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통학 버스(55.8%) 도입 및 확대를 희망함. 대중교통(15.1%)과 통학 택시(12.8%)가 뒤를 이어, 개별 자가용 이용보다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적 지원을 선호함.

〈표 4-72〉 자녀의 희망 교통 수단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통학 만족도	매우 불만족	27	2.8
	불만족	59	6.0
	보통	334	34.1
	만족	333	34.0
	매우 만족	227	23.2
희망 교통 수단 (불만족 응답자)	전체	86	100.0
	통학버스	48	55.8
	대중교통	13	15.1
	통학택시	11	12.8
	도보	9	10.5
	자가용	3	3.5
	기타	2	2.3
	대중교통+자가용	61	6.2
	통학버스+자가용	30	3.1
	기타	66	6.7
소요시간	15분 이내	628	64.1
	15분~30분	264	26.9
	30분~45분	58	5.9
	45분~1시간	17	1.7
	1시간~1시간 15분	6	0.6
	1시간 15분~1시간 30분	5	0.5
	1시간 30분 이상	2	0.2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체능 중심의 운영을 보여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예체능(59.0%)과 영어(49.2%)의 개설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국어/논술의 비중이 낮음.
- 전 과목에서 '잘 모름' 응답이 36%~50%에 달해, 학교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홍보 및 정보 전달 체계에 개선이 시급함.

〈표 4-73〉 교과별 방과후학교 개설 과정 여부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1) 국어/논술	개설	323	33.0
	미개설	168	17.1
	잘 모름	489	49.9
	전체	980	100.0
2) 영어	개설	482	49.2
	미개설	80	8.2
	잘 모름	418	42.7
	전체	980	100.0
3) 수학	개설	376	38.4
	미개설	151	15.4
	잘 모름	453	46.2
	전체	980	100.0
4) 예체능	개설	578	59.0
	미개설	47	4.8
	잘 모름	355	36.2
	전체	980	100.0

- 모든 과목 중 예체능(38.3%)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타 교과목 대비 미참여 비율도 가장 낮음.
- 그 외, 영어(21.0%), 수학(18.9%), 국어/논술(14.8%) 순으로 참여율이 나타나며, 교과과목의 경우 미참여 및 정보 부재(잘 모름)의 합계가 70~80%에 달함.

〈표 4-74〉 교과별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1) 국어/논술	참여	145	14.8
	미참여	564	57.6
	잘 모름	271	27.7
	전체	980	100.0
2) 영어	참여	206	21.0
	미참여	527	53.8
	잘 모름	247	25.2
	전체	980	100.0
3) 수학	참여	185	18.9
	미참여	548	55.9
	잘 모름	247	25.2
	전체	980	100.0
4) 예체능	참여	375	38.3
	미참여	395	40.3
	잘 모름	210	21.4
	전체	980	100.0

- 데이터는 방과후학교 참여 경험이 있는 보호자(483명)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참여 동기' 조사 결과임
- 참여 이유의 과반(51.1%)이 '취미 활동 및 자기계발'에 집중되어 있어,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소질 계발 창구로 확고히 자리 잡음.
- 학교 수업 보충(18.6%)이 뒤를 이어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내실화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기타 의견 및 돌봄 부재(5%) 등을 통해 자발적 선택 외에 제도적 환경이나 가정 내 상황에 의한 참여도 확인됨.

구분	빈도	퍼센트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247	51.1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90	18.6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받으므로	61	12.6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43	8.9
방과후 학생을 돌봐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24	5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11	2.3
기타	7	1.4
전체	483	100

□ 보호자가 학교 교육 활동에 어느 정도 깊이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학부모 참여 유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교 소식을 확인하는 수동적 참여(평균 3.88)는 매우 활발하나, 학부모 모임 등 대면·직접 참여(평균 2.48)는 상당히 저조함.
- 보호자들은 학교와의 관계를 '정보를 얻는 창구'로 활용할 뿐, 공동체 활동이나 네트워크 형성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 정보 인지 및 소통(3.88)이 가장 높음. 가정통신문 확인 등 학교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긍정 응답(그렇다+아주 그렇다) 기준 68.7%로 가장 높음. 보호자 대다수가 학교의 공식적인 공지 사항은 성실히 확인하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학부모 네트워킹 및 모임(2.48)이 가장 낮았음.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다는 응답 중 부정 응답(전혀 아니다+아니다)이 55.2%로 과반을 넘음. 표준편차가 1.16으로 문항 중 가장 커서, 모임에 적극적인 소수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다수로 참여 양극화가 뚜렷함.
 - 학교 행사 및 이벤트 참여 (3.18)는 보통 수준임. 대면 모임(2.48)보다는 높으나 소식 확인(3.88)보다는 낮아, 정기적인 활동보다는 이벤트 중심의 간헐적 참여를 선호함.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교소식(가정통신문 등)을 잘 읽고 학교 일정과 상황을 이해한다	전혀 아니다	1	0.1	3.88(0.76)
	아니다	18	1.8	
	보통이다	287	29.3	
	그렇다	465	47.4	
	아주 그렇다	209	21.3	
	전체	980	100.0	
2)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전혀 아니다	224	22.9	2.48(1.16)
	아니다	317	32.3	
	보통이다	245	25.0	
	그렇다	135	13.8	
	아주 그렇다	59	6.0	
	전체	980	100.0	
3) 학예회, 전시회, 운동회 등의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	전혀 아니다	92	9.4	3.18(1.21)
	아니다	209	21.3	
	보통이다	278	28.4	
	그렇다	236	24.1	
	아주 그렇다	165	16.8	
	전체	980	100.0	

□ 가정 내 소통 시간과 자녀와의 공동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호자의 약 66%가 주간 1시간 이상 자녀와 대화하고 있으며, 대화 시간이 극히 부족한 비율(5.2%)은 낮은 편임.
 - '30분~2시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54.2%로 가장 많음.
 - 주간 4시간 이상(일평균 약 35분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보호자도 17.3%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거의 하지 않는다(5.2%)'는 응답은 소수이나, 이들 학생의 경우 학교 내 생활지도나 심리 상담 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함.
- 외식(96.2%)과 여행(81.0%) 등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 참여도가 매우 높아, 가정 내 정서적 유대 관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음.
- 문화/신체 활동(약 71~73%) 등 영화 관람이나 운동 등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나, 외식/여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4-75〉 자녀와의 대화 및 활동 빈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자녀와의 대화	거의 하지 않는다(30분 미만)		51	5.2
	30분 이상~1시간 미만		281	28.7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0	25.5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228	23.3
	4시간 이상~7시간 미만		170	17.3
자녀와의 활동	1) 영화 관람, 공연보기 등 문화 체험	없다	261	26.6
		있다	719	73.4
	2) 놀이공원 가기, 가족여행 등	없다	186	19.0
		있다	794	81.0
	3) 운동, 등산, 산책 등 신체 활동	없다	282	28.8
		있다	698	71.2
	4) 외식	없다	37	3.8
		있다	943	96.2

□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특히 자녀가 받았으면 하는 희망 교육 수준과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가능 교육 수준을 각각 응답함

- 보호자의 85.9%가 자녀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며, 특히 대학원 이상의 고등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도 19.4%로 높게 나타남.
- 희망 수준에 비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수준은 모든 상위 학위 구간에서 낮게 나타나, 보호자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일정 부분 현실적인 제약이나 우려를 느끼고 있음이 확인됨.

〈표 4-76〉 자녀 희망 교육수준 및 가능 교육 수준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1) 희망교육 수준	고등학교	31	3.2
	전문대학(2~3년제)	107	10.7
	대학교(4년제)	652	66.5
	대학원이상(석사, 박사)	190	19.4
	전체	980	100.0
2) 가능교육 수준	고등학교	62	6.3
	전문대학(2~3년제)	131	13.4
	대학교(4년제)	615	62.8
	대학원이상(석사, 박사)	172	17.6
	전체	980	100.0

□ 다음으로, 보호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부모 효능감에 대한 응답 결과임. 보호자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스스로가 모범적인 부모인지에 대해서는 겸손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임

- 보호자들은 자녀의 고충을 파악하는 정서적 공감(평균 3.84) 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임.
- 자녀 지도(3.69)와 부모 역할 수행(3.60)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타인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부모'라는 확신(3.3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응답이 집중되어, 과도한 자신감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병행하는 양육 태도를 보임.

〈표 4-77〉 부모 효능감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0.7	3.84(0.70)
	별로 그렇지 않다	19	1.9	
	보통이다	228	23.3	
	대체로 그렇다	592	60.4	
	매우 그렇다	134	13.7	
	전체	980	100.0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3.37(0.77)
	별로 그렇지 않다	82	8.4	
	보통이다	477	48.7	
	대체로 그렇다	350	35.7	
	매우 그렇다	59	6.0	
	전체	980	100.0	
3)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0.5	3.52(0.72)
	별로 그렇지 않다	57	5.8	
	보통이다	406	41.4	
	대체로 그렇다	450	45.9	
	매우 그렇다	62	6.3	
	전체	980	100.0	
4)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0.6	3.69(0.74)
	별로 그렇지 않다	39	4.0	
	보통이다	308	31.4	
	대체로 그렇다	523	53.4	
	매우 그렇다	104	10.6	
	전체	980	100.0	
5)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0.4	3.60(0.73)
	별로 그렇지 않다	39	4.0	
	보통이다	396	40.4	
	대체로 그렇다	448	45.7	
	매우 그렇다	93	9.5	
	전체	980	100.0	

- 자녀의 디지털 학습 환경과 미래 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디지털 교육의 중요 인식도 높으며 기기 보급도 양호한 편이나, 이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자녀의 미래를 위해 AI, 코딩 등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평균 4.03으로 가장 높으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강함.
 - 가정 내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수준(3.94)도 상위권에 속해,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토대는 마련된 상태임.
 - 기기 구매 및 통신비 지원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여유(3.34)는 상대적으로 낮아,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시사됨.

〈표 4-78〉 디지털 학습환경과 미래역량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우리 집에는 자녀가 온라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디지털 기기(PC, 태블릿)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1.5	3.94(0.95)
	별로 그렇지 않다	62	6.3	
	보통이다	195	19.9	
	대체로 그렇다	399	40.7	
	매우 그렇다	309	31.5	
	전체	980	100.0	
2) 자녀의 미래 진로를 위해 디지털 역량(AI 이해, 코딩 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0.6	4.03(0.81)
	별로 그렇지 않다	18	1.8	
	보통이다	213	21.7	
	대체로 그렇다	446	45.5	
	매우 그렇다	297	30.3	
	전체	980	100.0	
3) 자녀의 디지털 학습을 위해 정보화 기기 구매나 인터넷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데 부담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6.2	3.34(1.07)
	별로 그렇지 않다	124	12.7	
	보통이다	360	36.7	
	대체로 그렇다	294	30.0	
	매우 그렇다	141	14.4	
	전체	980	100.0	

- 보호자들이 체감하는 거주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임. 전반적인 점수가 1점대~2점대 중반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특히 인프라 부족에 대한 결핍이 심각한 수준임.
- 모든 항목의 평균이 2.7점 미만으로, 보호자들은 현재 거주지가 자녀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인식함.
 - 특히 디지털 역량 교육(1.88)과 진로 체험(1.95) 인프라는 최하위를 기록하여 지역 내 교육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문화시설 만족도(2.21) 또한 매우 낮아, 일상적인 문화생활 기회가 제한적임.

〈표 4-79〉 교육 및 정주여건 만족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원, 과외 등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 기회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6	19.0	2.59(1.09)
	별로 그렇지 않다	277	28.3	
	보통이다	301	30.7	
	대체로 그렇다	185	18.9	
	매우 그렇다	31	3.2	
	전체	980	100.0	
2) 보건소, 병원 및 의료시설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4	15.7	2.68(1.07)
	별로 그렇지 않다	268	27.3	
	보통이다	331	33.8	
	대체로 그렇다	193	19.7	
	매우 그렇다	34	3.5	
	전체	980	100.0	
3) 체육시설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4	13.7	2.66(1.02)
	별로 그렇지 않다	298	30.4	
	보통이다	356	36.3	
	대체로 그렇다	155	15.8	
	매우 그렇다	37	3.8	
	전체	980	100.0	
4)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등)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7	28.3	2.21(1.01)
	별로 그렇지 않다	345	35.2	
	보통이다	254	25.9	
	대체로 그렇다	84	8.6	
	매우 그렇다	20	2.0	
	전체	980	100.0	
5) 도서관, 공부방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6	14.9	2.59(1.01)
	별로 그렇지 않다	314	32.0	
	보통이다	344	35.1	
	대체로 그렇다	144	14.7	
	매우 그렇다	32	3.3	
	전체	980	100.0	
6)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0	35.7	1.95(0.91)
	별로 그렇지 않다	395	40.3	
	보통이다	184	18.8	
	대체로 그렇다	36	3.7	
	매우 그렇다	15	1.5	
	전체	980	100.0	
7) 디지털 역량(코딩, 정보화 등)을 키울 수 있는 학원이나 교육 기관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0	35.7	1.88(0.91)
	별로 그렇지 않다	395	40.3	
	보통이다	184	18.8	
	대체로 그렇다	36	3.7	
	매우 그렇다	15	1.5	
	전체	980	100.0	

3) 교육활동 및 성취

- 보호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 결과임.
-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혹은 '잘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47.5%)이 '못한다' 혹은 '못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19.3%)보다 2배 이상 높음.
- '보통이다(33.0%)'를 포함한 중위권 이상의 인식이 주를 이루어, 보호자들이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 이수 능력에 대해 대체로 안심하고 있는 상태임.
- 잘 모르겠음(0.3%) 응답이 거의 없으며 자녀의 성적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 이는 평소 자녀와의 대화나 학교 성적 통지 등을 통해 학업 상태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4-80〉 보호자 인식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상 (잘한다)	193	19.7	3.42(1.12)
중상 (잘하는 편이다)	272	27.8	
중 (보통이다)	323	33.0	
중하 (못하는 편이다)	131	13.4	
하 (못한다)	58	5.9	
잘 모르겠음	3	0.3	
전체	980	100.0	

- 학업 성적을 제외한 자녀의 전인적 발달(인성, 사회성, 자기관리 등)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결과임. 전반적으로 인성과 사회성 등 정서적 발달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는 반면, 진로 준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인성(4.10), 사회성(4.00), 타인 조력(4.01) 등 대인관계 및 도덕성 영역에서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진로 준비(3.19)와 특기 보유(3.55) 문항이 최하위를 기록하여, 인성은 훌륭하지만 '미래 설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은 상태임.
 - 진로 준비 항목에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으며, 평균 점수가 유일하게 3.1점대로 낮음. 앞선 데이터에서 나타난 '지역 내 진로 체험 인프라 부족(1.95)'이 실제 자녀의 준비도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음.
- 신체 발달(3.99)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만족하며,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는 자기관리 능력(3.79)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표 4-81〉 보호자 인식 자녀의 전인적 발달 수준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인성(도덕성)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3	4.10(0.74)
	별로 그렇지 않다	8	0.8	
	보통이다	181	18.5	
	대체로 그렇다	483	49.3	
	매우 그렇다	305	31.1	
	전체	980	100.0	
2) 사회성(협동심)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3	4.00(0.80)
	별로 그렇지 않다	34	3.5	
	보통이다	198	20.2	
	대체로 그렇다	473	48.3	
	매우 그렇다	272	27.8	
	전체	980	100.0	
3)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2	4.01(0.78)
	별로 그렇지 않다	19	1.9	
	보통이다	223	22.8	
	대체로 그렇다	462	47.1	
	매우 그렇다	274	28.0	
	전체	980	100.0	
4) 자신의 일을 알아서 잘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3.79(0.92)
	별로 그렇지 않다	67	6.8	
	보통이다	268	27.3	
	대체로 그렇다	403	41.1	
	매우 그렇다	230	23.5	
	전체	980	100.0	
5) 신체가 잘 발달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0.5	3.99(0.83)
	별로 그렇지 않다	36	3.7	
	보통이다	204	20.8	
	대체로 그렇다	452	46.1	
	매우 그렇다	283	28.9	
	전체	980	100.0	
6) 진로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	3.6	3.19(0.92)
	별로 그렇지 않다	161	16.4	
	보통이다	437	44.6	
	대체로 그렇다	277	28.3	
	매우 그렇다	70	7.1	
	전체	980	100.0	
7) 공부 이외에 특기(잘하는 것)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1.3	3.55(0.94)
	별로 그렇지 않다	110	11.2	
	보통이다	343	35.0	
	대체로 그렇다	355	36.2	
	매우 그렇다	159	16.2	
	전체	980	100.0	

4)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보호자가 체감하는 주거 물리적 환경(주택) 및 정주 여건(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임. 앞서 분석한 '지역 인프라(학원, 병원 등)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대비하여, 거주하는 집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음.
- 살고 있는 주택 자체에 대한 만족도(3.51)는 양호한 편이나,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 만족도(3.29)는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잠재되어 있음.
 -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의 주거 상태에 대해 큰 불만은 없으나 뚜렷한 매력 또한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

〈표 4-82〉 주거 및 주변 환경 만족도(보호자)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주택(건물)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9	1.9	3.51(0.89)
	만족하지 않는다	96	9.8	
	보통이다	351	35.8	
	만족한다	398	40.6	
	매우 만족한다	116	11.8	
	전체	980	100.0	
2) 주변환경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9	3.0	3.29(0.90)
	만족하지 않는다	126	12.9	
	보통이다	438	44.7	
	만족한다	308	31.4	
	매우 만족한다	79	8.1	
	전체	980	100.0	
3)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7	1.7	3.41(0.85)
	만족하지 않는다	96	9.8	
	보통이다	419	42.8	
	만족한다	360	36.7	
	매우 만족한다	88	9.0	
	전체	980	100.0	

- 거주지 이동 의사 및 지역 이탈 원인 분석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62.1%는 현재 지역에 머물기를 희망하며 정주 의사를 밝힘.
 - 경제적 안정 및 자연 환경 (62.9%): 일자리와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고 자연 환경이 좋다는 점이 지역 정착의 가장 큰 지지대 역할을 함.
 - 통학 및 교육 만족도 (27.5%):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10.9%)보다는 실제적인 통학 여건 (16.6%)이 정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보호자 10명 중 약 4명(37.9%)은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유지 가능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수치임
 - 사회적 인프라 결핍 (56.0%): 정주 희망자 중 인프라가 좋아서 남는다는 비율은 6.9%에 불과한 반면, 부족해서 떠난다는 비율은 56%에 달해 인프라 문제가 지역 이탈의 결정적 변수임.

- 상급학교 진학 (16.6%):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공백이 이탈의 두 번째 원인임.

〈표 4-83〉 거주지 이동 의사 및 이유(보호자)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정주 희망이유	희망하지 않는다	609	62.1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서(일자리, 소득 등)	232	37.8
	자연 환경이 좋아서	154	25.1
	통학 여건이 만족스러워서	102	16.6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42	10.9
	사회적 인프라가 좋아서	13	6.9
	기타	67	2.1
정주 이탈이유	희망한다	371	37.9
	사회적 인프라(시설, 환경 등)가 좋지 않아서	209	56.0
	아이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62	16.6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일자리, 소득 등)	36	9.7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25	6.7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19	5.1
	통학 여건이 불만족스러워서	14	3.8
	기타	8	1.0

□ 보호자들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시 지역 선택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호자의 과반수(54.4%)가 자녀의 도시 지역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성적이 우수 할수록 도시로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도시 진학 희망자의 약 60%가 가까운 대도시를 1순위로 꼽았으며, 서울(19.6%)이 그 뒤를 이어 광역 단위 이동을 고려하는 층이 두터움.
- 가까운 대도시(59.5%), 서울(19.6%), 동일 지역 내의 읍 지역(16.9%), 경기 및 인천(3.9%) 순임.
- 도시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196명 응답)는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40.3%)'와 '현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좋아서(25.0%)'를 주된 이유로 선택함.
-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13.8%), 일부러 비경쟁적인 환경을 찾아온 것이어서(12.2%), 학원, 도서관 등 교육환경이 충분해서(1.5%)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4〉 상급학교 진학 지역 선택 및 이동 동기 분석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도시(읍지역 포함) 지역 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0	6.1	3.45(1.10)
	별로 그렇지 않다	134	13.7	
	보통이다	253	25.8	
	대체로 그렇다	373	38.1	
	매우 그렇다	160	16.3	
2)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	6.4	3.38(1.15)
	별로 그렇지 않다	67	17.0	
	보통이다	95	24.1	
	대체로 그렇다	140	35.5	
	매우 그렇다	67	17.0	

□ 학교 통폐합에 대한 보호자 의견 분석 결과임

- 반대 여론 우세(60.0%): 보호자 과반수는 통폐합보다 현재의 학교 체제 유지를 선호함. 이는 통학 편의성과 학생 적응, 소규모 교육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임.
 - 통학권 및 적응권 보장(47.8%): 집에서 가까운 학교(24.6%)와 익숙한 환경에서의 적응(23.2%)이 가장 높음.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큼.
 - 소규모 교육의 질(14.3%): ‘적은 학생 수가 학습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 학교가 줄 수 없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임.
 - 교사 신뢰도(13.1%): 현재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시설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나타남
- 찬성 측의 핵심 논리(40.0%): 통폐합에 찬성하는 보호자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또래 집단 형성)과 정보 습득의 유리함을 주된 이유로 꼽음.
 - 사회성 발달 및 또래 집단(32.9%): 너무 적은 학생 수보다는 더 많은 친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기르길 희망하고 있음.
 - 교육 정보 및 경쟁력(31.1%): 학교 규모가 커져야 진학 및 교육 정보를 얻기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운영 효율성(14.3%): 저출산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표 4-85〉 학교 통폐합 찬성 의견 및 사유(보호자)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반대 이유	반대	588	60.0
	가까운 학교여야 통학이 편리해서	146	24.6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138	23.2
	학생 수가 적어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85	14.3
	현재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해서	78	13.1
	진학 등 교육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70	11.8
	학교 시설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62	10.4
	기타	15	2.5
찬성 이유	찬성	392	40.0
	자녀가 지금보다 많은 학생들과 지내기를 바래서	129	32.9
	진학 등 교육관련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22	31.1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56	14.3
	학교 시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54	13.8
	현재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24	6.1
	통학이 불편해서	7	1.8

□ 농어촌 지역 교육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결과, 실무적인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 및 인프라 격차 해소를 희망함

- 직접적 경제 지원 선호 (33.2%)가 높음. 장학금 및 지원금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 농어촌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최우선 정책임을 시사함.

- 기초학력 지원(26.9%)과 예술 활동 지원(14.8%)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이는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공교육 내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요구임.

〈표 4-86〉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우선순위(보호자)

구분	빈도	퍼센트
장학금,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	327	33.2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업성취 지원	265	26.9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 활동 지원	146	14.8
통학버스 등 통학 여건의 개선	87	8.8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교 통합	87	8.8
낙후된 학교교육시설의 개선	63	6.4
기타	11	1.1

-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갖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 결과, 학교를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소멸의 방어선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 존립의 핵심 보루 (평균 3.35): 학교가 지역 소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12.8%)도 문항 중 가장 높음.
- 본연의 교육적 기능 수행 (평균 3.33): 진학 및 진로 지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평생 교육 및 공동체 허브 기능의 보완 필요 (평균 3.05~3.12): 주민 교육이나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교 시설 개방 및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여지가 큼.

〈표 4-87〉 농어촌 학교의 지역 발전 기여도 및 사회적 역할(보호자)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지도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	2.9	3.33(0.86)
	별로 그렇지 않다	84	8.6	
	보통이다	484	49.4	
	대체로 그렇다	302	30.8	
	매우 그렇다	82	8.4	
2) 주민들의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	5.5	3.05(0.92)
	별로 그렇지 않다	167	17.0	
	보통이다	495	50.5	
	대체로 그렇다	204	20.8	
	매우 그렇다	60	6.1	
3)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7	3.8	3.35(0.98)
	별로 그렇지 않다	122	12.4	
	보통이다	409	41.7	
	대체로 그렇다	287	29.3	
	매우 그렇다	125	12.8	
4) 주민 통합 및 화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9	5.0	3.12(0.92)
	별로 그렇지 않다	143	14.6	
	보통이다	504	51.4	
	대체로 그렇다	208	21.2	
	매우 그렇다	76	7.8	

3. 교사 설문 분석 결과

1) 기본항목

- 교사 집단 1,215명의 학교환경, 직위, 교직 경력 등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학교급: 초등학교(39.6%), 중학교(36.5%), 고등학교(24.0%, 그 중, 일반계고(66.0%), 전문계고(34.0%)) 순으로 나타남
 - 직위 및 역할: 일반 교사(49.9%)와 부장 교사(28.6%)가 주축을 이루며, 전체의 54.1%가 담임 업무를 수행 중임.
 - 고용 형태: 기간제 교사 비율이 13.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교직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35.7%), 2년 이상~3년 미만(25.3%), 3년 이상~4년 미만(20.3%)으로, 경력 4년 미만 교사가 80% 이상임.

〈표 4-88〉 교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69	38.6
	여자	746	61.4
최종학력	대학 졸업	774	63.7
	석사 졸업	417	34.3
	박사수료 이상	24	2.0
국공립/사립	국공립	1067	87.8
	사립	148	12.2
학교급	초등학교	481	39.6
	중학교	443	36.5
	고등학교	291	24.0
	일반계고	192	66.0
	전문계고	99	34.0
복식학급 운영여부	아니오	1094	90.0
	예	121	10.0
직위	교장·교감	82	6.7
	부장교사	347	28.6
	교사	606	49.9
	기간제 교사	168	13.8
	기타	12	1.0
담임여부	아니오	558	45.9
	예	657	54.1
교직경력	1년미만	10	0.8
	1년이상~2년미만	434	35.7
	2년이상~3년미만	308	25.3
	3년이상~4년미만	247	20.3
	4년이상~5년미만	51	4.2
	5년이상~6년미만	43	3.5
	6년이상~7년미만	33	2.7
	7년이상~8년미만	38	3.1
	8년이상~9년미만	29	2.4
	9년이상	22	1.8

□ 다음으로 교사 설문 참여 현황(응답률)임. 전체 교사 표본 58,608명 중 1,215명이 응답하여 전체 응답률은 2.1%로 나타남

○ 낮은 전체 응답률(2.1%): 전체 표본 대비 응답률이 낮아 교사 대상 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나, 특정 지역(경북 영양, 청송 등)의 응답률은 매우 높아 해당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응답 인원 기준으로 충남(374명)과 경북(240명), 전남(240명)의 비중이 높음
-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경상북도 영양군 (24.6%)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청송군 (21.3%), 영덕군 (19.0%), 충청북도 단양군 (14.5%)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대구광역시(군위), 인천광역시는 응답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되어, 해당 광역 지자체의 교사 의견은 본 데이터에서 제외됨.

〈표 4-89〉 지역별 응답 분포(교사)

지역1	지역2	교사 표본	응답 인원	표본 대비 응답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301		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614	34	5.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319	17	5.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65		0.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453		0.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52		0.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415		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485		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426		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702		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93		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513	1	0.2
소계		5,138	52	1.0
경기도	가평군	572		0.0
경기도	양평군	1,098		0.0
경기도	여주시	1,106		0.0
경기도	연천군	431		0.0
경기도	포천시	1,238		0.0
소계		4,445	0	0.0
경상남도	거창군	670	1	0.1
경상남도	고성군	554		0.0
경상남도	남해군	472		0.0
경상남도	밀양시	852		0.0
경상남도	사천시	1,045		0.0
경상남도	산청군	363		0.0
경상남도	의령군	269		0.0
경상남도	창녕군	629		0.0
경상남도	통영시	1,121	83	7.4
경상남도	하동군	432		0.0
경상남도	함안군	612	1	0.2
경상남도	함양군	381	1	0.3
경상남도	합천군	440	33	7.5
소계		7,840	119	1.5

지역1	지역2	교사 표본	응답 인원	표본 대비 응답률
경상북도	고령군	255		0.0
경상북도	김천시	1,367		0.0
경상북도	문경시	667		0.0
경상북도	봉화군	318		0.0
경상북도	상주시	1,015		0.0
경상북도	성주군	356		0.0
경상북도	영덕군	310	59	19.0
경상북도	영양군	183	45	24.6
경상북도	영주시	948		0.0
경상북도	영천시	794		0.0
경상북도	예천군	472		0.0
경상북도	울릉군	84		0.0
경상북도	울진군	481		0.0
경상북도	의성군	433		0.0
경상북도	청도군	366		0.0
경상북도	청송군	253	54	21.3
경상북도	칠곡군	1,162	82	7.1
소계		9,464	240	2.5
대구광역시	군위군	160		0.0
소계		160	0	0.0
인천광역시	강화군	679		0.0
인천광역시	옹진군	215		0.0
소계		894	0	0.0
전라남도	강진군	425	48	11.3
전라남도	고흥군	552		0.0
전라남도	곡성군	285	1	0.4
전라남도	구례군	272	1	0.4
전라남도	나주시	1,411		0.0
전라남도	담양군	464		0.0
전라남도	무안군	980	1	0.1
전라남도	보성군	482	34	7.1
전라남도	신안군	443	38	8.6
전라남도	영광군	558	1	0.2
전라남도	영암군	598		0.0
전라남도	완도군	585		0.0
전라남도	장성군	460		0.0
전라남도	장흥군	395	1	0.3
전라남도	진도군	331	16	4.8
전라남도	함평군	365		0.0
전라남도	해남군	628	75	11.9
전라남도	화순군	637	24	3.8
소계		9,871	240	2.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673		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956		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921		0.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07		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617		0.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374		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1,095	86	7.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315		0.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300		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220		0.0

지역1	지역2	교사 표본	응답 인원	표본 대비 응답률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364	1	0.3
소계		7,142	87	1.2
충청남도	계룡시	495	3	0.6
충청남도	공주시	1,186	60	5.1
충청남도	금산군	532	17	3.2
충청남도	논산시	1,338	52	3.9
충청남도	보령시	942	107	11.4
충청남도	부여군	649	76	11.7
충청남도	서천군	592		0.0
충청남도	예산군	880		0.0
충청남도	청양군	305	26	8.5
충청남도	태안군	562	33	5.9
충청남도	홍성군	1,058		0.0
소계		8,539	374	4.4
충청북도	괴산군	334		0.0
충청북도	단양군	275	40	14.5
충청북도	보은군	350		0.0
충청북도	영동군	411		0.0
충청북도	옥천군	435		0.0
충청북도	음성군	890		0.0
충청북도	제천시	1,073		0.0
충청북도	증평군	364		0.0
충청북도	진천군	983	63	6.4
소계		5,115	103	2.0
총계	99개	58,608	1,215	2.1

2) 학교여건 및 현황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 다음과 같음.
- 교실 냉난방(4.49), 급식 시설(4.31), 도서관(4.17) 등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
 - 멀티미디어 기기 및 보건·체육 시설 등 대다수 항목이 4.0점을 상회하며, 농어촌 학교의 물리적 여건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시사함.
 - 직원 복지 시설(3.08)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표준편차(1.25) 또한 가장 커서 학교별·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냉난방, 도서관, 급식 등)에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교직원 전용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4-90〉 학교 교육 시설 만족도(교사)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	1.8	4.00(1.01)
	별로 그렇지 않다	93	7.7	
	보통이다	206	17.0	
	대체로 그렇다	441	36.3	
	매우 그렇다	453	37.3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2) 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1.6	4.17(0.91)
	별로 그렇지 않다	40	3.3	
	보통이다	182	15.0	
	대체로 그렇다	446	36.7	
	매우 그렇다	527	43.4	
	전체	1215	100.0	
3) 교실의 냉난방시설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0.6	4.49(0.77)
	별로 그렇지 않다	25	2.1	
	보통이다	93	7.7	
	대체로 그렇다	334	27.5	
	매우 그렇다	756	62.2	
	전체	1215	100.0	
4)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체육관, 강당, 운동기구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4	2.8	4.06(1.04)
	별로 그렇지 않다	86	7.1	
	보통이다	163	13.4	
	대체로 그렇다	428	35.2	
	매우 그렇다	504	41.5	
	전체	1215	100.0	
5) 보건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	2.4	4.15(1.00)
	별로 그렇지 않다	66	5.4	
	보통이다	163	13.4	
	대체로 그렇다	393	32.3	
	매우 그렇다	564	46.4	
	전체	1215	100.0	
6) 급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0.7	4.31(0.85)
	별로 그렇지 않다	38	3.1	
	보통이다	137	11.3	
	대체로 그렇다	412	33.9	
	매우 그렇다	619	50.9	
	전체	1215	100.0	
7) 교직원 복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7	12.9	3.08(1.25)
	별로 그렇지 않다	239	19.7	
	보통이다	352	29.0	
	대체로 그렇다	278	22.9	
	매우 그렇다	189	15.6	
	전체	1215	100.0	
8) 시설 여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	4.4	3.71(1.09)
	별로 그렇지 않다	116	9.5	
	보통이다	275	22.6	
	대체로 그렇다	458	37.7	
	매우 그렇다	312	25.7	
	전체	1215	100.0	

□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교의 심리적·문화적 환경(학교 풍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4.47)와 학생 상호 간의 관계(4.33)가 최상위권을 기록하여, 학교가 매우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줌.

- 교사-학생 관계에 대해 9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이는 앞서 확인된 '저경력 교사 중심의 구성'이 학생들과의 친밀한 소통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학생들 간의 관계(4.33)도 매우 좋아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풍토임.
- 학교의 학부모 소통 노력(4.33)과 학부모의 교사 신뢰(4.02) 모두 4점대를 상회하며, 학교와 가정 간의 파트너십이 견고함.
- 생활지도(4.21)와 진학지도(4.25)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함.
- 특히 소통 노력(4.33)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폐쇄적인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음.
- 모든 문항 중 학업에 대한 강조(3.67)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생활지도나 관계 중심의 풍토에 비해 학업 성취에 대한 드라이브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학업 성취 분위기 (3.67), '학업에 대해 강조한다'는 문항은 유일하게 3점대를 기록함.
- 이는 농어촌 학교가 '돌봄과 관계'에는 강점이 있으나, 도시 지역 학교에 비해 '성적 및 경쟁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완만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표 4-91〉 학교 풍토(교사)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0.7	4.21(0.84)
	별로 그렇지 않다	46	3.8	
	보통이다	139	11.4	
	대체로 그렇다	509	41.9	
	매우 그렇다	513	42.2	
	전체	1215	100.0	
2)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해 강조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6	3.0	3.67(0.99)
	별로 그렇지 않다	109	9.0	
	보통이다	322	26.5	
	대체로 그렇다	501	41.2	
	매우 그렇다	247	20.3	
	전체	1215	100.0	
3)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0.6	4.02(0.80)
	별로 그렇지 않다	32	2.6	
	보통이다	241	19.8	
	대체로 그렇다	583	48.0	
	매우 그렇다	352	29.0	
	전체	1215	100.0	
4) 지역 주민의 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	1.2	3.97(0.88)
	별로 그렇지 않다	49	4.0	
	보통이다	265	21.8	
	대체로 그렇다	524	43.1	
	매우 그렇다	363	29.9	
	전체	1215	100.0	
5) 학교는 학부모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0.5	4.33(0.74)
	별로 그렇지 않다	16	1.3	
	보통이다	118	9.7	
	대체로 그렇다	512	42.1	
	매우 그렇다	563	46.3	
	전체	1215	100.0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6) 상급학교 진학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0.3	4.25(0.76)
	별로 그렇지 않다	19	1.6	
	보통이다	157	12.9	
	대체로 그렇다	523	43.0	
	매우 그렇다	512	42.1	
	전체	1215	100.0	
7)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2	4.33(0.71)
	별로 그렇지 않다	12	1.0	
	보통이다	116	9.5	
	대체로 그렇다	538	44.3	
	매우 그렇다	546	44.9	
	전체	1215	100.0	
8)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2	4.47(0.64)
	별로 그렇지 않다	7	0.6	
	보통이다	63	5.2	
	대체로 그렇다	495	40.7	
	매우 그렇다	648	53.3	
	전체	1215	100.0	

□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교 외부 환경 및 지원 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앞서 학부모들이 느꼈던 '지역 인프라 결핍'에 대해 교사들 또한 동일하게, 혹은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 교육청(3.68)과 지자체(3.51)의 지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공적 자금이나 정책적 뒷받침은 원활한 편임.
- 교육청 지원(3.68)이 가장 높고 지자체(3.51)가 뒤를 이음. 이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음을 의미함.
- 지역 주민의 협조(3.28) 또한 보통 수준 이상으로, 학교와 마을 간의 관계는 우호적임.
- 문화시설(2.25), 사교육 기회(2.56), 도서관/공부방(2.59) 순으로 만족도가 낮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교 밖에서 누릴 수 있는 자원이 극히 제한적임.
- 방과후 학교 강사 확보(2.92) 또한 3점 미만을 기록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외부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학교 밖 교육 기회(2.56)가 부족하여 모든 교육적 부담이 학교로 집중됨.
- 강사 수급(2.92)의 어려움은 교사들이 직접 방과후 수업을 맡아야 하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4-92〉 학교 주변환경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 만족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원, 과외 등 학교 밖에서의 교육 기회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8	22.1	2.56(1.20)
	별로 그렇지 않다	375	30.9	
	보통이다	286	23.5	
	대체로 그렇다	198	16.3	
	매우 그렇다	88	7.2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2) 보건소, 병원 및 의료시설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8	17.9	2.67(1.18)
	별로 그렇지 않다	369	30.4	
	보통이다	321	26.4	
	대체로 그렇다	215	17.7	
	매우 그렇다	92	7.6	
	전체	1215	100.0	
3) 체육시설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8	14.7	2.82(1.19)
	별로 그렇지 않다	333	27.4	
	보통이다	343	28.2	
	대체로 그렇다	246	20.2	
	매우 그렇다	115	9.5	
	전체	1215	100.0	
4) 문화시설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396	32.6	2.25(1.16)
	별로 그렇지 않다	363	29.9	
	보통이다	277	22.8	
	대체로 그렇다	113	9.3	
	매우 그렇다	66	5.4	
	전체	1215	100.0	
5) 도서관, 공부방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4	21.7	2.59(1.20)
	별로 그렇지 않다	344	28.3	
	보통이다	320	26.3	
	대체로 그렇다	196	16.1	
	매우 그렇다	91	7.5	
	전체	1215	100.0	
6) 방과후 학교 강사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3	14.2	2.92(1.22)
	별로 그렇지 않다	303	24.9	
	보통이다	330	27.2	
	대체로 그렇다	271	22.3	
	매우 그렇다	138	11.4	
	전체	1215	100.0	
7) 지역 주민의 협조와 지원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59	4.9	3.28(1.01)
	별로 그렇지 않다	184	15.1	
	보통이다	466	38.4	
	대체로 그렇다	370	30.5	
	매우 그렇다	136	11.2	
	전체	1215	100.0	
8) 교육청의 지원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2.1	3.68(0.92)
	별로 그렇지 않다	84	6.9	
	보통이다	365	30.0	
	대체로 그렇다	521	42.9	
	매우 그렇다	220	18.1	
	전체	1215	100.0	
9)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34	2.8	3.51(0.96)
	별로 그렇지 않다	128	10.5	
	보통이다	416	34.2	
	대체로 그렇다	463	38.1	
	매우 그렇다	174	14.3	
	전체	1215	100.0	
10) 지역사회단체나 기업의 지원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9	9.8	3.07(1.11)
	별로 그렇지 않다	218	17.9	
	보통이다	464	38.2	
	대체로 그렇다	286	23.5	
	매우 그렇다	128	10.5	
	전체	1215	100.0	

3) 학교 교육활동

□ 교사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질과 열의에 관한 분석 결과임

- 교사의 열의(4.47)와 학업 관심도(4.37)가 최상위권을 기록하여,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큰 동력이 '교사의 헌신'임을 입증함.
 - '열의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문항에 93.6%가 긍정적으로 답함. 이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2.25점)에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의 본질인 '가르침'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함.
- 발표와 질문 기회 제공(4.35)이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참여형 수업이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4.06)과 학습 도움(4.01) 모두 4점대를 유지함. 사교육이 전무한 지역적 한계를 방과후 학교가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다고 평가함.
- AI, 코딩 등 미래 기술 관련 교육(3.84)은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이는 인프라나 강사 수급 등 외부 환경의 제약이 교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유일하게 3점대를 기록한 항목임. 학부모들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력히 희망(4.03점)하는 것과 달리, 교사들은 현장에서의 제공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느낌.

〈표 4-93〉 학교 교수학습 활동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교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2	4.47(0.66)
	별로 그렇지 않다	11	0.9	
	보통이다	63	5.2	
	대체로 그렇다	473	38.9	
	매우 그렇다	665	54.7	
	전체	1215	100.0	
2)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에 관심이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0.3	4.37(0.74)
	별로 그렇지 않다	21	1.7	
	보통이다	109	9.0	
	대체로 그렇다	474	39.0	
	매우 그렇다	607	50.0	
	전체	1215	100.0	
3)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와 질문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0.5	4.35(0.75)
	별로 그렇지 않다	16	1.3	
	보통이다	123	10.1	
	대체로 그렇다	477	39.3	
	매우 그렇다	593	48.8	
	전체	1215	100.0	
4) 학생들에게 견학, 음악회,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0.7	4.18(0.92)
	별로 그렇지 않다	62	5.1	
	보통이다	188	15.5	
	대체로 그렇다	393	32.3	
	매우 그렇다	563	46.3	
	전체	1215	100.0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5) 우리 학교는 AI,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관련 교육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	1.9	3.84(1.01)
	별로 그렇지 않다	99	8.1	
	보통이다	294	24.2	
	대체로 그렇다	435	35.8	
	매우 그렇다	364	30.0	
	전체	1215	100.0	
6)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	1.9	4.06(0.94)
	별로 그렇지 않다	59	4.9	
	보통이다	189	15.6	
	대체로 그렇다	490	40.3	
	매우 그렇다	454	37.4	
	전체	1215	100.0	
7)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1.3	4.01(0.90)
	별로 그렇지 않다	52	4.3	
	보통이다	230	18.9	
	대체로 그렇다	522	43.0	
	매우 그렇다	395	32.5	
	전체	1215	100.0	

□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느끼는 실질적인 저해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임. 분석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외부 요인보다 교사 내부의 행정적 부담과 학생 간 실력 차이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내부적 요인으로 업무 및 지도 부담 (3.44 ~ 3.94), 학습적 수준차 및 태도(3.11~3.66)로 나타남

- 행정 업무(3.94): 10명 중 7명 가까운 교사가 행정 일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응답함
- 학생 지도 부담(3.44): 수업 외적인 생활지도 등이 수업 준비나 진행에 부담을 느낌
- 수준 차이(3.66): 한 교실 안에서 상·하위권 학생을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수업 설계'의 어려움을 보임
- 학생 산만함(3.29) 및 과제 미이행(3.11): 기초적인 학습 태도 부족이 진도나 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미침

○ 외부적 요인으로 학부모 및 사교육 (2.33 ~ 3.00)으로 둘 수 있음

- 사교육(2.33): 사교육으로 인한 선행 학습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학부모 관심(2.58): 과도한 민원이나 간섭보다는 무관심이 수업 운영에 변수로 작용함.

〈표 4-94〉 교과수업 진행 저해 요인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생들의 사교육	전혀 그렇지 않다	284	23.4	2.33(1.02)
	별로 그렇지 않다	425	35.0	
	보통이다	358	29.5	
	대체로 그렇다	115	9.5	
	매우 그렇다	33	2.7	
	전체	1215	100.0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2) 학급 내 학생들의 능력 수준 차이	전혀 그렇지 않다	38	3.1	3.66(1.00)
	별로 그렇지 않다	119	9.8	
	보통이다	300	24.7	
	대체로 그렇다	515	42.4	
	매우 그렇다	243	20.0	
3) 과제물을 해 오지 않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다	95	7.8	3.11(1.08)
	별로 그렇지 않다	244	20.1	
	보통이다	433	35.6	
	대체로 그렇다	322	26.5	
	매우 그렇다	121	10.0	
4)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다	188	15.5	2.77(1.13)
	별로 그렇지 않다	302	24.9	
	보통이다	408	33.6	
	대체로 그렇다	232	19.1	
	매우 그렇다	85	7.0	
5)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전혀 그렇지 않다	28	2.3	3.94(1.03)
	별로 그렇지 않다	79	6.5	
	보통이다	272	22.4	
	대체로 그렇다	394	32.4	
	매우 그렇다	442	36.4	
6) 수업 외 학생 지도 부담	전혀 그렇지 않다	77	6.3	3.44(1.15)
	별로 그렇지 않다	170	14.0	
	보통이다	362	29.8	
	대체로 그렇다	349	28.7	
	매우 그렇다	257	21.2	
7) 진도에 대한 부담	전혀 그렇지 않다	104	8.6	3.12(1.11)
	별로 그렇지 않다	231	19.0	
	보통이다	439	36.1	
	대체로 그렇다	301	24.8	
	매우 그렇다	140	11.5	
8) 수업 중 학생들의 산만함	전혀 그렇지 않다	80	6.6	3.29(1.13)
	별로 그렇지 않다	219	18.0	
	보통이다	381	31.4	
	대체로 그렇다	341	28.1	
	매우 그렇다	194	16.0	
9) 학교 행사로 인한 수업 시간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105	8.6	3.08(1.13)
	별로 그렇지 않다	269	22.1	
	보통이다	417	34.3	
	대체로 그렇다	275	22.6	
	매우 그렇다	149	12.3	
10)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196	16.1	2.58(1.04)
	별로 그렇지 않다	364	30.0	
	보통이다	475	39.1	
	대체로 그렇다	116	9.5	
	매우 그렇다	64	5.3	
11) 학부모의 지나친 무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114	9.4	3.00(1.05)
	별로 그렇지 않다	230	18.9	
	보통이다	509	41.9	
	대체로 그렇다	264	21.7	
	매우 그렇다	98	8.1	

□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는 상담 활동의 빈도 및 유형 분석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학업)보다는 인성 및 생활지도를 위한 소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태도 관련 개인 상담을 주 1회 이상 수행하는 비율이 50.8%로 높음
- 학습 관련 상담을 주 1회 이상 하는 비율(36.0%)은 생활 상담보다 현저히 낮아, 일상적인 지도보다는 정기적인 상담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학부모 상담은 주로 '1학기 1~2번'에 집중되어 있어, 공식적인 학부모 상담 주간을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부모와의 학업 상담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11.2%)이 문항 중 가장 높음.

〈표 4-95〉 학생 상담 유형 및 빈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1) 학습·진로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상담을 한다	거의 매일	153	12.6
	1주일 1~2번	284	23.4
	1달 1~2번	363	29.9
	1학기 1~2번	296	24.4
	1년 1~2번	77	6.3
	거의 하지 않음	42	3.5
	전체	1215	100.0
2) 생활이나 태도와 관련하여 개인 상담을 한다	거의 매일	303	24.9
	1주일 1~2번	315	25.9
	1달 1~2번	352	29.0
	1학기 1~2번	167	13.7
	1년 1~2번	53	4.4
	거의 하지 않음	25	2.1
	전체	1215	100.0
3) 학생의 학업·진로와 관련하여 학부모 상담을 한다	거의 매일	60	4.9
	1주일 1~2번	115	9.5
	1달 1~2번	269	22.1
	1학기 1~2번	420	34.6
	1년 1~2번	215	17.7
	거의 하지 않음	136	11.2
	전체	1215	100.0
4)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상담을 한다	거의 매일	67	5.5
	1주일 1~2번	140	11.5
	1달 1~2번	344	28.3
	1학기 1~2번	373	30.7
	1년 1~2번	168	13.8
	거의 하지 않음	123	10.1
	전체	1215	100.0

□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과 나누는 상담의 실질적인 고민 주제에 대한 1, 2순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농어촌 학교 상담의 핵심 키워드는 '관계(친구)'와 '미래(진로·성적)'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많은 상담 조합은 친구 문제와 성적 문제(14.6%)으로 나타남. 이는 학생들이 정서

적 교우 관계와 현실적인 학업 고민을 동시에 교사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친구 관계와 가정 배경을 주제로 한 상담도 상위권에 포진하여, 교사가 학생의 일상 전반을 케어하는 정서적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4-96〉 학생상담의 실질적 고민 주제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친구(이성) 문제, 성적(공부) 문제	177	14.6
진로, 진학 문제, 성적(공부) 문제	163	13.4
진로, 진학 문제, 친구(이성) 문제	108	8.9
친구(이성) 문제,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93	7.7
성적(공부) 문제, 진로, 진학 문제	82	6.7
친구(이성) 문제	76	6.3
친구(이성) 문제, 진로, 진학 문제	68	5.6
진로, 진학 문제,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59	4.9
성적(공부) 문제, 친구(이성) 문제	53	4.4
진로, 진학 문제	51	4.2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친구(이성) 문제	40	3.3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성적(공부) 문제	37	3.0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진로, 진학 문제	31	2.6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24	2.0
성적(공부) 문제	14	1.2
성적(공부) 문제,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14	1.2
기타(10건 미만인 경우)	125	10.3
전체	1215	100.0

□ 교사들의 실제 수업 시수(정규 수업 및 방과후 수업) 응답 결과 다음과 같음.

- 교사 10명 중 약 9명(88.5%)이 주당 10시간 이상의 정규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20시간 이상 과밀 시수를 가진 교사도 32.0%에 달해 수업 부담이 상당함
- 응답자의 62.2%가 방과후 수업을 직접 지도하고 있음.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의 특성상, 교사들이 정규 수업 종료 후에도 교육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

〈표 4-97〉 주당 평균 수업 시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주당 평균 수업 시수	0시간	49	4.0
	10시간 미만	91	7.5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686	56.5
	20시간 이상	389	32.0
주당 방과후 수업 시수	0시간	458	37.7
	5시간 미만	684	56.5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0	4.9
	10시간 이상	10	0.8

4) 교육결과

□ 학교급별 수업 내용 이해도 분석 결과, 수업 내용을 80% 이상 이해하는 학생 비중이 초등학교(26.4%)에서 고등학교(10.0%)로 갈수록 크게 감소함.

□ 학교급별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는 학생 10명 중 7명 이상(74.4%)이 수업 내용의 60% 이상을 이해하고 있음.
- 중학교는 60% 이상 이해하는 비율이 51.2%로 떨어지며 절반 수준임. 40~59% 이해층(36.6%)이 두터워지며 학력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함.
- 고등학교는 수업 내용의 4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7%로 높음. 특히 60% 이상 이해하는 비율이 38.9%에 불과해, 교사들이 교과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해석됨

〈표 4-98〉 학교급별 수업 내용 이해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전체	0~19%	17	1.4
	20~39%	121	10.0
	40~59%	379	31.2
	60~79%	494	40.7
	80~100%	204	16.8
	전체	1215	100.0
초등학교	0~19%	2	0.4
	20~39%	19	4.0
	40~59%	102	21.2
	60~79%	231	48.0
	80~100%	127	26.4
	전체	481	100.0
중학교	0~19%	6	1.4
	20~39%	48	10.8
	40~59%	162	36.6
	60~79%	179	40.4
	80~100%	48	10.8
	전체	443	100.0
고등학교	0~19%	9	3.1
	20~39%	54	18.6
	40~59%	115	39.5
	60~79%	84	28.9
	80~100%	29	10.0
	전체	291	100.0

□ 교사가 스스로 평가하는 학생 개인별 특성 및 수준 파악 정도임.

- 교사의 87.1%가 학생의 수준이나 특성을 60% 이상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함. 특히 80~100%를 파악한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7%로 나타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최대 강점인 '개별화 지도'의 기반이 가능함을 보여줌

-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급감하는 현실(고교 기준 80% 이상 이해 10%)과는 별개로, 교사는 "아이가 왜 못 따라오는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4-99〉 학생 개인별 특성 및 수준 파악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0~19%	1	0.1
20~39%	21	1.7
40~59%	135	11.1
60~79%	479	39.4
80~100%	579	47.7
전체	1215	100.0

-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비행 행동의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농어촌 학교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비행보다는 교실 내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미한 생활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모든 비행 항목의 평균이 2.0 미만(1.18~1.77)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비행 수준을 '경미함' 이하로 인식하고 있음
- 심각한 범죄형 비행보다는 교실 소란(1.77)과 지각·결석(1.59) 등 학습 태도와 직결된 생활지도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심각도를 보임.
 - 교실 소란 행위에 대해 '다소/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교사는 17.1%로, 수업 집중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지각·결석 등 근태 문제 역시 13.3%가 심각하다고 인지함
- 교직원 대상 폭력(1.37)이나 시험 부정행위(1.18)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학교 내의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음.

〈표 4-100〉 생활지도 및 비행 행동의 심각성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자각/결석 등	없거나 매우 경미함	696	57.3	1.59(0.80)
	경미한 문제	358	29.5	
	다소 심각한 문제	121	10.0	
	매우 심각한 문제	40	3.3	
	전체	1215	100.0	
2) 교실 소란 행위	없거나 매우 경미함	546	44.9	1.77(0.84)
	경미한 문제	461	37.9	
	다소 심각한 문제	154	12.7	
	매우 심각한 문제	54	4.4	
	전체	1215	100.0	
3) 시험 부정 행위	없거나 매우 경미함	1093	90.0	1.18(0.60)
	경미한 문제	69	5.7	
	다소 심각한 문제	14	1.2	
	매우 심각한 문제	39	3.2	
	전체	1215	100.0	
4)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없거나 매우 경미함	1021	84.0	1.25(0.67)
	경미한 문제	124	10.2	
	다소 심각한 문제	28	2.3	
	매우 심각한 문제	42	3.5	
	전체	1215	100.0	
5) 다른 학생에 대한 협박과 모욕, 폭력	없거나 매우 경미함	762	62.7	1.56(0.84)
	경미한 문제	291	24.0	
	다소 심각한 문제	102	8.4	
	매우 심각한 문제	60	4.9	
	전체	1215	100.0	
6) 교직원에 대한 협박과 모욕, 폭력	없거나 매우 경미함	927	76.3	1.37(0.76)
	경미한 문제	183	15.1	
	다소 심각한 문제	53	4.4	
	매우 심각한 문제	52	4.3	
	전체	1215	100.0	
7) 흡연/담배 소지	없거나 매우 경미함	909	74.8	1.38(0.76)
	경미한 문제	187	15.4	
	다소 심각한 문제	77	6.3	
	매우 심각한 문제	42	3.5	
	전체	1215	100.0	
8) 음주/술 소지	없거나 매우 경미함	1023	84.2	1.24(0.64)
	경미한 문제	123	10.1	
	다소 심각한 문제	35	2.9	
	매우 심각한 문제	34	2.8	
	전체	1215	100.0	
9) 기타 비행	없거나 매우 경미함	949	78.1	1.31(0.67)
	경미한 문제	187	15.4	
	다소 심각한 문제	48	4.0	
	매우 심각한 문제	31	2.6	
	전체	1215	100.0	

□ 교사 직무 만족도 및 교직 생활 자아존중감 분석 결과 높은 교육적 효능감을 보이며 학교 생활 전반에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교육적 경험에 대한 만족도(4.00)를 보이며 '만족' 이상의 응답이 74.9%로 나타남.
- 자기 발전 및 전문성 성장(3.98), 금지 및 자부 (3.93) 높게 나타남. 농어촌 학교에서의 근무가 자신의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금지를 느끼고 있음
- 반면, 일상의 기대감 (3.80)은 모든 문항 중 가장 낮음. 이는 높은 만족도와는 별개로, 과도한 행정 업무나 반복되는 일상, 정주 여건의 불편함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표 4-101〉 직무 만족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나는 현 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맞는다	매우 불만족한다	33	2.7	3.80(0.97)
	불만족한다	67	5.5	
	보통이다	316	26.0	
	만족한다	487	40.1	
	매우 만족한다	312	25.7	
	전체	1215	100.0	
2) 나는 현 학교에서 좋은 교육적 경험을 했다	매우 불만족한다	21	1.7	4.00(0.90)
	불만족한다	38	3.1	
	보통이다	246	20.2	
	만족한다	521	42.9	
	매우 만족한다	389	32.0	
	전체	1215	100.0	
3) 나는 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에 금지를 느낀다	매우 불만족한다	26	2.1	3.93(0.97)
	불만족한다	59	4.9	
	보통이다	281	23.1	
	만족한다	461	37.9	
	매우 만족한다	388	31.9	
	전체	1215	100.0	
4) 현 학교에서의 교직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매우 불만족한다	25	2.1	3.98(0.94)
	불만족한다	44	3.6	
	보통이다	266	21.9	
	만족한다	477	39.3	
	매우 만족한다	403	33.2	
	전체	1215	100.0	
5) 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27	2.2	3.97(0.95)
	불만족한다	56	4.6	
	보통이다	244	20.1	
	만족한다	493	40.6	
	매우 만족한다	395	32.5	
	전체	1215	100.0	

□ 교사 효능감 및 교수 활동 자가 진단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음

- 수업 설계 전문성 최상위 (4.22): 교육 내용에 적합한 수업을 구성하는 설계 능력에 대해 교사들의 자부심이 가장 높음
- 관계 중심의 지도 역량: 학생의 흥미 유발(4.13)과 갈등 해결(4.08) 등 정서적 영역에서도 높은 효능감을 보임
- 디지털 격차 해소의 과제 (3.79): 디지털 도구 활용 역량은 모든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102〉 교사 효능감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나는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2	4.13(0.71)
	그렇지 않다	20	1.6	
	보통이다	164	13.5	
	그렇다	658	54.2	
	매우 그렇다	371	30.5	
	전체	1215	100.0	
2) 나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2	4.22(0.67)
	그렇지 않다	8	0.7	
	보통이다	126	10.4	
	그렇다	659	54.2	
	매우 그렇다	419	34.5	
	전체	1215	100.0	
3) 나는 학생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2	4.08(0.76)
	그렇지 않다	26	2.1	
	보통이다	214	17.6	
	그렇다	604	49.7	
	매우 그렇다	368	30.3	
	전체	1215	100.0	
4) 나는 학급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0.5	3.99(0.83)
	그렇지 않다	44	3.6	
	보통이다	254	20.9	
	그렇다	568	46.7	
	매우 그렇다	343	28.2	
	전체	1215	100.0	
5) 나는 교과 간 융합 수업에 자신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0.8	3.91(0.87)
	그렇지 않다	52	4.3	
	보통이다	305	25.1	
	그렇다	519	42.7	
	매우 그렇다	329	27.1	
	전체	1215	100.0	
6) 나는 수업 시간에 디지털 도구(AI 도구, 태블릿, 학습 플랫폼 등)를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	1.4	3.79(0.94)
	그렇지 않다	78	6.4	
	보통이다	361	29.7	
	그렇다	449	37.0	
	매우 그렇다	310	25.5	
	전체	1215	100.0	

5)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주된 거주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교사의 45.3%(551명)가 학교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통근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학교 소재 시군 내 거주(39.8%)와 사택 거주(14.9%)로 교사의 절반 이상은 지역 내에 상주하고 있음(54.7%).
- 사택 거주 비율이 14.9%로 낮음

□ 타 지역 거주 사유(타 지역 거주자 551명 대상) 분석 결과,

- ‘원래 통근 가능한 거리 거주’ 응답(66.1%)이 가장 높음
- 자녀 교육(12.3%) 및 배우자 직장(10.3%) 등 가족의 생활 기반이 도시 지역에 있어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 생활 영위의 어려움 등 생활 환경의 불만족(7.4%)이 직접적인 거주지 이탈 사유로 작용함.

〈표 4-103〉 거주 실태 및 타 지역 거주 사유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주된 거주지	타 지역	551	45.3
	학교 사택	181	14.9
	학교 소재 시군 내	483	39.8
	전체	1215	100.0
타 지역 거주 사유 (타 지역 응답자)	원래부터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	364	66.1
	자녀의 교육문제	68	12.3
	배우자의 직장문제	57	10.3
	문화 생활 영위의 어려움	41	7.4
	기타	21	3.8
	전체	551	100.0

□ 교사들의 통근 수단 및 소요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통근 수단으로는 자가용이 가장 많음
 - 자가용(카풀 포함) 이용자(81.7%)가 대부분을 차지함. 이는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과 타 지역 거주(45.3%)로 인한 장거리 이동 수요가 반영된 결과임.
 - 도보 통근자는 13.7%이며, 사택 거주자(14.9%)와 유사한 비중을 보이며,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밀착형 교사 집단이 존재함.
 - 대중교통 활용 2.5%로 매우 낮음. 농어촌 지역의 노선 부족 및 긴 배차 시간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통근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통근 소요시간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30분 이내 (60.3%, 15분 이내 (36.3%) 포함)으로

높음

- 45분 이상 장거리 통근(23.1%, 1시간 이상(8.9%) 포함) 또한 높게 나타남.

〈표 4-104〉 통근 수단 및 소요 시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통근 수단	자가용(카풀 포함)	993	81.7
	대중교통	30	2.5
	도보	166	13.7
	자전거	2	0.2
	대중교통, 자가용(카풀 포함)	6	0.5
	도보, 자가용(카풀 포함)	11	0.9
	기타	7	0.6
통근 시간	15분 이내	441	36.3
	15분~30분	291	24.0
	30분~45분	202	16.6
	45분~1시간	173	14.2
	1시간~1시간 15분	75	6.2
	1시간 15분~1시간 30분	20	1.6
	1시간 30분 이상	13	1.1

□ 교사 주거 실태 및 만족도 분석 결과 전반적 주거 만족도 (3.91)로 교사의 71.7%가 만족하고 있음

○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3.93)가 가장 높음.

○ 주변 동네나 편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만족도(3.89)가 소폭 낮음. 이는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가 반영된 지표임.

〈표 4-105〉 주거환경 만족도(교사)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주택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8	3.1	3.93(1.02)
	만족하지 않는다	73	6.0	
	보통이다	224	18.4	
	만족한다	478	39.3	
	매우 만족한다	402	33.1	
	전체	1215	100.0	
2) 주거환경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45	3.7	3.89(1.05)
	만족하지 않는다	78	6.4	
	보통이다	236	19.4	
	만족한다	466	38.4	
	매우 만족한다	390	32.1	
	전체	1215	100.0	
3)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8	3.1	3.91(1.02)
	만족하지 않는다	79	6.5	
	보통이다	227	18.7	
	만족한다	483	39.8	
	매우 만족한다	388	31.9	
	전체	1215	100.0	

- 농어촌 학교 근무 동기 및 유입 경로 분석 결과 행정적 요인에 의한 유입(42.6%)이 가장 높았음
- 신규 배치(29.5%):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임용 직후 행정적 발령에 의해 농어촌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앞선 데이터에서 확인된 '저경력 교사 비율(4년 미만 81.3%)'의 직접적인 원인임.
 - 순환근무제(13.1%): 인사 관리 규정에 따른 정기 이동으로 인해 배치된 인원임
 - 지역 연고(16.6%): 고향이거나 생활 기반이 해당 지역인 교사들로,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장기 근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인력임.
 - 농어촌 근무 희망(15.5%): 농어촌 교육의 가치를 지향하거나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선호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한 집단임.
 - 생활환경 선호(9.5%):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자연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유입 됨.
 - 인센티브(5.4%): 승진 가산점(4.2%)이나 초빙(1.2%) 등 제도적 혜택을 목적으로 근무를 선택함.

〈표 4-106〉 농어촌 학교 유입 주요 경로 및 동기

응답	빈도	퍼센트
신규 배치(행정)에 의한 배치	358	29.5
고향이거나 연고 지역이어서	202	16.6
농어촌지역 근무를 희망해서	188	15.5
순환근무제에 의한 배치	159	13.1
생활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116	9.5
승진 가산점 때문에	51	4.2
초빙교사	15	1.2
기타	126	10.4
전체	1215	100.0

- 장기 근무 희망 여부 및 사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장기 근무 희망에 대한 응답 결과, 교사의 65.8%(799명)가 기간 제한 없이 장기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장기 근무 희망사유로는 다음과 같음.
 - 내재적 보람 중심(55.1%): "현재 학교 생활이 보람 있다(46.8%)"와 "아이들과 정이 들었다(8.3%)"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함. 이는 앞선 분석의 교사-학생 관계(4.47점)가 장기 근속의 가장 큰 동력임을 입증함.
 - 소규모 학교의 강점(24.9%): 학생 수가 적어 개별화 교육과 밀착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적 장점으로 인식함.
 - 제도적·연고 요인: 지역 연고(10.5%)나 승진 가산점(3.9%)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 교육의 질과 보람이 더 큰 유인책으로 작용함.

- 반면, 34.2%(416명)는 전근이나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함. 장기근무 미희망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과중한 업무 부담(14.4%): 행정 업무 부담(3.94점)이 실질적인 이탈 사유로 연결되고 있음.
 - 생활 환경 및 경험 갈증(22.2%): 주변 환경의 지루함(11.2%)과 도시 대규모 학교에 대한 경험 욕구(11.0%)가 주요 이탈 원인임.

〈표 4-107〉 농어촌 학교 장기근무 의사 및 동기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장기근무 의사	아니오	416	34.2
	예	799	65.8
'예' 응답 사유	현재 학교 생활이 보람있다고 느껴서	374	46.8
	학생이 적어서 교육하기 좋아서	199	24.9
	지역 연고가 있기 때문에	84	10.5
	아이들과 정이 들어서	66	8.3
	승진 가산점 등 행정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31	3.9
	기타	45	5.6
	전체	799	100.0
'아니오' 응답 사유	학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115	14.4
	주변 환경이 너무 무료해서	89	11.2
	도시 지역의 큰 학교에서 생활해보고 싶어서	88	11.0
	현재 학교 생활이 흥미롭지 않아서	33	4.1
	기타	90	11.3
	전체	415	100.0

□ 교사가 제안하는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우선순위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 지원(1위)이 전체의 26.9%(327명)가 선택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 이해도가 급감(고교 10.0%)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의 강력한 학력 보충 프로그램이 최우선임을 시사함.
- 인프라 및 환경 개선 수요 (34.3%)가 다음으로 높음
 -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예술 지원(18.0%): 주변 문화시설 만족도(2.25점)가 최하위였던 점을 반영하여, 학교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16.3%): 학생용 시설은 대체로 우수(4.0점 이상)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시설 사각지대 및 노후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함.
- 복지 및 행정적 지원 (25.6%) 역시 높게 나타남
 - 통학 여건 개선, 경제적 지원 확대는 각각 12.8%로 나타남
 - 학부모들이 가장 원했던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은 교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 '가계 보조'보다 '교육 질 향상'에 더 무게를 두는 전문가적 시각을 보여줌.
-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교 통합 운영(9.4%)은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음.

〈표 4-108〉 실질적 교육 지원 정책 우선 순위(교사)

응답	빈도	퍼센트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업성취 지원	327	26.9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 활동 지원	219	18.0
낙후된 학교교육시설의 개선	198	16.3
통학버스 등 통학 여건의 개선	156	12.8
장학금,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	155	12.8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교 통합	114	9.4
기타	46	3.8

□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 인센티브 방안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음.

○ 행정업무 경감 및 경제적 보상 (평균 4.23~4.50)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남

- 행정업무 부담 경감(4.50):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필요성을 기록함. 65%의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근무수당 확대·인상(4.23): 농어촌 근무의 특수성과 타 지역 통근 비용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 요구가 매우 높음.

○ 정주 여건 및 인사 제도 개선(평균 3.81~4.05)

- 주택지원 확대(4.05): 앞서 낮은 사택 거주율(14.9%)과 낮은 복지 시설 만족도(3.08점)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임.
- 승진·전보 가산점 확대(3.87) 및 근무연한 확대(3.81):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유인책이나, 행정 업무 경감이나 수당 인상보다는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음.

○ 교사의 내적 동기와 전문성 (평균 3.75~4.05)

- 자발적 열의의 중요성(4.05): 외적 보상만큼이나 교사 스스로의 사명감과 열의를 고취할 수 있는 학교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연수 기회 우선 부여(3.75):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른 현실적인 보상안에 비해서는 후순위로 밀림.

○ 교장공모·초빙교원제 확대(3.08) 필요성에 대해 '보통' 수준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정 인사 제도 확대를 우수 교원 확보의 핵심 해결책으로 보지는 않음.

〈표 4-109〉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 인센티브 운영 방안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교 소재 지역에 주택지원을 확대한다	전혀 필요없다	49	4.0	4.05(1.09)
	별로 필요없다	79	6.5	
	보통이다	168	13.8	
	다소 필요하다	388	31.9	
	매우 필요하다	531	43.7	
	전체	1215	100.0	
2) 교장공모·초빙교원제를 확대한다	전혀 필요없다	186	15.3	3.08(1.27)
	별로 필요없다	182	15.0	
	보통이다	382	31.4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다소 필요하다	278	22.9	
	매우 필요하다	187	15.4	
	전체	1215	100.0	
3) 승진·전보 가산점을 확대한다	전혀 필요없다	53	4.4	3.87(1.09)
	별로 필요없다	83	6.8	
	보통이다	242	19.9	
	다소 필요하다	423	34.8	
	매우 필요하다	414	34.1	
	전체	1215	100.0	
4) 지역 내 계속근무연한을 확대한다	전혀 필요없다	58	4.8	3.81(1.12)
	별로 필요없다	93	7.7	
	보통이다	266	21.9	
	다소 필요하다	403	33.2	
	매우 필요하다	395	32.5	
	전체	1215	100.0	
5) 근무수당을 확대·인상한다	전혀 필요없다	27	2.2	4.23(0.95)
	별로 필요없다	33	2.7	
	보통이다	177	14.6	
	다소 필요하다	373	30.7	
	매우 필요하다	605	49.8	
	전체	1215	100.0	
6)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전혀 필요없다	11	0.9	4.50(0.80)
	별로 필요없다	20	1.6	
	보통이다	108	8.9	
	다소 필요하다	286	23.5	
	매우 필요하다	790	65.0	
	전체	1215	100.0	
7) 우선적으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혀 필요없다	44	3.6	3.75(1.07)
	별로 필요없다	86	7.1	
	보통이다	358	29.5	
	다소 필요하다	364	30.0	
	매우 필요하다	363	29.9	
	전체	1215	100.0	
8) 교사의 자발적 열의가 중요하다	전혀 필요없다	31	2.6	4.05(1.00)
	별로 필요없다	46	3.8	
	보통이다	249	20.5	
	다소 필요하다	393	32.3	
	매우 필요하다	496	40.8	
	전체	1215	100.0	

□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음.

- 반대 (73.0%):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통폐합에 반대함. 이는 소규모 학교가 가진 교육적 집중도(교육의 질)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전문가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임.
- 소규모 교육의 가치(41.9%): "학생 수가 적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 1위임. 이는 교사-학생 간 높은 파악도(87.1%)와 밀착 지도가 소규모 학교에서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보여줌.
- 현 체제 유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37.4%): 근무 환경(18.5%), 진로지도(11.8%), 시설

(6.1%) 측면에서 통폐합을 한다 해도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함.

- 실무적 안정성(4.4%): 현재의 통근 여건에 큰 불만이 없어 변화에 소극적인 측면도 존재함.
- 찬성 (27.0%): 찬성하는 교사들은 국가적 차원의 운영 효율성과 본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음.
- 운영 효율성 중시(37.8%):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생 수 대비 학교가 너무 많은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행정적 관점의 응답임.
- 근무 환경 개선 기대(25.6%): 학교 규모가 커지면 수업 시수 및 업무 분장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현재 겪고 있는 업무 과중(장기 근무 미회망 사유 1위)이 해소될 것이라 믿음.
- 전문적 지도 환경(22.6%): 더 많은 학생과 다양한 교과 운영을 통해 진로 및 진학 지도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함.

〈표 4-110〉 학교 통폐합 찬성 의견 및 사유(교사)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통폐합 반대		887	73.0
반대 이유	학생 수가 적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72	41.9
	강의 등 근무환경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64	18.5
	학생들에 대한 진학 및 진로지도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05	11.8
	학교시설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54	6.1
	통근 여건이 만족스러워서	39	4.4
	체육 및 문화시설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9	1.0
	기타	144	16.2
통폐합 찬성		328	27.0
찬성 이유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124	37.8
	수업 시수, 업무 분장 등 근무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84	25.6
	학생들에 대한 진학 및 진로지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74	22.6
	학교시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15	4.6
	통근 여건이 불만족스러워서	5	1.5
	체육 및 문화시설이 좋을 것 같아서	5	1.5
	기타	27	6.4

□ 학교의 지역 발전 영향력 및 사회적 역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음

- 지역 소멸 방지의 핵심 축 (4.23)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81.7%의 교사가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식함
- 사회 유지의 근간 (4.23)'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8.4%로 매우 높음. 이는 앞선 학교 통폐합 반대(73.0%)의 핵심 근거로 해석되며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곧 지역의 소멸이라는 위기 의식이 매우 강함
- 다음으로, 진로 및 교육적 사명 (4.13)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에 대해 교사 스스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교육 본연의 역할).
-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4.05), 주민 통합(3.96) 역할로서 학교의 가치를 높게 평

가하고 있음

- 주민들의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3.70)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4-111〉 농어촌 학교의 지역 발전 기여도 및 사회적 역할(교사)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1)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지도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1.1	4.13(0.88)
	별로 그렇지 않다	48	4.0	
	보통이다	181	14.9	
	대체로 그렇다	495	40.7	
	매우 그렇다	478	39.3	
	전체	1215	100.0	
2) 주민들의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7	3.9	3.70(1.08)
	별로 그렇지 않다	106	8.7	
	보통이다	343	28.2	
	대체로 그렇다	385	31.7	
	매우 그렇다	334	27.5	
	전체	1215	100.0	
3)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	1.8	4.23(0.93)
	별로 그렇지 않다	42	3.5	
	보통이다	158	13.0	
	대체로 그렇다	405	33.3	
	매우 그렇다	588	48.4	
	전체	1215	100.0	
4) 주민 통합 및 화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2.6	3.96(0.99)
	별로 그렇지 않다	60	4.9	
	보통이다	250	20.6	
	대체로 그렇다	458	37.7	
	매우 그렇다	415	34.2	
	전체	1215	100.0	
5)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2.1	4.05(0.97)
	별로 그렇지 않다	57	4.7	
	보통이다	215	17.7	
	대체로 그렇다	452	37.2	
	매우 그렇다	466	38.4	
	전체	12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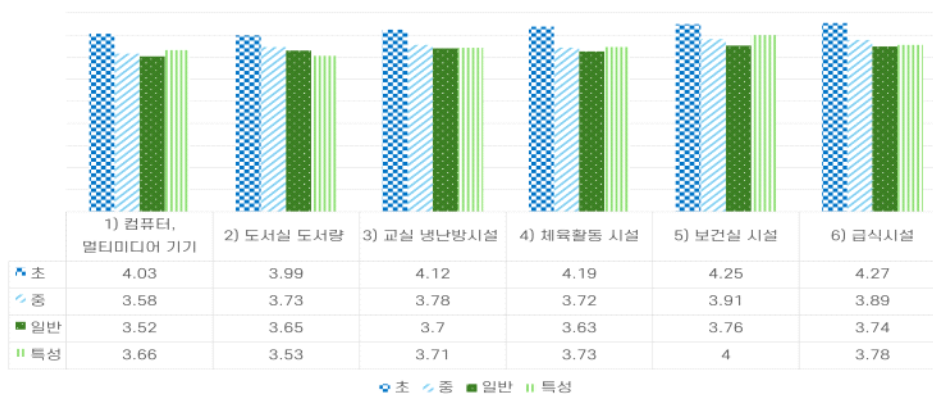
V. 학생-교사-보호자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 공통문항 비교 분석 결과

1) 교육여건 및 현황

□ 학교시설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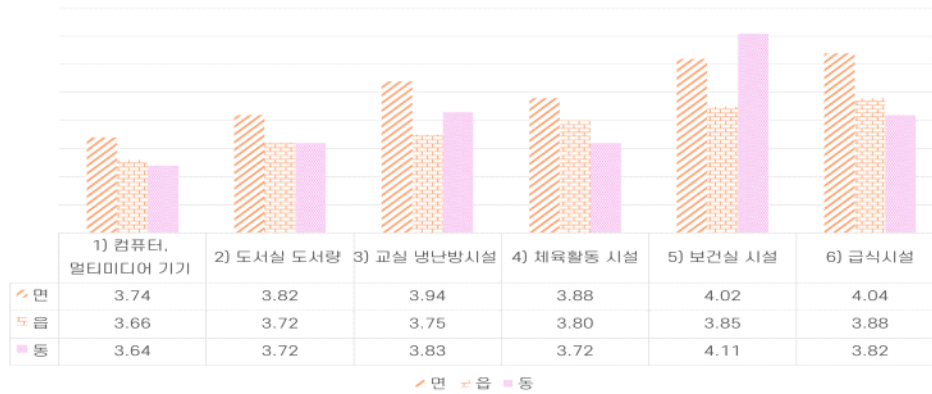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전 항목에서 높음
- 초등학교의 독보적 만족도 유지함. 모든 시설 항목에서 초등학교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급식시설(4.27)과 보건실(4.25)에서 최상위 만족도를 기록함.
- 고교 유형별 시설 체감 차이 존재함. 보건실 시설은 특성화고(4.00)가 일반고(3.76)보다 우수한 반면, 도서실 도서량은 일반고(3.65)가 특성화고(3.53)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일반고의 기술 인프라 만족도 최하위임.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기기 항목에서 일반고(3.52)가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함.
- 특성화고는 보건실(4.00)과 멀티미디어 기기(3.66)에서 일반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일반고는 컴퓨터/멀티미디어 기기(3.52) 및 체육활동 시설(3.63)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모든 시설 문항에서 학교급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p < .05$).



[그림 5- 1] 학교급별 학교시설환경 만족도

- 전체적으로 '면' 지역의 시설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동' 지역은 보건실 시설에서 높음
- '면' 지역이 급식시설(4.04), 냉난방시설(3.94), 체육활동 시설(3.88), 도서량(3.82)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동' 지역은 보건실 시설(4.11) 점수가 면(4.02)이나 읍(3.85)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 지역 학교의 보건 인프라 만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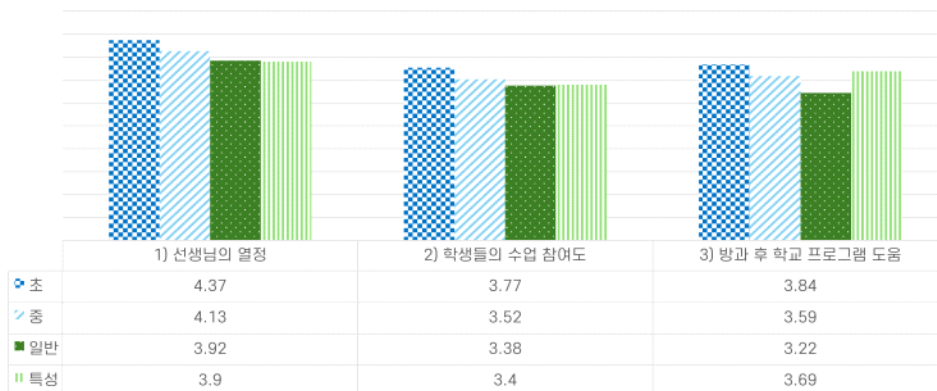
- '읍' 지역은 급식시설(3.88) 및 냉난방시설(3.75) 등 여러 항목에서 면 지역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음
- 모든 시설 문항에서 행정구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p < .05$).



[그림 5- 2] 행정구역별 학교시설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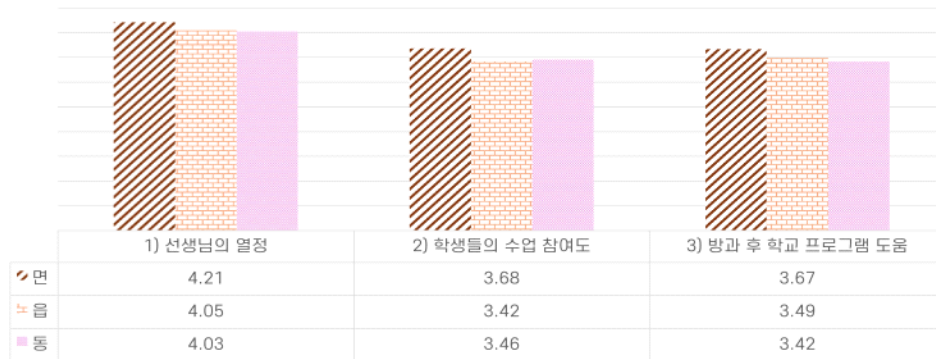
□ 학교학습 활동

- 초등학교의 교육 활동 만족도 최상위임. 모든 문항(선생님의 열정, 수업 참여도,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강함.
- 학교급 상승에 따른 전반적 하락세 관찰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선생님에 대한 인식과 학생 스스로의 참여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고교 유형별 차별화된 양상 존재함.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특성화고(3.69)가 일반고(3.2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선생님의 열정은 일반고(3.92)와 특성화고(3.90)가 유사한 수준임.
- 수업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전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 몰입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5- 3] 학교급별 학교학습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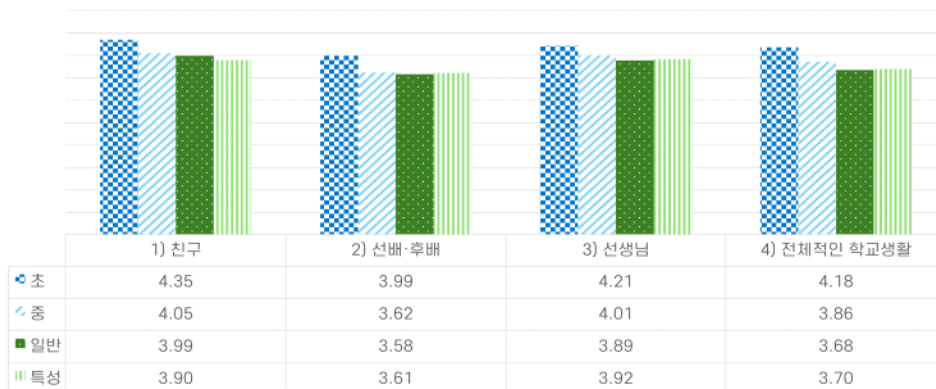
- 면 지역의 교육 활동 만족도가 압도적임. 선생님의 열정(4.21), 수업 참여도(3.68), 방과 후 프로그램(3.67) 전 항목에서 면 지역이 읍·동 지역보다 높은 평균값을 기록함.
- 읍·동 지역의 상대적 만족도 저조함. 특히 읍과 동 지역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3.42~3.46)와 방과후 프로그램(3.42~3.49)에서 면 지역에 비해 낮은 체감을 보임.
- 모든 교육 활동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 < .05$) 확인됨.



[그림 5- 4] 행정구역별 학교학습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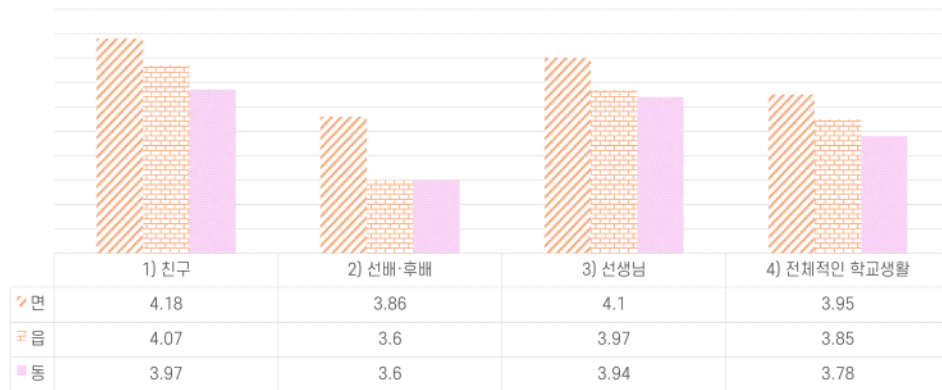
□ 학교생활

- 초등학교의 인간관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최상위임. 모든 문항(친구, 선·후배, 선생님, 학교 생활)에서 초등학교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된 양상을 보임.
- 상급 학교로 갈수록 관계 만족도 하향 곡선 그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점수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 고등학교 유형별 사제 및 교우관계 유사함. 선생님(3.89~3.92)과 선·후배(3.58~3.61) 만족도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선·후배 관계의 상대적 낮은 만족도를 보임. 전 학교급에서 선·후배 관계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형성됨
- 모든 학교생활 문항에서 학교급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 확인됨.



[그림 5- 5] 학교급별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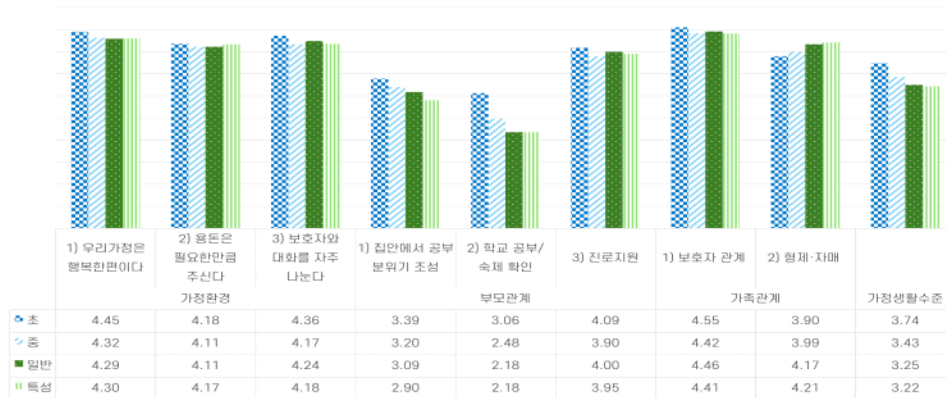
- 면 지역의 공동체 만족도 압도적임. 친구(4.18), 선·후배(3.86), 선생님(4.10), 학교생활(3.95) 전 항목에서 면 지역이 읍·동 지역보다 높은 평균값을 기록함.
- 도시(동) 지역의 상대적 관계 만족도 저조함. 특히 친구 관계(3.97)와 학교생활 만족도(3.78)에서 동 지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익명성이 강한 도시 학교의 특성 반영함.
- 읍 지역의 선·후배 관계 결속력 약함. 선·후배 관계(3.60)에서 읍 지역은 동 지역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모든 학교생활 문항에서 행정구역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 확인됨.



[그림 5- 6] 행정구역별 학교생활 만족도

2) 가정환경

- 초등학교의 가정 및 정서적 지표 최상위임. 가정 행복도(4.45), 보호자 대화(4.36), 공부 분위기 조성(3.39), 보호자 관계 만족도(4.5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유지함.
- 부모의 학습 개입은 학교급 상승에 따라 급감함. 학교 공부 및 숙제 확인 점수는 초등학교(3.06)에서 고등학교(2.18)로 갈수록 현저히 낮아지며 자녀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임.
- 특성화고의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두드러짐. 형제·자매 만족도(4.21)는 고등학교급(일반 4.17, 특성 4.21)이 초등학교(3.90)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임.
- 가정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 존재함. 초등학교(3.74)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일반 3.25, 특성 3.22)가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급별 경제적 환경 체감에 격차가 있음.
- 용돈 및 보호자와의 관계를 제외한 가정환경 문항에서 학교급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남.



[그림 5- 7] 학교급별 가정환경 만족도

- 면 지역의 학습 지원 및 형제 유대감 우세함. 공부 분위기 조성(3.25)과 형제·자매 만족도(4.12)에서 면 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평균치를 기록함.
- 동 지역의 보호자 관계 만족도 소폭 높음. 보호자 관계(4.50)와 가정생활 수준(3.47)에서 도시 지역인 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지역 간 가정환경 및 부모 대화 격차 미미함. 가정 행복도 및 보호자 대화 등 정서적 항목은 지역 규모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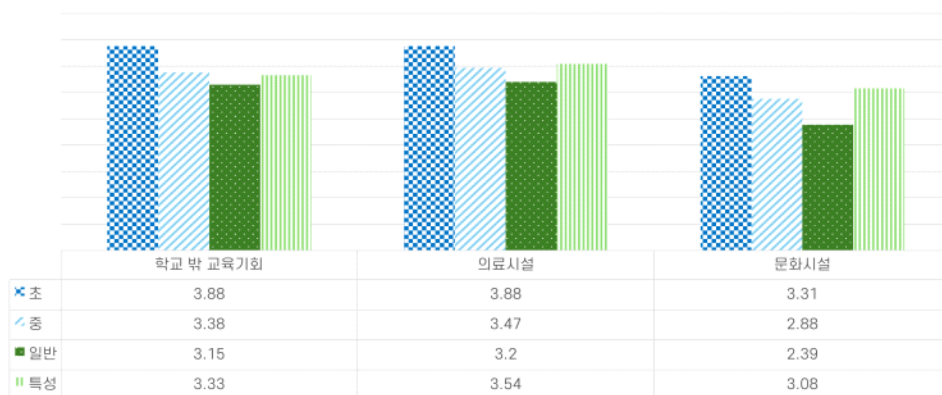


[그림 5- 8] 행정구역별 가정환경 만족도

3) 지역 및 주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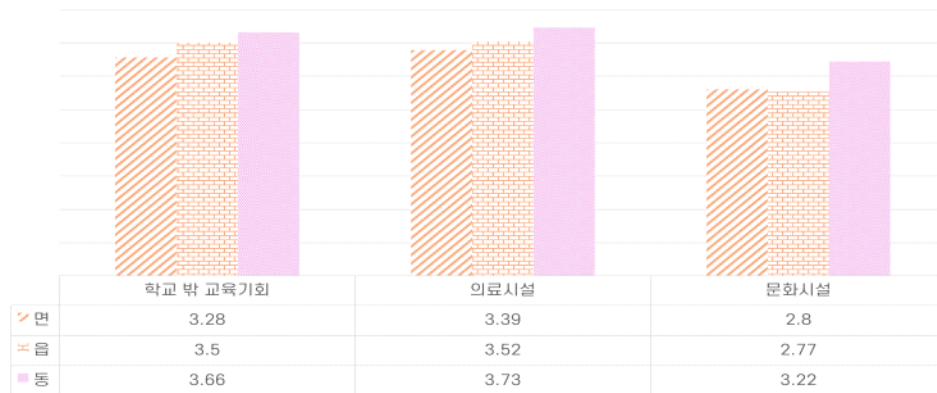
□ 학생 응답결과의 학교급별 및 행정구역별 차이

- 초등학교의 지역 인프라 만족도 독보적임. 학교 밖 교육기회(3.88), 의료시설(3.88), 문화시설(3.31) 전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며 지역 환경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함.
-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인프라 체감도 급감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록 모든 지역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 문화시설에 대한 고등학생의 낮은 만족도 확인됨. 특히 일반고(2.39)는 문화시설 항목에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청소년 문화 인프라 부족을 시사함.
- 특성화고의 의료 및 문화 인프라 인식 상대적 우수함. 특성화고는 의료시설(3.54)과 문화시설(3.08)에서 일반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고교 유형별 체감 차이를 나타냄.
- 모든 인프라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p < .05$).



[그림 5- 9] 학교급별 주변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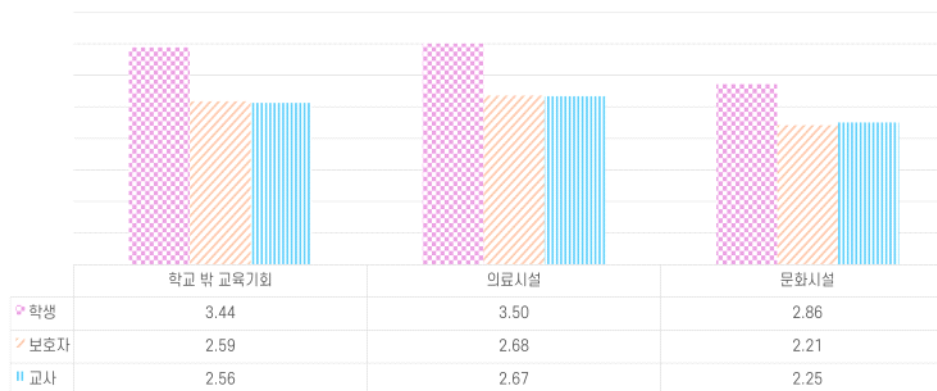
- 동(도시) 지역의 인프라 만족도가 매우 높음. 학교 밖 교육기회(3.66), 의료시설(3.73), 문화시설(3.22) 전 항목에서 동 지역이 면·읍 지역을 크게 앞서며 도시 집중 현상을 반영함.
- 면 지역의 의료 및 문화 시설 만족도 저조함. 의료시설(3.39)과 문화시설(2.80)에서 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읍 지역의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상대적 취약함. 학교 밖 교육기회(3.50)와 문화시설(2.77)에서 읍 지역은 농어촌 및 도시 지역 사이의 인프라 격차를 나타냄.
- 도시(동) 지역과 비도시(읍, 면) 지역 간의 주변환경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p < .05$).



[그림 5- 10] 행정구역별 주변환경 만족도

□ [공통문항] 학생-보호자-교사간 인식 차이

- 학생 집단의 지역 인프라 만족도 가장 높음. 학교 밖 교육기회(3.44), 의료시설(3.50), 문화시설(2.86) 전 항목에서 학생이 보호자나 교사에 비해 지역 환경을 훨씬 긍정적으로 인식함.
- 보호자와 교사 집단의 만족도 양상은 유사함. 교육기회(보호자: 2.59, 교사: 2.56) 및 의료시설(보호자: 2.68, 교사: 2.67) 만족도에서 두 집단은 거의 차이가 없는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임.
-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결핍 인식 뚜렷함. 모든 응답 주체에서 문화시설 만족도가 다른 인프라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며, 특히 보호자(2.21)와 교사(2.25)는 매우 부정적인 체감을 보임.
- 성인과 청소년 간의 시각 차이 존재함.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평가하는 성인(보호자,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지역 여건을 더 엄격하고 열악하게 평가함.
- 모든 인프라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 < .05$) 확인됨. 교사와 보호자가 체감하는 인프라의 만족도가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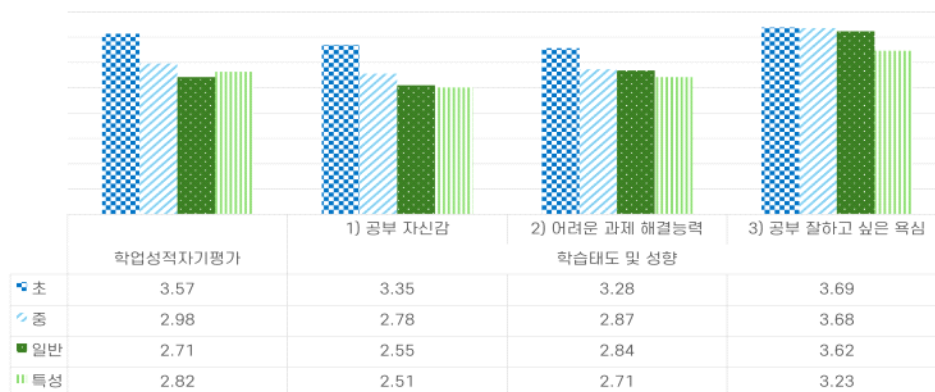


[그림 5- 11] 학생-보호자-교사 주변환경 만족도

4) 교육활동 및 성취

□ 학습태도 및 성향

- 초등학교의 학업 자신감 및 성취 인식 최상위임. 성적 자기평가(3.57), 공부 자신감(3.35), 과제 해결능력(3.28) 등 모든 지표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음.
-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적 자존감 급감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본인의 성적을 낮게 평가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함.
- 공부 욕심과 자신감 간의 격차 존재함. 전 학교급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3.23~3.69)'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실제 '공부 자신감(2.51~3.35)'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관찰됨.
- 특성화고의 학습 성향 차별화됨. 특성화고는 공부 자신감(2.51)과 공부 욕심(3.23) 모두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일반 교과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저하된 상태임.
- 모든 학습 관련 문항에서 학교급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p < .05$).
 -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 자기평가, 공부자신감, 어려운 과제해결 능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함.
 -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욕구가 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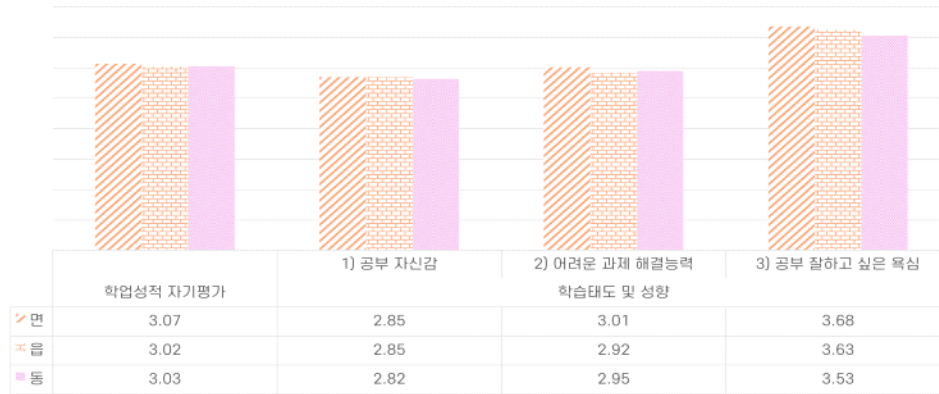


[그림 5- 12] 학교급별 학습태도 및 성향

- 면 지역의 학습 동기 및 자신감 상대적 우세함. 공부 자신감(2.85)과 과제 해결능력(3.01), 공부 욕심(3.68) 항목에서 면 지역이 읍·동 지역에 비해 소폭 높은 평균치를 기록함. 동(도시) 지역의 학습 욕구 상대적 저조함.
-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3.53)은 동 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

습 피로도나 동기 저하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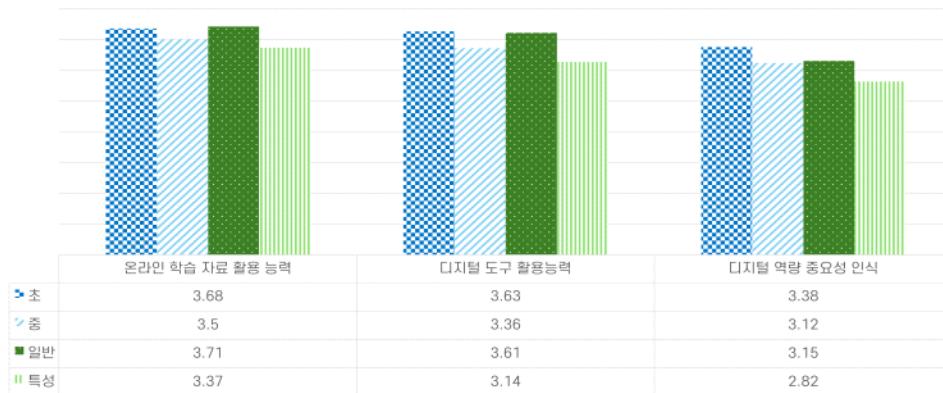
- 지역 간 학업 자신감 및 과제 해결 능력 차이 미미함. 성적 자기평가, 공부 자신감, 과제 해결능력 문항은 지역 규모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단,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지역 간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 보임(동 < 면)



[그림 5- 13] 행정구역별 학습태도 및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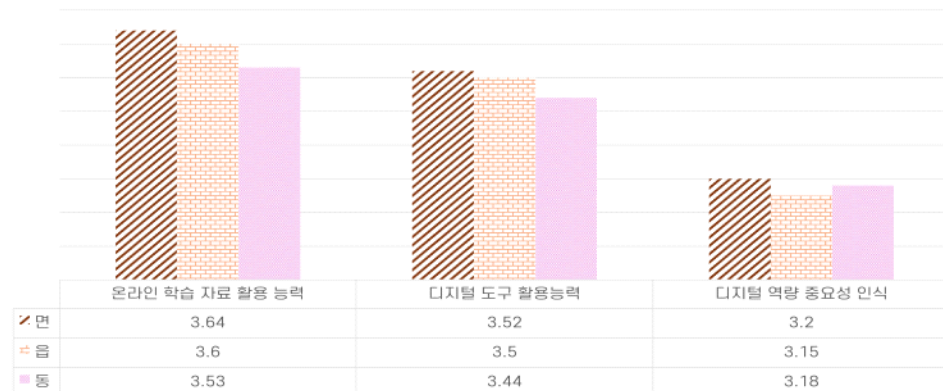
□ 디지털 학습역량

- 초등학교와 일반고의 디지털 활용 자신감 높음. 온라인 학습 자료(3.68~3.71) 및 디지털 도구(3.61~3.63) 활용 능력에서 초등학교와 일반고가 상위권을 형성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모습을 보임.
- 특성화고의 디지털 역량 전반적 저조함. 모든 항목에서 특성화고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기록함. 특히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3.14)과 역량 중요성 인식(2.82)에서 타 학교급과 큰 격차를 보임.
- 활용 능력 대비 낮은 중요성 인식 관찰됨. 전 학교급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3.14~3.63)에 비해 해당 역량이 미래에 중요하다는 인식(2.82~3.38)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중학교의 디지털 역량 정체 양상 보임.
- 중학교는 활용 능력과 인식 모든 면에서 초등학교와 일반고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를 보이며 중간 단계의 특징을 나타냄.
- 모든 디지털 역량 문항에서 학교급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p < .05$).
 -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은 특성화고 < 중학교 < 일반고, 초등학교 순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욕구가 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 디지털 역량 중요성 인식은 '특성화고 < 중학교, 일반고 < 초등학교'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 수록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함
 -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 능력은 '특성화고, 중학교 < 초등학교, 일반고'로 온라인을 통한 학습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이 특성화고와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5- 14] 학교급별 디지털 학습 역량

- 면 지역의 디지털 역량 소폭 우세함. 모든 지표에서 면 지역(3.20~3.64)이 읍·동 지역에 비해 미세하게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교육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동(도시) 지역의 상대적 낮은 자신감 관찰됨. 디지털 도구 활용(3.44)과 온라인 자료 활용(3.53) 항목에서 도시 지역이 가장 낮은 평균을 기록하며 의외의 결과 나타냄.
- 지역 규모에 따른 디지털 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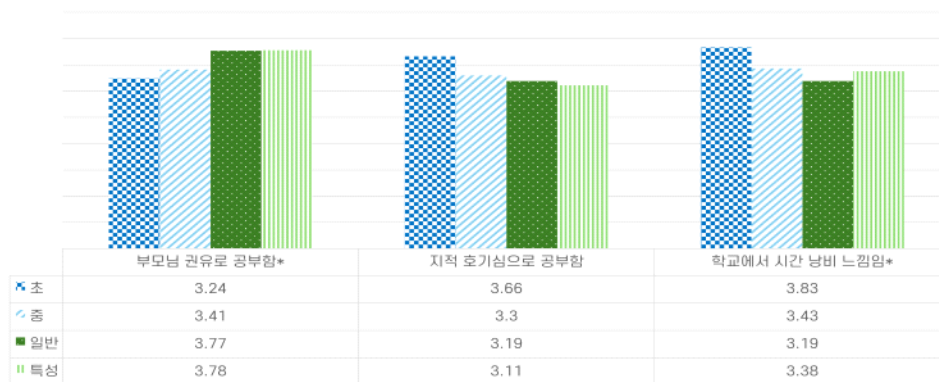


[그림 5- 15] 행정구역별 디지털 학습역량

□ 학업동기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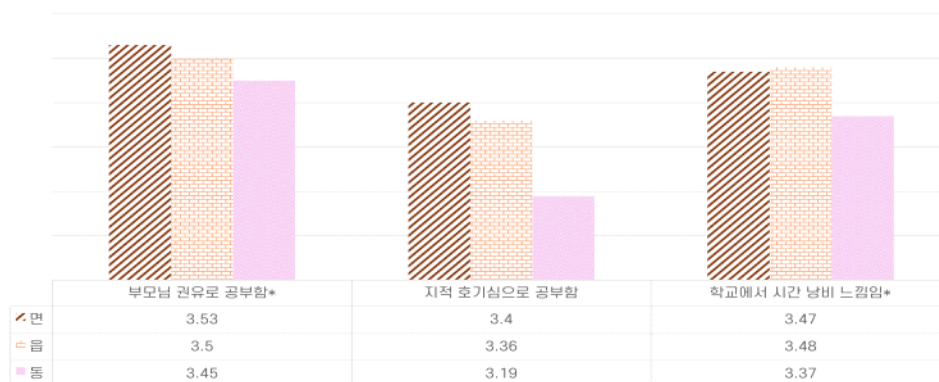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높은 내적 동기 및 학교생활 긍정성 확인됨. 지적 호기심(3.66)과 학교에서의 시간 활용 만족도(3.83)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학습에 대한 순수한 재미와 학교생활의 의미를 크게 느낌.
- 상급 학교로 갈수록 외부적 동기(부모님 권유) 비중 높아짐. 부모님 권유로 공부한다는 문항(역 문항 처리 전 원점수 기준)에서 초등학교(3.24) 대비 고등학교(3.77~3.78)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짐.
- 일반고 학생들의 학교 내 시간 낭비 체감 가장 큼.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끼는 정도(3.19)가 일반고에서 가장 낮게(부정적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의 지적 호기심 상대적 저조함.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한다는 응답(3.11)이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아, 교과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유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모든 학습 동기 관련 문항에서 학교급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p < .05$).
 - 부모님 권유로 공부함에 대한 응답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 일반고, 특성화고'로 나타나 고등학생 집단이 부모님의 권유 등 타의에 의해 공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또한,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한다고 응답한 결과 '특성화고 < 초등학교'로 나타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적 호기심이 초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 학교에서 시간 낭비 느낌에 대한 응답 결과 '일반고 < 초등학교'로 나타나 일반고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의 무의미함이 초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그림 5- 16] 학교급별 학업동기 및 태도(*역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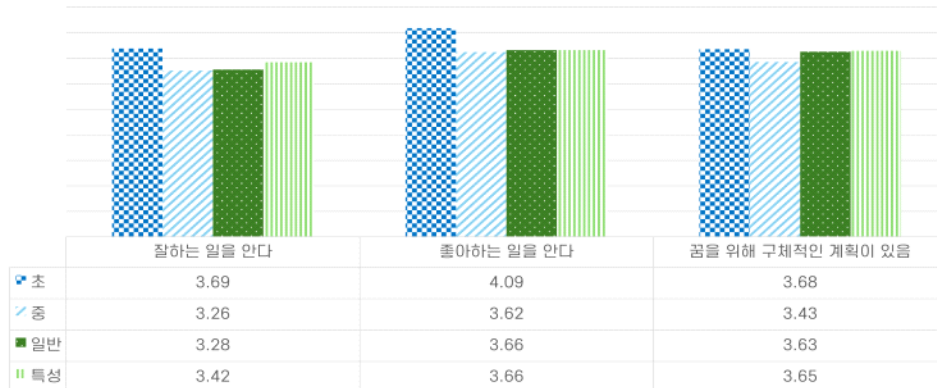
- 비도시(면·읍) 지역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우세함. 지적 호기심 항목에서 면(3.40)과 읍(3.36) 지역이 동 지역(3.19)보다 높은 평균값을 기록함.
- 지역 간 외부적 동기 및 시간 낭비 체감 격차 미미함. 부모님 권유 및 시간 낭비 느낌 문항은 지역 규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동(도시) 지역 학생들의 낮은 내적 동기 관찰됨. 지적 호기심이 가장 낮게 나타나 도시 지역 학생들의 성취 압박이나 학업 피로도가 내적 동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 5- 17] 행정구역별 학업동기 및 태도(*역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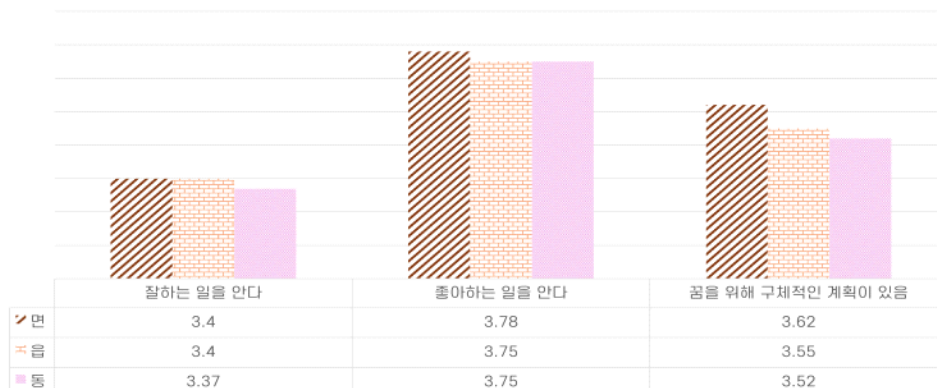
□ 자기이해

- 모든 학교급에서 '좋아하는 일' > '꿈을 위한 계획' > '잘하는 일' 순으로 평균이 형성되어 있음. 정서적 흥미는 높으나 실제적인 자기 역량 객관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룹보다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훨씬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문항에서 초등학교는 유일하게 4점대를 기록하며 가장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보임
 -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잘하는 일을 한다(3.42)'는 문항에서 중학생이나 일반고 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 실무 중심 교육이 자기 역량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중학생이 전체 학교급 중 가장 낮은 계획성을 보이거나 고등학교 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반고(3.63)와 특성화고(3.65) 모두 중학교에 비해 계획성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모든 자기 이해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 확인됨.



[그림 5- 18] 학교급별 자기이해

- 지역규모(면, 읍, 동)에 따른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학생들의 진로 인식은 거주 지역의 규모보다는 학교급(연령대)이나 개별 교육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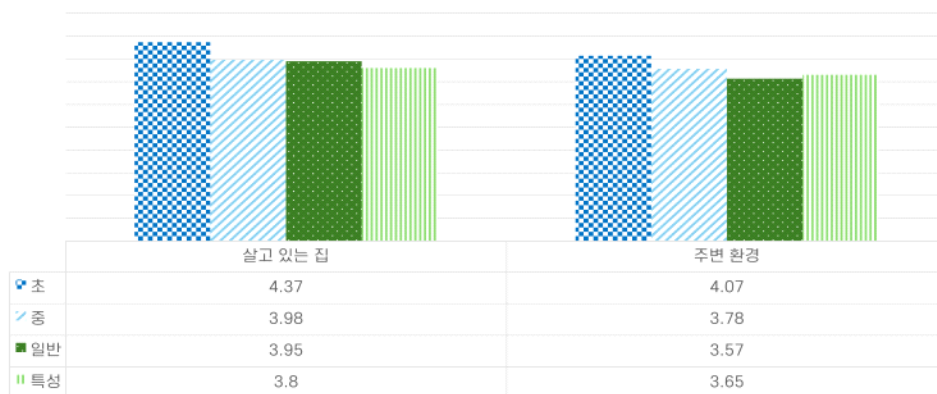


[그림 5- 19] 행정구역별 자기이해

5)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학생의 학교급 및 행정구역별 주거환경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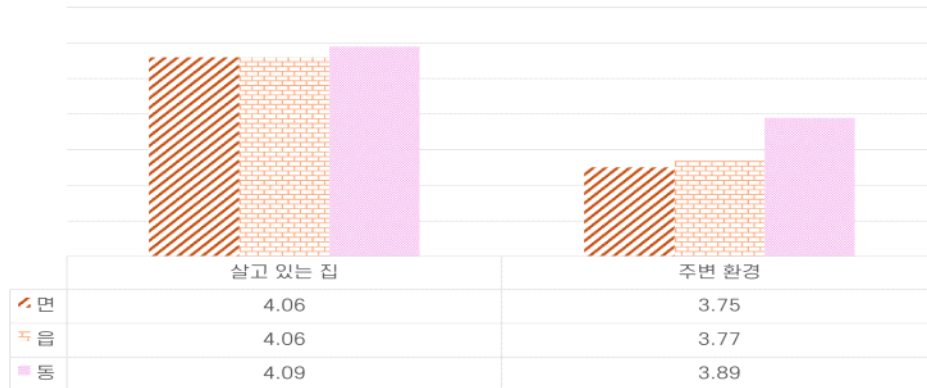
- 초등학교의 주거 및 환경 만족도 최상위임. 살고 있는 집(4.37)과 주변 환경(4.07)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며 본인의 정주 여건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함.
- 학교급 상승에 따른 정주 만족도 하락세 관찰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집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 특성화고의 주거 만족도 상대적 저조함. 살고 있는 집 항목(3.80)에서 특성화고가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주거 자체보다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전 학교급에서 '살고 있는 집'(3.80~4.37)보다 '주변 환경'(3.57~4.07)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모든 정주 여건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확인됨($p < .05$).
 - 주거 만족도가 '특성화고 < 일반고,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유의하게 낮음
 - 지역 환경 인식의 차이는 '일반고 < 초등학교'로 일반고 학생이 느끼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초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임.



[그림 5- 20] 학교급별 주거환경 만족도

- 동(도시) 지역의 정주 만족도 상대적 우세함. 살고 있는 집(4.09)과 주변 환경(3.89) 모두 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며 도시 지역의 정주 여건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면·읍 지역의 주변 환경 만족도 저조함. 주변 환경 항목에서 면(3.75)과 읍(3.77)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비도시 지역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시사함.
- 주거 시설 자체는 지역 간 격차 미미함. 살고 있는 집 문항은 지역 규모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 지역별 주택 수준의 체감 차이는 크지 않음.
- 살고 있는 집 만족도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 간 환경 격차는 확인됨.
 - '면, 읍 < 동' 순으로 동(도시) 지역의 주변 환경 만족도가 면이나 읍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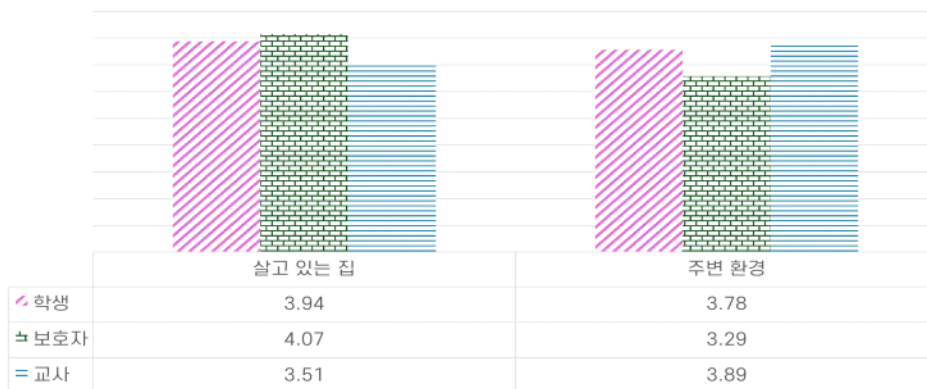
로 유의하게 높음.



[그림 5- 21] 행정구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 [공통문항] 학생-보호자-교사 주거환경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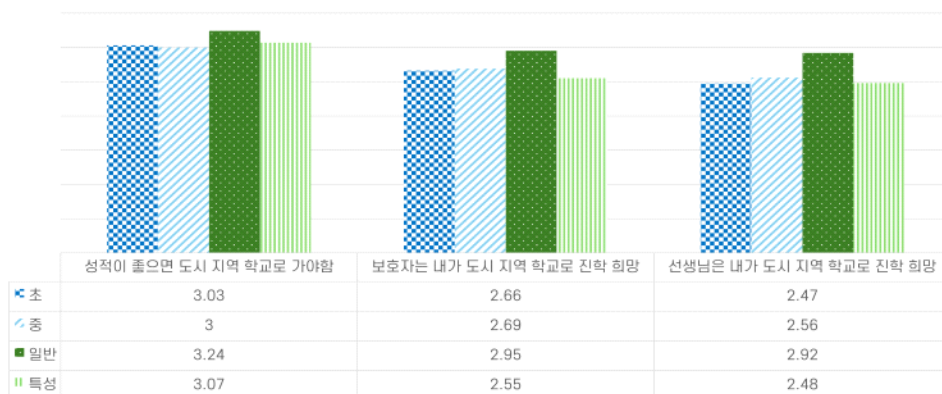
- 학생 집단의 주거 만족도 가장 높게 나타남. 살고 있는 집(4.07)에 대한 만족도가 성인 집단(보호자, 교사)보다 긍정적이며, 세 집단 중 유일하게 4점대 이상의 평균값을 기록함.
- 교사 집단의 주변 환경 만족도 최고치 기록함. 주변 환경(3.89)에 대한 평가가 학생(3.78)이나 보호자(3.29)보다 높으며, 정주 여건 중 외부 환경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함.
- 보호자 집단의 정주 여건 만족도 최하위임. 살고 있는 집(3.51)과 주변 환경(3.29) 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며, 현재의 거주 환경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짐.
- 주거 시설 자체보다 주변 환경에서 시각 차이 큼. 살고 있는 집의 평균값 범위(3.51~4.07)보다 주변 환경의 평균값 범위(3.29~3.89)에서 집단 간 체감 격차가 더 두드러짐.
- 모든 정주 여건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 확인됨($p < .05$).
 - 주변 환경 만족은 '보호자 < 학생 < 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시설은 '보호자 < 교사 < 학생' 순으로 보호자가 유의하게 가장 낮음



[그림 5- 22] 학생-보호자-교사 주거환경 만족도

□ 상급학교 진학 시 도시 지역 학교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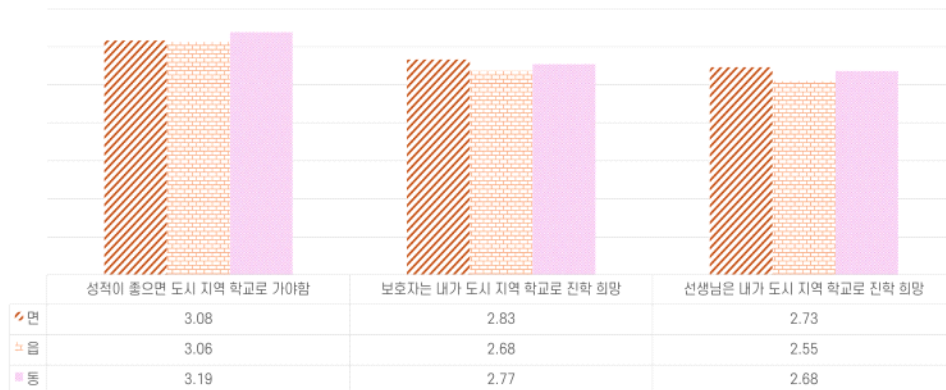
- 일반고 학생 및 주변인의 도시 진학 열망 가장 높음. 성적이 좋으면 도시로 가야 한다는 인식(3.24), 보호자의 희망(2.95), 선생님의 희망(2.92) 전 항목에서 일반고가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함.
- 초·중등 단계에서는 도시 진학 압박 상대적으로 낮음.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나 주변인의 권유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2.47)가 가장 낮음.
- 특성화고 학생의 독자적 진로 환경 관찰됨. 성적이 좋으면 도시로 가야 한다는 인식(3.07)은 중간 수준이나, 보호자(2.55)와 선생님(2.48)의 도시 진학 희망 정도는 초·중 학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본인 인식 대비 주변인 희망 점수 낮음. 학생들은 성적에 따른 도시 진학 필요성을 평균 3.0점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으나, 실제 보호자나 선생님의 권유는 그보다 낮은 2.4~2.9 점대에 머물고 있음.
-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p < .05$).
 - 선생님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 희망 결과 '초, 특성, 중 < 일반'으로 나타나 일반고 교사가 타 학교급 교사에 비해 도시 진학을 유의하게 더 높음
 - 보호자는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 희망 결과 '특성, 초, 중 < 일반'으로 분석되어 일반고 학부모의 도시 진학 열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 함 응답 결과 '중, 초 < 일반'으로 나타나 상급 학교로 갈수록 성적과 도시 진학을 결부시키는 인식이 높음



[그림 5- 23] 학교급별 도시 지역 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 면 지역 교사 및 보호자의 도시 진학 지지 두드러짐. 보호자의 희망(2.83)과 선생님의 희망(2.73) 항목에서 면 지역이 읍·동 지역보다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며 농어촌 지역의 상급 학교 진학 열망 반영함.

- 동(도시) 지역 학생의 성적 중심 도시 진학 인식 강함. 성적이 좋으면 도시로 가야 한다는 인식(3.19)은 도시 지역인 동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읍 지역의 전반적인 진학 권유 정도 최하위임. 주변인의 도시 진학 희망 정도가 읍 지역에서 가장 낮게 형성되어 지역 내 진학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함.
- 모든 문항에서 지역 간 도시 지역 학교 진학 인식 격차는 확인됨.
 - 선생님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 희망 결과 '읍, 동 < 면' 순으로 면 지역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도시 지역 학교 진학을 권유하는 정도가 읍이나 동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보호자는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 희망 응답 결과 '읍 < 면' 으로 면 지역 보호자가 자녀의 도시 진학을 희망하는 정도가 읍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 함 응답 결과 '읍 < 동' 순으로 도시 지역 학생들이 성적이 좋을 경우 도시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읍 지역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음.



[그림 5- 24] 행정구역별 도시 지역 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2. 비교 분석 결과 시사점

1) 교육여건 및 현황

- (학교시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면 지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컴퓨터/멀티미디어 기기, 도서관, 냉난방, 체육 시설, 보건 및 급식 시설 등 모든 지표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교실 냉난방과 급식 시설은 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음
- (학습 활동) 교사의 열의와 학생의 참여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선생님의 열정(4.37 → 3.90)과 학생의 수업 참여도(3.77 → 3.38)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짐
 - 지역 규모별로는 면 지역이 동이나 읍 지역에 비해 선생님의 열정과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방과후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역시 초등학교와 면 지역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학교생활) 학교 내 관계와 전반적인 행복감은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 친구, 선후배, 선생님과의 관계 모두 초등학교가 가장 높으며,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면 지역 학생들은 친구 및 선후배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동 지역 학생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초등학교(4.18)와 면 지역(3.95)이 각 비교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 가정환경

- (가정환경) 가정의 행복도와 소통 지수는 대체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미비함
 - (가정 행복도) 초등학교(4.45)가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4.32)와 고등학교(4.29~4.30)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와의 대화) 초등학교(4.36)가 가장 높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4.17)의 대화 빈

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부모 지원) 부모의 학습 지원 방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직접적인 개입이 줄어들어 드는 경향을 보임
 - (학습 환경 및 숙제 확인)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3.39)과 숙제 확인(3.06) 항목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음. 특히 숙제 확인은 고등학교(2.18)로 갈수록 점수가 크게 낮아져, 저학년일수록 부모의 직접적인 학습 관리가 나타남.
 - (진로 지원) 진로에 대한 지원 인식 역시 초등학교(4.09)가 가장 높았으나, 다른 학습 지원 항목에 비해 전 학교급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3.90~4.00)를 유지하고 있어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 설계에는 관심을 두고 있음
 - (지역별 특징) 면 지역이 읍이나 동 지역보다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부모 관계는 초등학교급에서, 형제 관계는 고등학교급에서 높게 나타남
 - (보호자와의 관계) 초등학교가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높음
 - (형제·자매 관계) 대부분의 긍정적 지표가 초등학교에서 높았던 것과 달리,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는 특성화고(4.21)와 일반고(4.17)가 초등학교(3.90)보다 유의하게 높음
- (가정의 경제적 생활 수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 초등학생이 자신의 가정생활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낮아짐. 실제 가정 형편의 차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적 인식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생활 수준을 보다 객관적 혹은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3) 지역 및 주변환경

- 모든 지역 및 주변환경 지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임
 - (학교 밖 교육 기회) 초등학교(3.88) > 중학교(3.38) > 특성화고(3.33) > 일반고(3.15)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 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함
 - (의료 시설) 초등학교(3.88)가 가장 높으며, 일반고(3.20)가 가장 낮게 나타나 학교급 간 인식 차이를 보임
 - (문화 시설) 모든 학교급 중 초등학교(3.31)만 3점대를 기록했으며, 일반고(2.39)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교육여건 및 현황에서의 학교 내부 시설 만족도와 달리, 학교 밖 지역 환경 인프라는 동 지역이 읍·면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 밖 교육 기회) 동(3.66) > 읍(3.50) > 면(3.28) 순으로,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교육 기회 만족도가 높음
 - (의료 시설) 동 지역(3.73)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면 지역(3.39)이 가장 낮아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만족도 차이가 있음
 - (문화 시설) 동 지역(3.22)에 비해 읍(2.77)과 면(2.80) 지역은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 농어촌 지역의 문화적 소외 현상이 예상됨
- 동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보호자나 교사에 비해 지역 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정주 여건의 열악함을 보호자와 교사들이 더 크게 체감하고 있음.
 - (학교 밖 교육 기회) 학생(3.44)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보호자(2.59), 교사(2.56)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평가함
 - (의료 시설) 교사(2.67)와 보호자(2.68)는 비슷하게 부족하다고 인식하나, 학생은(3.50)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낮음
 - (문화 시설)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으로, 학생(2.86), 보호자(2.21)와 교사(2.25)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4) 교육활동 및 성취

- (학업성적)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성적 수준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이며, 지역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초등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중학교(2.98), 특성화고(2.82), 일반고(2.71) 순으로 낮아짐
 - 면(3.07), 읍(3.02), 동(3.03)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학습태도 및 성향)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는 초등학교와 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부 자신감 및 과제 해결 능력) 초등학생이 공부 자신감(3.35)과 어려운 과제 해결 능력(3.2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고등학생(일반고, 특성화고)은 상대적으로 낮음
 - (성취 욕구)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특성화고(3.23)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3.6점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별 특징) 면 지역(3.68) 학생들의 성취 욕구가 동 지역(3.53)보다 유의하게 높음

- (디지털 학습역량)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은 초등학생과 일반고 학생이 높게 평가하는 반면, 특성화고는 상대적으로 낮음
 - (활용 능력) 온라인 자료 활용과 디지털 도구 활용 모두 일반고와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남. 특성화고 학생들은 도구 활용 능력에서 가장 낮은 자기 인식을 보임
 - (중요성 인식)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가 가장 낮음
- (학업동기 및 태도) 내적 동기인 지적 호기심은 저학년과 면, 읍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공부의 동기)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3.66)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짐. 반면, 부모님의 권유로 공부한다는 경향은 고등학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 (학교 생활의 가치) '학교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느끼는 정도 초등학생이 가장 낮아(즉, 가장 가치 있게 느낌), 고등학생보다 학교 생활에 대한 의미 부여가 큼
 - (지역별 특징) 면(3.40)과 읍(3.36) 지역 학생들이 동 지역(3.19)보다 지적 호기심에 의한 학업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자기이해) 자신의 재능과 진로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음
 - (적성 및 흥미 파악) 자신이 잘하는 일(3.69)과 좋아하는 일(4.09)을 안다는 응답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음
 - (꿈을 위한 계획) 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초등학교(3.68), 특성화고(3.65), 일반고(3.63) 순으로 높았으나, 중학교(3.43)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5)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 (주거환경 만족도) 학교급이 낮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살고 있는 집) 초등학생(4.37)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학생(3.98), 일반고(3.95), 특성화고(3.80) 순으로 나타남. 통계적으로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다른 모든 학교급보다 유의하게 높음
 - (주변 환경) 초등학생(4.07)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3.78), 특성화고(3.65), 일반고(3.57) 순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 살고 있는 집의 만족도는 면(4.06), 읍(4.06), 동(4.09)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 밖의 주변 환경 만족도는 동 지역(3.89)이 면 지역(3.77)

이나 읍 지역(3.75)보다 유의하게 높음.

- (학생-보호자-교사 간 인식 차이) 살고 있는 집의 만족도는 학생(4.07)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보호자(3.51)와 교사(3.91)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반면, 주변환경 만족도는 학생(3.78), 교사(3.89)로 높은 반면 보호자(3.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 한다는 인식) 성적과 도시 지역 진학을 연결 짓는 인식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일반고(3.2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특성화고(3.07), 초등학교(3.03), 중학교(3.00) 순으로 나타남. 일반고 학생들은 성적이 좋을 경우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
- (지역규모별) 현재 동 지역(3.19)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3.08)이나 면(3.06)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자·교사의 진학 희망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 보호자와 선생님이 도시 지역 진학을 얼마나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임. 일반고 학생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음.
- (지역 규모에 따른 인식 격차) 도시 지역으로의 진학 희망이나 인식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보호자) 읍 지역(2.83) 학생들이 면 지역(2.68) 학생들보다 보호자가 도시 진학을 원한다고 응답함
- (선생님) 선생님이 도시 학교 진학을 원한다고 느끼는 정도는 읍 지역(2.73)과 동 지역(2.68)이 면 지역(2.55)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VI. 하드데이터 연계 분석

1. 하드데이터 연계 분석 개요

1) 하드데이터 연계 분석 수행

- 지역 연계형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설문분석 결과를 다양하게 해석하고자 함

〈표 6-1〉 공공데이터 정보

구분	조사명	출처	조사기준/자료갱신일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5.12월	행정기관별 총인구수, 세대수, 성별 인구 수 등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5.4월 1일	행정구역별 학년별 학교수, 학급수 및 학생수 등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5.4월 1일	연령별 학생수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4.3.1.월-2025.2월 말	학생 변동 현황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4.3.1.월-2025.2월 말	학업중단률 및 중단사유 현황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3월 입학 기준, 2025년 2월 졸업 기준	입학 및 졸업 후 현황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5.4월 1일	학교시설 현황
사설학원및독서실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다운로드일자 (25.11.12)	사설학원 현황(취합_99개지역)
		2025-05-16	사설학원 현황(서울)
		2025-05-22	사설학원 현황(부산)
		2024-07-12	사설학원 현황(대구)
		2025-07-04	사설학원 현황(인천)
		2025-03-07	사설학원 현황(광주)
		2025-11-03	사설학원 현황(대전)
		2025-06-25	사설학원 현황(울산)
		2023-12-18	사설학원 현황(세종)
		2024-08-06	사설학원 현황(경기)
		2025-06-24	사설학원 현황(강원)
		2025-09-18	사설학원 현황(충북)
		2025-08-07	사설학원 현황(충남)
		2025-09-19	사설학원 현황(전북)
		2024-08-08	사설학원 현황(전남)
		2025-05-30	사설학원 현황(경북)
		2025-05-26	사설학원 현황(경남)
		2025-03-07	사설학원 현황(제주)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4월 1일	직위별교원수
유초중등교육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4월 1일	다문화(유형별)학생수

구분	조사명	출처	조사기준/자료갱신일
지역소득통계	KOSIS	데이터다운로드일자 (25.11.12)	지역소득통계(취합_99개지역)
		2025-03-31	지역내총생산(GRDP)
		2025-04-15	부산GRDP
		2025-11-05	대구GRDP
		2025-07-02	인천GRDP
		2025-08-01	광주GRDP
		2025-04-17	대전GRDP
		2025-08-08	울산GRDP
		2025-03-14	경기GRDP
		2025-03-25	강원GRDP
		2025-07-29	충북GRDP
		2025-09-15	충남GRDP
		2025-08-18	전북GRDP
		2025-05-28	전남GRDP
		2025-10-27	경북GRDP
		2025-11-10	경남GRDP
		2025-08-28	제주GRDP

□ 외부 하드데이터 중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산출 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6-2〉 지표 활용 정보 및 산출식

연번	지표명	활용정보 및 산출식				
1	학생 비율	• [연령별 학생 수] 학생 수 계 • 행정기관별 총인구수 학생비율(%)= 학생 수 계/행정기관별 총인구수×100				
2	순이동	• [학생변동현황] 전입, 전출, 순이동(인원 수, 명)= 전입-전출 학생 수 <table><tr><td>전출</td><td>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린 학생</td></tr><tr><td>전입</td><td>다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로 전입한 학생</td></tr></table>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린 학생	전입	다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로 전입한 학생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린 학생					
전입	다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로 전입한 학생					

□ 설문조사 결과 중 해당 지표(문항)는 다음과 같으며, 산술평균으로 활용

〈표 6-3〉 지표에 활용된 설문 문항

연번	지표명	해당 문항
1	학교 만족도	학생설문: 3.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위 문항 중 4)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1점: 매우 불만족 한다 - 5점: 매우 만족한다)
2	가정환경	학생설문: 8.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 (못 산다) ② 중하 (못 사는 편이다) ③ 중 (보통이다) ④ 중상 (잘 사는 편이다) ⑤ 상 (잘 산다)
3	주변환경 만족도	- 학생설문: 9. 살고 있는 지역에 다음과 같은 환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1) 학원, 과외 등 학교 밖에서의 교육 기회가 충분하다 2) 보건소, 병원 및 의료시설이 충분하다 3)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등)이 충분하다 9번 3개 문항의 평균

연번	자표명	해당 문항
4	유학압력	학생설문 21번 2)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신다
5	디지털 학습역량	- 학생설문: 1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1) 나는 필요한 학습 자료를 온라인(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2) 나는 학교 과제 수행 시 디지털 도구(문서, 슬라이드, 간단한 영상 편집 등)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다. 3) 나는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디지털 역량(AI, 코딩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번 3개 문항의 평균

2. 지역별 연계 분석 결과

1) 강원특별자치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인구가 많은 삼척과 홍천이 학생 수도 많지만, 전체 인구 대비 학생 비율은 양구군(10.2%)이 가장 높음. 반면 평창군(6.2%)과 고성군(6.4%)은 학생 비중이 낮음
- 순이동(전입-전출): 전반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은 순이동 수치가 0보다 작아 전입대비 전출 학생이 많음. 인제군(-103)과 양구군(-87)의 유출이 높으며, 양양군(+45), 영월군(+35), 평창군(+6)은 증가를 보임
- 교원 및 인프라: 교원 수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양구군(13.2%)과 인제군(12.1%)이 높았음. 사설 교육 기관(학원)은 홍천(70개), 철원(59개), 삼척(50개) 순으로 많음.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만족도: 양구군(4.30)이 삼척시(3.68)보다 높았음. 양구군은 학생 유출이 심하고 학원 수도 적지만, 학교 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디지털 학습 역량: 두 지역 모두 3.3~3.4 수준을 보임.
- 유학 압력: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편(2.5~2.7)임

〈표 6-4〉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 구역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종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고성군	26,999	15,331	1.76	1.06	1,715	1,679	6.4	143	100	-43	9.6	318	26	8.2	11	2	-	-	-	-	-	-
삼척시	61,735	33,687	1.83	1.04	5,073	4,740	8.2	192	144	-48	9.7	677	63	9.3	50	8	105	3.68	3.45	3.18	2.59	3.35
양구군	20,621	10,167	1.99	1.09	2,109	2,060	10.2	186	99	-87	9.4	343	45	13.2	19	1	20	4.30	3.75	3.30	2.75	3.47
영양군	27,489	15,000	1.83	1.05	1,838	1,667	6.7	96	143	46	9.9	299	26	8.7	15	1	-	-	-	-	-	-
영월군	36,721	21,139	1.74	1.07	2,645	2,526	7.2	132	167	35	9.6	490	54	11.0	31	1	-	-	-	-	-	-
원주군	31,535	16,709	1.89	1.2	2,537	2,492	8.0	290	187	-103	9.8	397	48	12.1	21	-	-	-	-	-	-	-
홍천군	33,515	19,124	1.75	1.09	2,328	2,325	6.9	108	81	-27	9.8	442	33	7.5	19	-	-	-	-	-	-	-
횡성군	40,497	20,270	2	1.07	3,526	3,481	8.7	184	100	-84	1.0	523	57	10.9	59	2	-	-	-	-	-	-
평창군	40,296	22,080	1.83	1.08	2,520	2,495	6.2	121	127	6	9.7	486	39	8.0	21	1	-	-	-	-	-	-
홍천군	66,717	34,880	1.91	1.07	5,181	4,859	7.8	277	192	-85	1.1	804	76	9.5	70	5	-	-	-	-	-	-
철원군	22,922	12,055	1.9	1.15	1,890	1,800	8.2	193	123	-70	9.7	329	33	10.0	18	-	-	-	-	-	-	-
평강군	46,111	24,048	1.92	1.06	3,601	3,530	7.8	172	184	-18	1.4	559	42	7.6	43	-	-	-	-	-	-	-
소계	455,258	244,699	1.86	1.1	34,963	33,664	7.7	2,094	1615	-479	0.8	5,626	542	9.7	377	21	125	3.99	3.60	3.24	2.62	3.41

2) 경기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이동 및 유입: 양평군이 유일하게 전출 대비 유입이 높아 순이동(+136명)을 보인 반면, 포천시(111개), 양평군(109개)은 학원 수가 100개를 넘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연천군(34개)은 매우 열악함.
- 학생 비중: 여주시(9.1%)가 가장 높고, 연천군(7.7%)이 가장 낮음.
- 교원 고용 안정성: 기간제 교원 비율 평균이 16.4%이며 양평군(22.8%)과 여주시(19.6%)의 기간제 의존도가 높음.
- 사교육 인프라: 여주시(112개), 포천시(111개), 양평군(109개)은 학원 수가 100개를 넘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연천군(34개)은 매우 열악함.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만족도: 여주시(4.75)와 연천군(4.50)이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학생 유입이 많은 양평군(3.00)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디지털 학습 역량: 여주시와 연천군이 4.00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양평군(3.17)이 가장 낮음.
- 유학 압력: 여주시(4.75)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열과 외부 이동 욕구가 동시에 강한 지역임을 시사함.

〈표 6-5〉 경기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 구역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양평군	62,527	33,019	1.89	1.06	5,070	4,989	8.1	242	201	-41	3.2	618	85	13.8	57	4	-	-	-	-	-	-	
양평군	126,804	63,101	2.01	1.01	10,644	10,418	8.4	396	532	136	3.4	1,216	277	22.8	109	9	2	3.00	4.50	2.67	3.00	3.17	
여주시	114,610	56,400	2.03	1.04	10,466	10,053	9.1	406	373	-33	3.0	1,203	236	19.6	112	7	4	4.75	2.75	4.34	4.75	4.00	
연천군	40,966	21,750	1.88	1.1	3,149	2,918	7.7	178	134	-44	0.6	481	58	12.1	34	-	2	4.50	4.50	4.34	1.50	4.00	
포천시	141,463	73,071	1.94	1.12	11,343	11,009	8.0	593	443	-150	0.9	1,323	180	13.6	111	15	-	-	-	-	-	-	
소계	486,270	247,341	1.97	1.1	40,662	39,387	8.4	1,815	1,683	-132	1.0	4,840	836	16.4	423	35	8	4.08	3.92	3.78	3.42	3.72	

3) 경상남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통영시(11.5%), 거창군(10.9%), 사천시(10.5%)는 인구 대비 학생 비중이 10%를 상회하여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순이동(전입-전출): 전체 순이동이 -222명으로 학생 유출이 진행 중이며, 특히 통영시(-110명)와 창녕군(-79명)의 유출 폭이 큼.
- 교원 안정성: 기간제 교원 비율 평균이 20.6%로 나타남. 특히 창녕군(27.3%), 남해군(24.7%), 밀양시(24.5%)는 약 25%에 가깝게 나타남.
- 사교육 인프라: 통영시(206개)와 사천시(193개)는 학원 수가 많으나, 의령군(17개)과 산청군(18개)은 사교육 인프라가 매우 빈약하여 지역 내 편차가 높음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가정 및 외부환경 만족도: 외부환경 만족도에서는 통영시가 합천군에 비해 높았으며 학교만족도 및 가정환경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남. 이는 사교육 인프라(학교 밖 교육)와 연계된 결과에서도 확인됨
- 디지털 학습 역량: 통영시는 3.51점이며, 합천군은 3.30점으로 나타남
- 유학 압력: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편(2.9)임

〈표 6-6〉 경상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구 분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거창군	59,599	31,129	3.91	0.97	6,473	6,069	10.9	332	393	66	0.6	793	181	22.9	39	6	-	-	-	-	-	-
고성군	46,005	26,283	3.82	1.03	4,359	4,129	8.7	361	153	-8	0.8	617	107	17.3	63	-	1	4.00	3.00	3.00	3.00	2.57
남해군	39,832	22,269	3.79	0.95	3,394	3,123	8.0	359	335	16	0.9	522	129	24.7	33	1	1	3.00	4.00	4.33	2.00	3.33
통영시	100,691	54,004	3.86	0.98	5,642	5,160	8.5	257	225	-32	0.7	1,021	250	24.5	131	10	-	-	-	-	-	-
사천시	108,504	55,569	3.95	1.03	11,409	11,371	10.5	294	247	-47	0.6	1,130	223	19.7	193	13	-	-	-	-	-	-
산청군	33,299	19,591	3.7	0.98	1,396	1,506	6.0	172	67	-5	0.9	336	87	25.8	18	-	-	-	-	-	-	-
의령군	25,150	14,505	3.69	1	1,347	1,347	6.2	54	69	5	0.6	344	36	10.5	17	-	-	-	-	-	-	-
창녕군	56,085	31,956	3.75	1	4,869	4,705	8.7	211	132	-79	1.1	686	187	27.3	42	3	1	4.00	5.00	5.00	2.00	3.57
통영시	118,481	59,367	3	1.01	13,619	13,422	11.5	336	265	-130	0.8	1,286	225	17.6	206	13	512	3.87	3.43	3.51	2.90	3.51
합천군	40,765	23,472	3.74	1	2,257	2,253	5.5	100	93	-7	0.6	476	78	16.4	30	2	-	-	-	-	-	-
해안군	56,842	30,220	3.95	1.05	5,793	5,694	9.8	200	174	-26	0.5	685	140	20.4	76	1	-	-	-	-	-	-
밀양시	35,131	20,471	3.76	0.95	2,635	2,569	7.3	68	53	-15	0.9	427	61	14.3	41	1	-	-	-	-	-	-
합천군	40,225	23,687	3.7	0.97	2,237	2,137	5.6	123	143	20	1.0	499	114	22.3	27	1	41	3.88	3.49	3.85	2.93	3.30
소계	765,558	413,062	3.85	1.0	68,818	66,917	9.0	2,236	2,014	-222	0.8	8,871	1,839	20.6	966	51	556	3.75	3.78	3.74	2.57	3.30

4) 경상북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칠곡군(11.4%)과 김천시(11.1%)는 학생 비중이 높으나, 의성군(4.6%)과 울릉군(4.8%)은 학생 비중이 5% 미만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함.
- 순이동(전입-전출): 전체 순이동이 -563명으로 나타남. 특히 칠곡군(-187명), 김천시(-70명), 울진군(-78명)의 유출이 높음
- 교원 안정성: 기간제 교원 비율 평균은 18.1%임. 영주시(27.5%), 성주군(21.1%)은 기간제 비율이 높은 반면, 울릉군(7.4%)과 봉화군(12.3%)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존도를 보임.
- 사교육 인프라: 칠곡(172개), 영주(159개), 김천(134개)에 학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영양군(5개)과 울릉군(1개)은 사교육 인프라가 거의 없음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만족도: 청송군(4.03)과 영양군(3.87)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외부환경 만족도: 칠곡군은 3.21점인데 반해 청송군은 2.48점으로 지역 내 편차가 큼. 이는 사교육 인프라와 연계된 결과에서도 확인됨
- 디지털 학습 역량: 칠곡군(3.46), 영양군·영덕군·청송군(3.30)으로 나타남

〈표 6-7〉 경상북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시군구명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교육학원	평생직업 인원	응답 만족도	학교 환경	가정 환경	외부환경 압력	유학 학습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고령군	30,062	17,301	1.74	1.07	1,667	1,714	5.5	72	66	-7	0.8	274	47	17.2	17	-	-	-	-	-	-	-
김천시	135,446	60,000	1.56	1.01	15,047	13,325	11.1	432	362	-70	0.8	1,688	306	18.3	134	12	1	3.00	4.00	3.67	4.00	2.00
문경시	67,257	36,636	1.84	0.97	5,682	5,135	8.4	126	105	-21	0.8	777	154	19.8	76	7	1	3.00	3.00	2.97	3.00	2.33
봉화군	26,830	16,600	1.74	1.04	1,720	1,703	6.0	57	46	-11	0.6	334	41	12.3	14	-	-	-	-	-	-	-
성주군	91,850	49,163	1.87	0.97	8,352	7,798	9.1	228	206	-22	1.2	1,157	220	19.0	88	9	1	2.00	3.00	2.33	3.00	3.00
영주군	41,482	24,108	1.72	1.1	2,249	2,236	5.4	57	53	-4	0.6	379	80	21.1	26	-	-	-	-	-	-	-
영덕군	33,210	19,496	1.7	0.92	1,877	1,967	5.7	127	106	-21	0.5	325	54	16.6	24	-	104	3.59	3.36	2.84	2.54	3.30
영양군	15,328	8,954	1.71	0.99	893	880	5.8	26	22	-4	0.1	190	36	18.4	5	1	123	3.67	3.37	2.99	2.74	3.30
영천시	98,670	51,071	1.92	0.99	9,451	9,317	9.6	223	183	-40	0.8	1,016	299	29.5	159	18	-	-	-	-	-	-
영천시	98,143	54,062	1.79	1.05	7,387	6,905	7.5	233	164	-69	1.0	934	175	18.7	78	11	-	-	-	-	-	-
울진군	54,609	27,989	1.95	0.97	4,297	3,860	7.9	124	101	-23	0.5	508	83	16.6	81	4	-	-	-	-	-	-
울릉군	6,039	3,668	1.61	1.29	433	393	4.8	31	31	0	0.8	94	7	7.4	1	-	-	-	-	-	-	-
울진군	46,124	25,584	1.8	1.03	3,712	3,677	6.0	197	119	-78	0.9	511	87	17.0	47	1	-	-	-	-	-	-
영천시	48,630	25,104	1.93	0.99	2,219	2,224	4.6	103	77	-26	1.2	456	60	13.2	15	2	-	-	-	-	-	-
영주군	40,582	23,427	1.73	0.99	2,729	2,713	6.7	93	131	38	1.3	385	74	19.2	25	4	-	-	-	-	-	-
칠곡군	23,716	13,985	1.7	1.01	1,155	1,065	4.9	75	56	-19	1.4	281	43	15.3	8	-	73	4.03	3.38	2.48	2.75	3.30
칠곡군	107,583	53,873	1.99	1.11	12,219	11,797	11.4	416	229	-187	0.5	1,311	174	13.3	172	5	494	3.75	3.40	3.21	2.52	3.46
소계	970,657	527,312	1.84	1.0	81,090	76,735	7.9	2,619,056	-563	0.8	10,586	1,920	18.1	970	74	797	3.32	3.36	2.85	2.98	2.96	

5) 대구광역시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학생 수 비율이 3.7%로,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해 교육 생태계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순이동(전입-전출): 소규모이지만 순이동 3명 증가를 기록하며 유출이 아닌 유입(전입 66명, 전출 63명)이 발생하였음
- 교원 및 사교육 여건: 기간제 교원 비율은 8.5%로 타 지역 대비 낮아 교원 안정성은 양호하나, 학원이 7개뿐이라 교육 인프라는 매우 취약함.
- 사교육 인프라: 통영시(206개)와 사천시(193개)는 학원 수가 많으나, 의령군(17개)과 산청군(18개)은 사교육 인프라가 매우 빈약하여 지역 내 편차가 높음
- 학업 중단율: 1.6%로 전체 지역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편임.

□ 실태조사 결과

- 학교만족도: 학교 만족도가 4.5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우수한 편임.
- 유학 압력: 3.33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음

〈표 6-8〉 대구광역시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구분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대구광역시	22,463	13,404	1.68	1.07	838	850	3.7	63	66	3	1.6	165	14	8.5	7	-	6	4.50	3.50	3.67	3.33	3.06

6) 인천광역시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옹진군의 학생 비율은 4.1%로 매우 낮아 학교 유지의 위기가 높으며, 강화군(7.3%) 비교하여 매우 낮음.
- 순이동(전입-전출): 강화군은 전출입이 동일(219명)하여 정체 상태이나, 옹진군은 순이동 -42명으로 학생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교원 안정성: 옹진군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2.2%로 모든 지역 중 최저 수준임
- 사교육 인프라: 강화군(37개)에 비해 옹진군(5개)이 매우 취약하여 공교육 의존도가 절대적임

□ 실태조사 결과

- 강화군과 옹진군 모두 실태조사 응답 인원이 없어 학교 만족도, 디지털 학습 역량 등 정성적 지표 분석이 불가능함.

〈표 6-9〉 인천광역시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 구역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입력	디지털 학습역량	
강화군	69,402	35,508	1.95	1	5,044	4,893	7.3	219	219	0	0.9	727	104	14.3	37	-	-	-	-	-	-	-	
옹진군	19,596	12,360	1.62	1.31	829	876	4.1	83	41	-42	0.3	236	5	2.2	5	-	-	-	-	-	-	-	
소계	89,398	47,948	1.86	1.2	5,873	5,769	6.5	302	260	-42	0.6	953	109	8.3	42	-	-	-	-	-	-	-	

7) 전라남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나주시(12.4%)와 무안군(12.3%)은 학생 비중이 높으나, 신안군(4.3%)과 고흥군(5.4%)은 학생 비중이 매우 낮음
- 순이동(전입-전출): 무안군(+166명)이 압도적인 학생 유입을 보인 반면, 나주시(-73명)와 영암군(-67명)은 유출이 두드러짐.
- 교원 안정성: 기간제 교원 비율 평균은 16.9%이며, 보성군(21.4%)과 함평군(21.2%)의 의존도가 높음.
- 사교육 인프라: 학원 인프라는 무안군(212개)과 나주시(170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안군(7개)은 매우 적어 지역 내 편차를 보임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만족도: 진도군(4.50), 신안군(4.04)에서 높게 나타남.
- 외부환경 만족도: 화순군(3.56)과 해남군(3.48)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신안군은 2.75점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사교육 인프라와 연계된 결과에서도 확인됨
- 유학압력: 신안군(2.95)은 상대적으로 유학압력이 높은 반면 화순군(2.64)로 낮아 지역 내 교육 유지 의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됨

〈표 6-10〉 전라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 구별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종단율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육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담당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영광군	32,183	18,213	1.77	0.96	3,547	2,433	7.9	138	98	-40	0.6	492	80	16.3	27	-	372	3.89	3.45	2.52	2.73	3.51
고흥군	60,190	35,280	1.71	0.97	3,260	3,218	5.4	130	137	7	0.7	599	93	15.5	46	2	5	4.00	3.20	3.80	3.40	3.67
곡성군	26,566	15,000	1.77	0.99	1,838	1,825	6.9	68	76	8	1.3	315	58	18.4	20	-	1	3.00	3.00	2.00	3.00	2.33
구례군	24,025	13,402	1.79	0.96	1,606	1,582	6.7	55	66	11	0.6	300	46	15.2	23	1	-	-	-	-	-	-
나주시	116,864	69,951	1.55	1.02	14,623	12,767	12.4	631	538	-93	1.0	1,713	301	17.5	170	26	4	4.80	4.00	4.00	3.25	3.84
담양군	44,623	24,213	1.84	1.02	3,370	3,171	7.6	707	114	-7	1.3	523	88	16.8	18	2	-	-	-	-	-	-
영암군	103,697	44,868	2.07	1.04	11,384	10,359	12.3	337	503	166	0.5	1,317	195	15.2	232	32	4	4.00	3.95	3.98	2.75	3.42
보성군	37,045	21,753	1.72	0.97	2,578	2,588	7.0	87	92	5	0.9	515	110	21.4	21	1	418	4.04	3.40	3.16	2.85	3.21
진도군	36,173	21,064	1.74	1.10	1,635	1,578	4.3	68	50	-18	1.0	462	61	12.7	7	-	28	4.04	3.44	2.75	2.95	3.46
영顺군	52,096	27,900	1.87	1	4,317	4,128	8.3	181	143	-38	1.2	616	128	20.7	66	3	-	-	-	-	-	-
해남군	51,291	28,670	1.79	1.1	4,522	4,239	8.8	176	108	-67	0.7	740	141	19.1	47	-	3	3.33	3.60	3.11	2.33	3.00
완도군	45,631	25,557	1.8	1.07	1,734	3,587	8.3	149	107	-42	0.3	673	87	13.0	57	2	2	5.00	4.00	5.00	4.00	5.00
강진군	42,026	23,170	1.81	1.05	3,552	3,251	8.5	163	127	-36	0.6	529	93	18.7	33	1	1	3.00	3.00	3.00	3.00	3.00
강령군	34,451	19,633	1.75	0.96	3,440	2,350	7.1	94	99	5	0.6	441	65	14.7	30	2	3	3.33	3.67	3.00	3.00	2.78
완주군	284,471	164,486	1.73	0.99	2,096	1,985	7.2	83	76	-7	0.6	373	75	20.2	22	-	16	4.50	3.22	2.91	2.22	3.20
함평군	30,010	17,033	1.68	1.03	2,239	2,057	7.5	97	64	-33	0.6	449	95	21.2	14	1	-	-	-	-	-	-
곡성군	63,120	34,600	1.82	1	4,697	4,580	7.4	166	141	-25	0.7	697	101	14.5	53	8	220	3.94	3.38	3.48	2.80	3.41
신안군	63,735	31,825	1.94	0.98	3,144	5,264	4.9	189	184	5	0.8	693	102	14.7	60	5	72	3.88	3.58	3.56	2.64	3.44
소계	880,092	480,667	1.83	1.0	75,384	70,768	8.0	2,766	2,734	-32	0.8	11,267	1,905	16.9	915	65	691	3.88	3.43	3.26	2.92	3.38

8) 전북특별자치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완주군(9.9%)과 정읍시(9.4%)는 학생 비중이 높은 반면, 임실군(5.8%), 진안군(6.5%)은 학생 비중이 매우 낮아 교육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순이동(전입-전출): 전체적으로 순이동 86명 증대를 기록하며 타 광역 지자체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임. 특히 완주군(+92명)과 순창군(+54명), 임실군(+27명)의 학생 유입이 두드러짐
- 교원 안정성: 고창군(21.5%)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임실군(11.3%)이 가장 낮음
- 사교육 인프라: 완주군(175개)과 정읍시(155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진안군(7개)과 임실군(12개)은 사교육 여건이 매우 취약함.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만족도: 완주군은 3.74점으로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 비율, 순이동 등과 연계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 학습 역량 및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 역량은 3.39로 평균적인 수준이며, 유학 압력은 2.77로 조사되어 지역 내 교육 유지 의사가 높은 편임

〈표 6-1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 구역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종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고창군	50,962	28,600	1.78	1	4,546	4,426	8.9	242	212	-30	0.8	725	156	21.5	43	3	-	-	-	-	-	-
고성시	80,635	43,768	1.84	1	6,460	6,302	8.0	207	193	-14	1.0	1,068	176	16.5	77	9	3	3.67	3.00	3.00	2.33	2.55
남원시	75,647	39,901	1.9	0.96	6,823	6,823	9.0	215	214	-1	0.9	1,021	180	17.6	86	11	1	5.00	5.00	3.67	3.00	3.00
무주군	23,032	13,018	1.77	1.01	1,761	1,760	7.6	50	52	2	1.3	339	49	14.5	17	-	-	-	-	-	-	-
부안군	49,066	27,434	1.75	1	3,645	3,570	7.6	149	134	-15	0.8	674	119	17.5	45	6	1	4.00	4.00	2.67	4.00	2.33
순창군	26,822	14,516	1.85	0.97	2,107	1,993	7.9	62	116	54	0.5	419	72	17.2	19	3	-	-	-	-	-	-
완주군	99,279	49,553	2	1.05	9,826	8,736	9.9	822	914	92	1.0	1,310	183	14.0	175	7	430	3.74	3.50	3.25	2.77	3.39
임실군	25,577	14,909	1.72	1.07	1,492	1,433	5.8	63	90	27	1.0	345	39	11.3	12	-	1	3.00	5.00	3.00	1.00	2.00
진안군	20,663	11,510	1.8	1.01	1,312	1,520	7.3	79	63	-16	0.8	333	49	14.7	13	-	-	-	-	-	-	-
정읍시	102,127	54,514	1.87	1	9,564	9,214	9.4	339	312	-27	0.9	1,386	234	16.9	156	22	-	-	-	-	-	-
전원군	24,161	13,681	1.77	1.05	1,579	1,575	6.5	52	66	14	1.3	395	51	12.9	7	1	1	5.00	4.00	5.00	1.00	1.00
소계	576,991	311,404	1.85	1.0	49,305	47,394	8.2	2,280	2,366	86	1.0	8,012	1,307	15.9	649	62	437	4.07	4.08	3.43	2.35	2.38

9) 충청남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계룡시(13.7%)와 홍성군(11.5%)은 학생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청양군(6.1%)과 태안군(6.6%)은 낮은 학생 비중을 보임
- 순이동(전입-전출): 전체적으로 순이동 -227명으로 유출세가 강함. 특히 보령시(-114명)와 논산시(-94명)의 유출이 두드러지나, 홍성군(+94명)과 계룡시(+31명)는 학생 유입이 발생함
- 교원 안정성: 기간제 교원 비율 평균은 18.8%이며, 서천군(24.5%)과 예산군(22.3%)의 의존도가 높음.
- 사교육 인프라: 홍성군(140개)과 보령시(112개)에 집중되어 있고, 청양군(9개)은 매우 열악함.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만족도: 부여군(4.10)과 공주시(4.18)가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외부환경 만족도: 전반적으로 3점 중반의 점수를 보였으나 청양군과 태안군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유학 압력: 공주시(2.87)와 부여군(2.66)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 교육 유지 의사가 확인됨. 이는 학교 만족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유학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와 연결됨.

〈표 6-12〉 충청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행정 구별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종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광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계룡시	46,340	19,536	2.38	1	6,358	6,132	13.7	407	438	31	0.9	966	89	15.7	63	3	9	3.78	3.44	3.67	3.22	3.74
공주시	101,285	53,537	1.89	1	9,306	8,992	9.2	269	246	-21	0.9	1,394	281	20.3	94	11	137	4.18	3.37	3.31	2.87	3.40
공안군	49,615	26,700	1.86	1.03	3,603	3,635	7.3	93	87	-6	0.7	579	88	15.2	30	4	65	4.37	3.62	3.63	2.59	3.95
논산시	108,529	57,337	1.89	1	10,857	10,810	10.0	442	348	-94	1.1	1,481	326	22.0	100	19	141	4.03	3.39	3.45	2.57	3.38
보령시	93,780	49,296	1.9	1.03	7,877	7,617	8.4	312	198	-114	0.8	1,092	192	17.6	112	8	146	3.90	3.57	3.43	2.78	3.41
부여군	69,560	32,353	1.84	0.99	3,998	3,981	6.7	143	101	-42	0.6	722	131	18.1	40	3	158	4.10	3.58	3.60	2.66	3.27
서천군	48,204	26,424	1.82	0.98	3,377	3,415	7.0	142	102	-40	1.3	638	158	24.5	37	5	3	5.00	4.00	4.22	4.33	4.67
예산군	78,772	40,879	1.93	1.01	7,265	6,935	9.2	313	307	-6	1.1	1,041	232	22.3	68	5	-	-	-	-	-	-
청양군	29,658	16,743	1.77	1.05	1,813	1,850	6.1	81	80	-1	0.9	337	51	15.1	9	1	90	3.96	3.43	2.98	2.84	3.53
태안군	60,133	33,405	1.8	1.03	3,970	3,990	6.6	123	95	-28	1.0	611	106	17.3	42	2	40	3.43	3.43	2.36	3.43	3.70
홍성군	99,198	49,194	2.02	1	11,433	9,997	11.5	353	447	94	0.8	1,239	232	18.7	140	14	-	-	-	-	-	-
소계	775,264	405,364	1.91	1.0	69,856	67,304	8.7	2,678	2,451	-227	0.9	9,690	1,884	18.8	735	75	789	4.08	3.54	3.41	3.04	3.66

□ 2023년 충남지역 시범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교육여건 및 교원 지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6-13〉 충청남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2023년 시범조사)

시도	행정 구역	인구정보				교육통계							기타 정보		설문조사			
		총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성 비율	전년 학생수	학생 비율	학생수 증감	학업 중단율	교원수	기간제	기간제 비율	학원수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충남	공주시	101,772	52,925	1.92	1.00	9,677	9.5	-47	0.9	1,332	199	14.9	112	13	4.42	3.45	3.07	2.67
충남	보령시	95,260	49,600	1.92	1.03	8,175	8.6	-41	0.6	1,126	168	14.9	125	9	4.02	3.23	2.81	2.84
충남	논산시	110,051	57,631	1.91	1.00	11,676	10.6	-141	1.0	1,495	273	18.3	118	17	3.65	3.12	2.70	2.46
충남	계룡시	46,800	19,513	2.40	1.00	6,014	12.9	109	0.8	539	70	13.0	56	5	-	-	-	-
충남	금산군	49,948	26,566	1.88	1.03	3,876	7.8	10	1.0	592	80	13.5	36	3	4.08	3.03	2.73	2.55
충남	부여군	60,731	32,614	1.86	0.99	4,390	7.2	-10	0.6	760	114	15.0	46	4	4.02	3.39	2.90	2.70
충남	서천군	48,947	26,522	1.85	0.98	3,749	7.7	-17	1.1	655	132	20.2	44	4	3.72	3.26	2.54	3.05
충남	청양군	30,012	16,688	1.80	1.05	1,955	6.5	-11	0.7	356	51	14.3	11	1	4.03	3.21	2.50	3.00
충남	홍성군	97,946	47,986	2.04	1.00	10,518	10.7	-47	0.7	1,173	197	16.8	151	14	-	-	-	-
충남	예산군	78,177	40,228	1.94	1.01	6,890	8.8	36	0.9	982	182	18.5	70	5	-	-	-	-
충남	태안군	60,616	33,319	1.82	1.02	4,402	7.3	-19	0.6	652	93	14.3	50	2	3.75	3.35	2.88	2.58

〈표 6-14〉 2023년 시범조사와 2025년 본조사 충남지역 비교

지표	2023년 특징	2025년 변화
기간제 교원 비율	서천군(20.2%)이 가장 높음	서천군(24.5%)로 비중이 더욱 상승함
학업 중단율	서천군(1.1%)이 최고치	서천군(1.3%)으로 여전히 도내 최고 수준 유지
교원 수	논산시(1,495명)가 가장 많음	논산시(1,481명)로 소폭 감소

□ 실태조사의 데이터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0명 미만 응답자인 계룡시와 서천군을 제외한 7개 지역을 2023년 시범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면,

〈표 6-15〉 실태조사 데이터 안정성

행정 구역	2025년 응답인원	학교 만족도 (23→25)	가정 환경 (23→25)	외부환경 만족도 (23→25)	유학 압력 (23→25)
부여군	158명	4.02 → 4.10 (▲)	3.39 → 3.58 (▲)	2.90 → 3.60 (▲)	2.70 → 2.66 (▼)
보령시	146명	4.02 → 3.90 (▼)	3.23 → 3.57 (▲)	2.81 → 3.43 (▲)	2.84 → 2.78 (▼)
논산시	141명	3.65 → 4.03 (▲)	3.12 → 3.39 (▲)	2.70 → 3.45 (▲)	2.46 → 2.57 (▲)
공주시	137명	4.42 → 4.18 (▼)	3.45 → 3.37 (▼)	3.07 → 3.31 (▲)	2.67 → 2.87 (▲)
청양군	90명	4.03 → 3.96 (▼)	3.21 → 3.43 (▲)	2.50 → 2.98 (▲)	3.00 → 2.84 (▼)
금산군	65명	4.08 → 4.37 (▲)	3.03 → 3.62 (▲)	2.73 → 3.63 (▲)	2.55 → 2.69 (▲)
태안군	40명	3.75 → 3.43 (▼)	3.35 → 3.43 (▲)	2.88 → 2.36 (▼)	2.58 → 3.43 (▲)

○ 부여군(158명), 보령시(146명), 논산시(141명), 공주시(137명) 등 100명 이상의 표본이 확보된 지역들은 시범조사와 본조사 간 지표 변화 폭이 0.1~0.4 이내로 매우 안정적임. 이는 조사도구가(설문문항) 응답자에게 일관성 있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부환경 만족도¹⁾가 공통적으로 상승하거나, 가정 환경점수가 학교 만족도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지역적 특성이 연도별로 일관되게 유지(지표의 일관성을 보임)되고 있어 지역의 실태를 반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즉, 응답자 수가 100명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지표의 편차가 작아 데이터가 안정적이며 본 조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10) 충청북도

□ 교육통계 및 인프라

- 학생 수 및 비율: 진천군(12.6%)과 증평군(10.5%)은 학생 비중이 높은 반면, 괴산군(5.0%)은 학생 비중이 매우 낮음
- 순이동(전입-전출): 전체 순이동 -229명으로 분석된 모든 시군에서 유출이 발생함. 특히 증평군(-61명)과 제천시(-54명)의 유출이 큼
- 교원 안정성: 기간제 교원 비율 평균은 12.6%로 타 지역 대비 안정적인 편이나, 음성군(15.0%)의 의존도가 가장 높음
- 사교육 인프라: 제천시(161개)와 진천군(118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괴산군(10개)과 단양군(11개)은 사교육 여건이 매우 취약함

□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만족도: 단양군은 4.05점으로 매우 높으며 진천군 역시 3.77점으로 높게 나타남
- 디지털 학습 역량: 단양군 3.60, 진천군 3.40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보임
- 유학 압력: 단양군 2.83, 진천군 2.75 로 나타나 지역 내 교육 유지 의향이 높음

〈표 6-16〉 충청북도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

시군구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수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괴산군	35,252	21,400	1.69	1.08	1,821	1,762	5.0	106	83	-23	1.1	390	49	12.9	10	-	1	3.00	3.00	2.33	4.00	4.00
증평군	27,352	15,333	1.78	1.04	1,736	1,697	6.3	46	51	5	1.0	296	37	12.5	11	1	107	4.05	3.44	3.30	2.83	3.60
보은군	30,527	16,814	1.82	1.03	2,106	2,026	6.9	74	56	-18	1.3	387	53	13.7	20	3	-	-	-	-	-	-
영동군	43,551	23,715	1.84	1.01	2,980	2,930	6.8	106	84	-22	0.4	450	63	14.0	44	3	-	-	-	-	-	-
옥천군	46,204	25,368	1.9	1.02	3,634	3,586	7.5	87	85	-2	0.7	472	46	9.7	24	3	-	-	-	-	-	-
음성군	91,236	49,269	1.85	1.14	8,786	7,627	9.5	303	255	-48	0.7	1,079	162	15.0	72	10	7	3.57	3.71	3.33	2.43	3.05
제천시	128,589	65,581	1.95	1.03	12,742	11,373	9.5	334	280	-54	0.7	1,302	165	12.7	161	17	3	3.33	3.67	3.69	2.67	3.67
충청군	37,171	18,961	1.96	1.09	3,906	3,745	10.5	177	116	-61	1.7	401	46	11.5	53	4	-	-	-	-	-	-
진천군	86,537	42,976	2.01	1.12	10,919	10,136	12.6	348	342	-6	0.9	1,142	132	11.6	118	11	97	3.77	3.37	3.08	2.75	3.40
소계	529,399	279,717	1.89	1.1	48,130	44,832	8.5	1,581	1,352	-229	0.9	5,909	753	12.6	513	52	215	3.54	3.44	3.19	2.94	3.54

1) 외부환경만족도의 문항은 문항 축소(7문항(학교 밖, 의료, 체육, 문화, 도서관, 진로체험, 친구들과의 공간)→3문항(학교 밖, 의료, 문화))에 따른 문항 변화가 있었음

3. 공공데이터 연계 분석 결과 시사점

□ 앞서 분석한 결과를 실태조사 응답인원이 40명 이상인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한 지역의 특징을 분류하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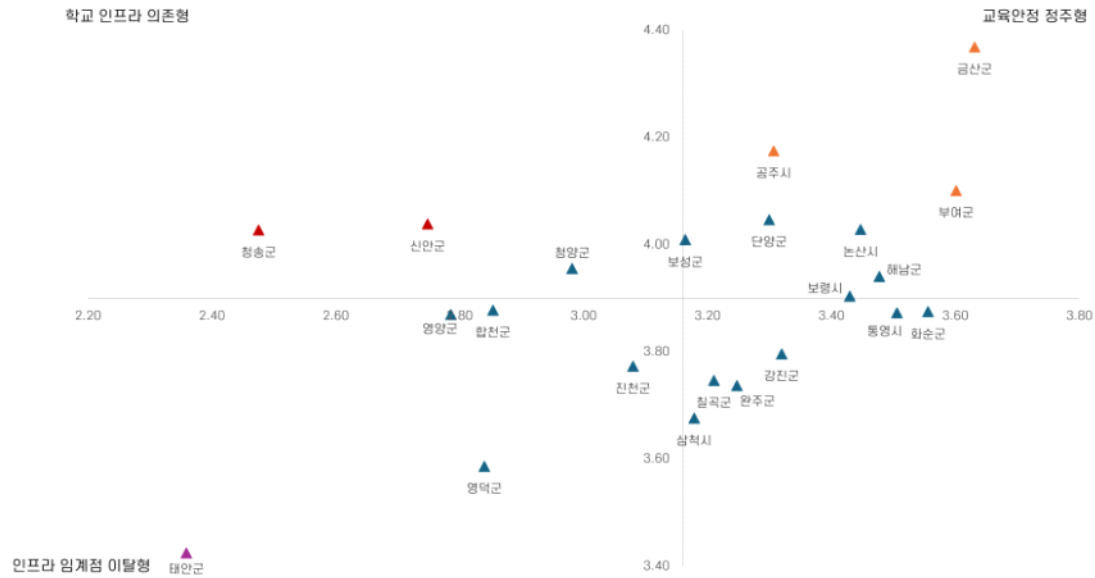
〈표 6-17〉 인구정보-교육통계-실태조사 연계(종합)

구분	행정 구역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고교 고습학원 교육직원	평생직업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경남	합계	61,735	53,687	1.83	1.04	5,073	4,749	8.2	192	144	48	0.7	677	63	9.3	50	8	106	3.88	3.43	3.18	2.90	3.35
경남	부산시	118,481	59,357	2	1.01	13,639	13,422	11.5	335	285	-130	0.8	1,285	225	17.5	206	13	512	3.87	3.43	3.51	2.90	3.51
경남	김해군	40,225	23,587	1.7	0.97	2,237	2,107	5.6	123	143	20	1	489	114	23.3	27	1	41	3.68	3.49	2.85	2.93	3.10
경남	양산시	33,210	19,486	1.7	0.92	1,877	1,809	5.7	127	106	-21	0.5	325	54	16.6	24	-	104	3.58	3.36	2.64	2.84	3.30
경남	창원시	15,328	8,954	1.71	0.99	893	880	5.8	25	22	-3	0.1	356	36	10.4	5	1	123	3.87	3.37	2.79	2.74	3.30
경남	창원시	23,716	13,985	1.7	1.01	1,156	1,065	4.9	75	56	-19	1.4	281	43	15.3	8	-	73	4.03	3.38	2.48	2.75	3.30
경남	창원시	107,383	53,873	1.99	1.11	12,219	11,797	11.4	416	229	-187	0.5	1,311	174	13.3	172	5	436	3.75	3.40	3.21	2.52	3.46
경남	창원시	32,155	18,210	1.77	0.96	2,547	2,439	7.9	108	98	-10	0.6	492	80	16.3	27	-	172	3.80	3.45	3.32	2.73	3.51
경남	보령군	37,045	21,753	1.7	0.97	2,579	2,508	7	87	92	5	0.9	515	110	21.4	21	1	106	4.01	3.40	3.16	2.85	3.21
경남	진주시	38,173	21,364	1.74	1.18	1,635	1,578	4.3	68	50	-18	1	482	61	12.7	7	-	78	4.04	3.44	2.75	2.95	3.46
경남	진주시	53,120	34,600	1.82	1	4,687	4,589	7.4	166	141	-25	0.7	697	101	14.5	53	8	220	3.94	3.36	3.48	2.80	3.41
경남	창원시	50,735	31,825	1.91	0.98	5,144	5,064	8.5	169	134	-15	0.8	693	102	14.7	69	5	72	3.98	3.58	3.56	2.64	3.44
경남	창원시	90,275	49,553	2	1.05	9,826	8,738	9.9	822	914	92	1	1,310	183	14	175	7	430	3.74	3.50	3.25	2.77	3.39
충청	공주시	101,285	53,537	1.89	1	9,305	8,992	9.2	269	248	-21	0.5	1,384	281	20.3	94	11	137	4.18	3.37	3.31	2.87	3.40
충청	공주시	49,615	26,700	1.86	1.03	3,603	3,635	7.3	93	87	-6	0.7	579	88	15.2	30	4	65	4.37	3.62	3.53	2.69	3.65
충청	논산시	108,528	57,337	1.89	1	10,857	10,810	10	442	348	-94	1.1	1,481	325	22	100	19	141	4.03	3.39	3.45	2.57	3.38
충청	보령시	93,780	49,296	1.9	1.03	7,877	7,617	8.4	312	198	-114	0.8	1,092	192	17.6	112	8	146	3.90	3.57	3.43	2.78	3.41
충청	부여군	50,550	31,353	1.64	0.99	3,998	3,581	6.7	143	101	-42	0.6	722	121	16.1	40	3	158	4.10	3.58	3.60	2.66	3.27
충청	청주시	29,658	16,243	1.77	1.05	1,813	1,900	6.1	81	80	-1	0.3	337	51	15.1	9	1	90	3.96	3.43	2.98	2.84	3.53
충청	청주시	60,133	33,405	1.8	1.03	3,970	3,996	6.6	133	95	-28	1	613	106	17.3	42	2	48	3.43	3.43	2.36	3.43	3.70
충청	안산시	27,352	15,333	1.78	1.04	1,736	1,697	6.3	46	51	5	1	296	37	12.5	11	1	107	4.05	3.44	3.30	2.83	3.60
충청	진천군	80,517	42,975	2.01	1.12	10,919	10,135	12.6	348	342	-6	0.9	1,142	132	11.6	113	11	97	3.77	3.37	3.06	2.75	3.40

1) 학교만족도-외부환경 만족도 사분면 교차 분석 결과

□ 먼저, 지역별 학교 만족도와 외부 환경 만족도를 교차 분석하여 놓어준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X축(외부 환경 만족도): 의료, 문화, 사교육 등 기본적인 정주 인프라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적 만족도를 나타냄
- Y축(학교 교육 만족도): 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의미함.
- 두 지표 간의 차이가 1.0점 이상일 경우, 지역 내 인프라 결핍을 학교가 전담하여 보충하고 있는 '과의존' 상태로 판단하며, 이는 학교 폐교 시 지역 소멸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6- 1] 학교만족도-외부환경 만족도 사분면

□ 먼저, 인프라와 교육을 모두 만족하는 정주 안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학교 교육 만족도와 외부환경 만족도가 높은 지역임(1사분면).

-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학교 만족도는 4.10~4.37로 매우 높으며 외부환경 만족도는 3.31~3.6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중 공주시는 학생 비율이 9.2%로 높으며 순이동(-21명)으로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으로 교육 중심의 정주형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금산군은 가장 높은 학교 만족도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유학 압력, 학생 순이동이 거의 없어 농어촌 교육의 높은 만족과 더불어 생활 및 교육 인프라까지 갖추어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과도한 학교 의존형 지역도 나타남. 이는 농어촌 실제 농어촌 현장의 모습으로 학교의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2사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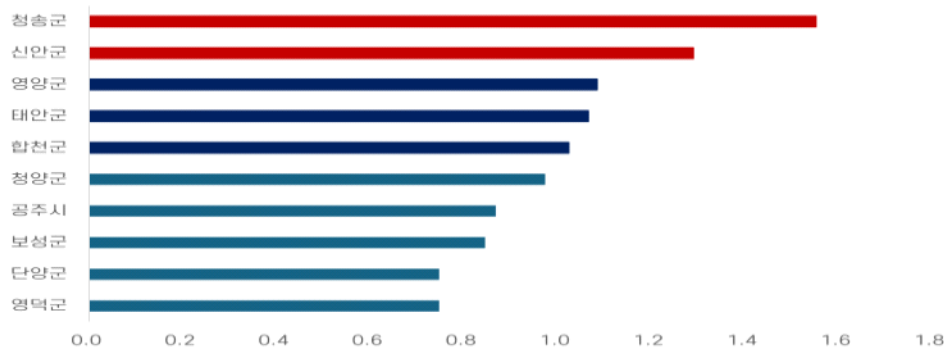
○ 도시지역에서의 학교의 역할과 달리 농어촌에서의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보육 및 돌봄의 핵심이며, 외부 환경 중 의료와 문화가 부족함에도 정주하는 이유는 학교가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교실 등을 통해 도시의 사교육과 문화 시설이 담당해야 할 영역의 상당 부분을 학교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기 때문임.

-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청송군,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학교 만족도는 높지만 외부 생활 환경(사교육, 병원, 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두 지표 사이에 큰 차이(1점 이상)를 보임. 주변 환경이 불편하면 대도시로 떠나려는 유학 압력이 커지기 쉽지만, 이곳은 학교가 지역 내 문화와 복지의 결핍을 채워주며 지역의 사회·문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외부환경 만족도의 하위 임계점을 넘어선 지역도 보임(3사분면).

○ 학교가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도, 외부 환경의 불만이 높아 지역 이탈 욕구가 다소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충청남도 태안군은 실태조사 응답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 중에 외부환경만족도가 2.36로 가장 낮았음. 의료, 문화, 사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가 학생들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벗어났으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핍된 상태로 체감될 수 있음. 이에 유학 압력(3.43)이 학교만족도와 같은 점수(3.43)를 보여 학교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도, 외부 환경의 결핍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지역 이탈 욕구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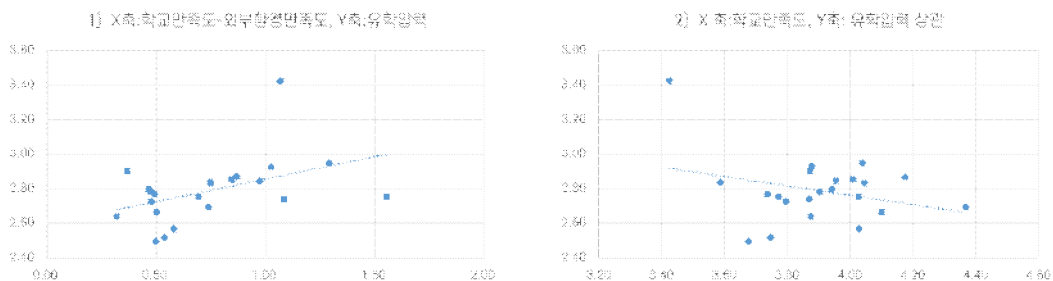
[그림 6- 2] 학교만족도-외부환경 차이 상위 10개 지역

2) 학교만족도, 외부환경만족도, 유학 압력 간 상관분석 결과

□ 학교만족도, 차이점수(학교만족도-외부환경만족도), 유학 압력 간 상관분석 결과

○ 학교생활 만족도와 외부 환경 만족도 간의 차이 점수와 유학 압력과 정(+)의 상관관계($r=0.44$)를 보임. 이는 학교 교육의 성과보다 지역 인프라와의 균형적 발전이 정주의 핵심임을 시사함.

○ 이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유학압력의 상관관계($r=-0.29$)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유학압력이 감소하긴 하지만, 외부 환경과의 격차 해소를 통한 유출 방지 효과(상관계수의 크기가 더 큼)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 3] 학교-외부환경 만족도 차이에 따른 유학압력 상관관계

3) 학생 순이동 분석 결과

□ 다음으로 학생 순 이동이 많은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6-18〉 학생 순 이동 상·하위 지역

지역	시·군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대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사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입학	디지털 학습역량
전남	무안군	92,667	44,868	2.07	1.01	11,384	10,359	12.3	337	503	166	0.5	1,117	175	15.7	212	12	4	4	3.76	3.58	2.76	3.42
경기도	용문군	128,804	63,101	2.01	1.01	10,646	10,418	8.4	396	532	136	1.4	1,216	277	22.8	109	9	2	3	4.5	2.67	3.00	3.17
충남	홍성군	99,190	49,194	2.02	1	11,433	9,997	11.5	353	447	94	0.8	1,239	232	18.7	140	14	-	-	-	-	-	-
전북	완주군	99,279	49,653	2	1.05	9,826	8,738	9.9	822	914	92	1.0	1,310	183	14	175	7	400	3.74	3.50	3.26	2.77	3.39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안동군	31,535	16,709	1.89	1.2	2,637	2,482	8.0	290	187	-103	0.6	397	48	12.1	21	-	-	-	-	-	-	-
경남	통영시	138,401	59,367	2	1.01	13,619	13,422	11.5	395	285	-110	0.8	1,285	226	17.6	206	13	512	3.87	3.43	3.51	2.90	3.51
충남	보령시	93,780	49,256	1.9	1.03	7,877	7,637	8.4	312	198	-114	0.8	1,092	192	17.6	112	6	146	3.90	3.57	3.43	2.76	3.45
경기도	평택시	141,463	73,071	1.94	1.12	11,346	11,009	8.0	593	443	-150	0.9	1,323	160	13.6	111	15	-	-	-	-	-	-
경북	칠곡군	107,383	53,873	1.99	1.11	12,219	11,797	11.4	416	229	-187	0.5	1,311	174	13.3	172	5	494	3.75	3.40	3.21	2.52	3.46

○ 도 내 이동에 의한 인구 유입의 대표적인 예시로 전남 무안군, 충남 홍성군 지역을 들 수 있음

- 대표적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남 무안(남악·오룡지구)은 인근 목포시나 전남 타 시·군에서, 충남 홍성(내포신도시)은 예산군이나 충남 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전라남도 무안군은 학생 순 이동 +166명 증가로 전남권 내 다른 행정구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학령인구 유입을 보임. 관련하여 무안군청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 분석 결과 신도시(남악·오룡지구2)3) 개발에 따른 지역 내 인구 유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학생 비중(12.3%)과 사교육 인프라(학원 212개)가 모두 높음
- 충청남도 홍성군은 충남권 내 계룡시(+31)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구역에서 학생 순이동이 감소한 반면 순이동 +94명으로 충청남도 내 이례적으로 높은 유입을 보임. 관련하여 홍성군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4)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홍성군 내 홍북읍의 인구 증가는 내포신도시 개발 및 충청남도청 이전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학생 비중(11.5%)이 높고 사교육 인프라(학원 140개)가 잘 갖춰져 있어, 지역 내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함.
- 인근 구도심의 젊은 인구가 신도시의 깨끗한 정주 여건과 신설 학교를 찾아 이동하는 지역 내 인구 재배치의 특징을 보이며, 신도시 구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학령인구 집중으로 볼 수 있음.

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109051087177>

3) <http://www.ms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5>

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8/131053566/1>

5) <https://www.chungnam.go.kr/cnportal/media/article/view.do?articleNo=MD0003104518&menuNo=500189&edate=2025-02-20&sdate=2024-02-20&articleSectNo2=500189&pageIndex=8>

- 다음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근에 위치하며, 대도시의 주거·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역을 들 수 있음
- 완주군은 지역 특성상 전주를 둘러싸고 있으며 대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완주군의 교육적 장점을 취하는 가구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학생 수 약 9,800여명(전년도 학생수 8,738명), 학생비율 약 9.9%, 순이동(+92)로 높은 편임. 또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 만족도(3.74)와 디지털 학습역량(3.39)이 높으며, 유학 압력(2.77)은 낮음. 이는 지역 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 외부(대도시)로 나갈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낌. 단, 외부환경만족도(3.25)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 중 의료·사교육 보다 문화 환경의 만족도가 낮아 도시적 기능이 다소 부족하나 행정구역의 복합적인 정책이 실질적 정주 인프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임.

4) 인구정보 분석

-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적 문제나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교육 생태계 유지가 위험한 지역(학생 비율 5% 미만)도 나타남.

〈표 6-19〉 학생 비율 5%미만 지역

지역	시군	인구정보				교육통계										실태조사							
		총인구 수	세대 수	세대당 인구	남녀 비율	학생수 계	전년도 학생수	학생 비율	전출	전입	순이동	학업 중단률	교원수 계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율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응답 인원	학교 만족도	가정 환경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 압력	디지털 학습역량
대구	군위군	22,463	13,404	1.68	1.07	838	850	3.7	63	66	3	1.6	165	14	8.5	7	-	6	4.50	3.50	3.67	3.33	3.06
인천	옹진군	19,996	12,360	1.62	1.31	929	876	4.1	83	41	-42	0.3	226	5	2.2	5	-	-	-	-	-	-	-
전남	신안군	38,173	21,954	1.74	1.18	1,635	1,578	4.3	68	50	-18	1.0	482	61	12.7	7	-	78	4.04	3.44	2.75	2.95	3.46
경북	영성군	48,690	29,104	1.67	0.99	2,219	2,224	4.6	103	77	-26	1.2	456	60	13.2	15	2	-	-	-	-	-	-
경북	영동군	9,099	5,668	1.61	1.29	433	393	4.8	31	31	0	0.8	94	7	7.4	1	-	-	-	-	-	-	-
전북	홍성군	23,716	13,985	1.7	1.01	1,156	1,065	4.9	75	56	-19	1.4	281	43	15.3	8	-	73	4.03	3.38	2.48	2.75	3.30

-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사교육 인프라(학원)가 부족해짐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 10개 내외) 교육 생태계 붕괴 위험이 가속화될 수 있음.
- 반면, 인구 및 교육 통계 지표는 매우 낮지만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 지역임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인구 정보 중 남녀 비율 1.31로 성비 불균형이 가장 극심하며, 세대당 인구(1.62명) 또한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학생 비율이 4.1%로 매우 낮으며 사교육 인프라(학원 5개)가 전무하여 도서 지역 특유의 고립된 교육 환경을 보임.
- 전라남도 신안군은 학생 비율 4.3%로 전남 내 최저 수준이며 순이동(-18명)도 감소됨. 인구 정보 및 교육통계적 데이터의 전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학교 만족도(4.04)와 디지털 역량(3.46)은 상위권으로 나타남.

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210460000538>

- 경상북도 의성군 역시 학생 비율 4.6%로 경북 내 최저 수준이며 세대당 인구(1.67명)가 매우 낮음. 학업 중단율(1.2%)이 타 지역 대비 높고 사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임
- 경상북도 청송군 역시 학생 비율 4.9%로 낮으며 학업 중단율(1.4%)이 타 지역 대비 높고 사교육 학원 수가 10개 미만으로 열악함.

5) 소계

□ 하드데이터(인프라)와 실태조사(교육, 외부환경 만족도)의 관계에서 지역별 특징을 요약하면,

○ 교육 만족 정주형(충남 금산군, 충남 공주시)

- 높은 학교 교육 만족도로 교육이 정주를 견인하는 지역임. 더불어 생활 및 교육 인프라까지 갖추어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학교 의존형(경북 영양·청송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외부 인프라(의료·문화)의 결핍을 학교가 전담하여 보충하는 공교육의 사회적 대행 지역임.
- 학교 만족도와 외부 환경 간의 격차가 1점 이상으로 크다는 것은 학교 폐교가 곧 지역의 인프라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인프라 임계점 이탈형(충남 태안)

- 학교의 교육 서비스가 우수하더라도, 외부 인프라의 결핍으로 정주를 방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학교 만족도와 유학 압력이 같은 결과를 보여 교육 외적 요소(의료, 문화)가 교육 성과를 넘어서지 못하여 이탈위험이 큰 지역임

○ 신도시 기반 인구 재배치형(전남 무안군, 충남 홍성군)

- 대도시 구도심의 젊은 층이 쾌적한 정주 여건과 신설 학교를 찾아 이동하는 도심 내 확장 이동 양상을 보임
- 높은 학생 비중(11%~12%)과 사교육 인프라(학원 140개~210개)가 공교육과 결합되어 지역 내 교육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교육 생태계 붕괴 위험형(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 인구 정보(성비 불균형, 세대 당 인구 최저)와 낮은 학생 비율(4%대), 사교육 전무 등 인구 구조적 소멸의 징후가 뚜렷한 지역임.

4. 환류체계 제안

- 앞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농어촌 교육 환경은 학교 내부 요인과 지역사회 인프라, 가구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임. 따라서 단편적 수치를 넘어 교육 생태계 전반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진단 도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와 실태조사를 통합한 농어촌 교육 설명지수를 통해 정책 대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핵심 성과지표의 표준화($z-score$)과정을 통해 가중치를 결합한 복합지수로 구성
- 학생 비율(구조)과 유학 압력(심리)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선순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핵심지표 구성

〈표 6-20〉 농어촌 교육 설명지수 핵심 지표

핵심 지표	지수 내 구성 요소	가중치	내용
학교교육 만족도	교육의 질	0.3	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 지표
외부환경만족도	정주 인프라	0.2	기초적인 정주 여건(체감형)
학생 비율	교육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구조적 여건	0.15	총 인구수 대비 학생 비율
유학 압력	정주 지속력	0.25	학생이 체감하는 부모의 유학 압력 1-유학압력(낮을수록 좋음)
학업 중단율	학업 안정성	0.10	지역 내 교육적응 및 학업 이탈방지 1-학업중단율(낮을수록 좋음)

〈표 6-21〉 농어촌 교육 설명지수 산출 예시

지역	시군	학생비율	학업 중단율	학교 만족도	외부환경 만족도	유학압력	z학생 비율	z학업 중단율	z학교 만족도	z외부환경 만족도	z유학 압력	복합지수	등급
충청남도	공산군	7.3	0.7	4.37	3.63	2.69	0.36	0.54	1.00	1.00	0.79	80.5	S
충청남도	부여군	6.7	0.6	4.10	3.60	2.66	0.29	0.62	0.72	0.98	0.82	72.0	A
충청남도	논산시	10	1.1	4.03	3.45	2.57	0.69	0.23	0.64	0.86	0.92	71.9	A
경상북도	영주군	11.4	0.5	3.75	3.21	2.52	0.86	0.69	0.34	0.67	0.98	67.8	A
전라남도	화순군	8.5	0.8	3.88	3.56	2.64	0.51	0.46	0.48	0.94	0.85	66.5	A
충청남도	공주시	9.2	0.9	4.18	3.31	2.87	0.59	0.38	0.79	0.75	0.60	66.4	A
경상남도	통영시	11.5	0.8	3.87	3.51	2.90	0.87	0.46	0.47	0.90	0.56	63.9	A
전라남도	해남군	7.4	0.7	3.94	3.48	2.80	0.37	0.54	0.55	0.88	0.68	61.9	A
충청남도	보령시	8.4	0.8	3.90	3.43	2.78	0.49	0.46	0.51	0.84	0.69	61.4	A
충청북도	간성군	12.6	0.9	3.77	3.08	2.75	1.00	0.38	0.37	0.57	0.72	59.3	B
전라남도	강진군	7.9	0.6	3.80	3.32	2.73	0.43	0.62	0.39	0.76	0.75	58.3	B
광원특별자치도	상주시	8.2	0.7	3.68	3.18	2.50	0.47	0.54	0.27	0.64	1.00	58.3	B
충청북도	단양군	6.3	1	4.05	3.30	2.83	0.24	0.31	0.66	0.74	0.64	57.2	B
전라남도	보성군	7	0.9	4.01	3.16	2.85	0.33	0.38	0.62	0.63	0.62	55.4	B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9.9	1	3.74	3.25	2.77	0.67	0.31	0.33	0.70	0.71	54.8	B
경상북도	영양군	5.8	0.1	3.87	2.79	2.74	0.18	1.00	0.47	0.34	0.74	52.0	B
충청남도	영양군	6.1	0.9	3.96	2.98	2.84	0.22	0.38	0.56	0.49	0.62	49.4	B
전라남도	신안군	4.3	1	4.04	2.75	2.95	0.00	0.31	0.65	0.31	0.51	41.5	B
경상남도	합천군	5.6	1	3.88	2.85	2.93	0.16	0.31	0.48	0.39	0.54	41.0	B
경상북도	철송군	4.9	1.4	4.03	2.48	2.75	0.07	0.00	0.64	0.09	0.72	40.1	B
경상북도	영덕군	5.7	0.5	3.59	2.84	2.84	0.17	0.69	0.17	0.38	0.63	38.0	C
충청남도	태안군	6.6	1	3.43	2.36	3.43	0.28	0.31	0.00	0.00	0.00	7.2	C
	max	12.6	1.4	4.37	3.63	3.43							
	min	4.3	0.1	3.43	2.36	2.50							

- 본 연구는 도출된 농어촌 교육 설명지수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정주 여건을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관리 체계를 제안함. 이는 교육 성과가 열악한 외부 환경에 의해 상쇄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최종적으로는 통합적 정주 관리 환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S등급] 해당 지역의 특정 교육 모델을 표준 모델로 개발(확산),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정책 및 관련 변수 심층 분석(현상 유지)
- [A등급] 부족한 특정 지표(예: 문화 환경 만족도)를 우선 개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결핍된 지표의 구체적 항목(의료, 쇼핑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 [B등급] 교육 및 인프라 복합 사업이 필요한 곳으로 학교 폐교 예방 및 학교 시설의 마을 내 다목적 거점화 사업 추진, 또한 상시적으로 마을 구성원(학부모, 교사 등)의 이주(이직) 의향 및 정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탈 징후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
- [C등급] 교육청-지자체 협력으로 근본적인 인프라 재건이 필요함. 실제 유출 가구의 이주 원인 조사를 통해 임계점 붕괴의 결정적 원인 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함
- 농어촌 교육설명지수를 S(교육과 정주 환경 구조 안정), A(인구 또는 인프라 보완 시 안정권 집인), B(교육 만족도가 인프라 결핍 보완), C(인프라 우선 투입)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가능
- 본 지표 체계는 ‘학업 중단율’이나 ‘학생 수 감소(순이동)’처럼 발생된 후 나타나는 후행 지표와 더불어 ‘유학 압력’과 ‘정주 지속력’처럼 향후 발생할 인구 유출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함
- 이는 농어촌 교육 여건을 다각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교육과 인프라가 결합된 맞춤형 모델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Ⅶ. 결론

- 본 연구는 학생, 보호자, 교사 등 농어촌 교육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학교 구성원 및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공공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여 농어촌 교육의 실질적인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진단하였음.
- 분석 결과, 농어촌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학교 소규모화,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정주 여건과 교육 만족도의 결합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도출함
- 위험한 학교 인프라의 과의존성
 -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학생 비율 5% 미만), 외부 환경 만족도가 낮은 지역 중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학교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학생 비율 감소에 따른 학교 밖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음. 이는 교육 인프라 소멸에 따라 지역 공동체 내에서 학교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돌봄, 문화, 정서를 아우르는 사회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학교 만족도와 정주 환경 만족도 간 차이가 1.0 이상인 지역은 지역 정주 유지 가능성이 학교라는 단일 기관에 집중된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함을 의미함. 이는 학교가 폐교될 경우, 정주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연쇄적 지역 소멸의 가능성을 시사함
 - 학교생활 만족도와 외부 환경 만족도 간의 차이 점수와 유학 압력과 정(+)의 상관관계($r=0.44$)를 보임. 이는 학교 교육의 성과보다 지역 인프라와의 균형적 발전이 정주의 핵심임을 시사함. 이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유학압력의 상관관계($r=-0.29$)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유학압력이 감소하긴 하지만, 외부 환경과의 격차 해소를 통한 유출 방지 효과(상관계수의 크기가 더 큼)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 내부 역량 강화라는 학교 단위 정책에서,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 단위의 정주 생태계 복원으로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필요함을 시사함
- 교육 주체별 인식 불일치와 지역 이탈 결정 요인
 - (학생) 초등학교 시기에는 높은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을 보이지만,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현실적인 유학 압력(도시 진학 욕구)에 직면함. 즉 상급 학교 진학 시점에서 도시 지역 교육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학업 목적의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함
 - (보호자) 실제 이주 결정권을 가진 보호자의 경우, 학생보다 지역의 문화·의료 인프라 결핍을 훨씬 심각하게 체감하며(학생 3.44점, 보호자 2.59점), 이것이 자녀 교육 문제보다 더 큰 이주 원인(56.0%)으로 작용함

- (교사) 열악한 주거 환경 및 행정적 부담이 직무 지속성을 저해하여 이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 요인임
- 결국, 지역 내 학생 비율을 높이고 지역 내 정주를 위해서는 이주 결정권을 가진 보호자의 정주 만족도(주변 환경 중 의료, 문화 등)를 높이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지역 유형별 맞춤형 우선 과제 선정
 -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어촌 교육 설명지수와 5가지 농어촌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S/A등급 (교육 안정 정주형): 교육과 정주 여건이 선순환하는 지역으로, 현재의 교육 모델을 타 농어촌 지역 및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 사례로 확산 필요
 - B등급 (학교 의존형): 외부 인프라의 결핍을 학교가 메우고 있는 지역임. 이곳은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학교를 지역 전체를 위한 문화·복지 센터로 개방하여, 학교의 기능을 지역 사회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됨
 - C등급 (인프라 임계점 이탈형): 학교 교육이 우수해도 기초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주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임. 이곳은 교육청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정부 차원의 긴급 정주 인프라(의료, 주거) 투입이 우선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농어촌 교육 살리기는 학교 안의 수업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활 환경 인프라의 임계점을 넘은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의 교육서비스 효과가 상쇄됨을 확인함
- 이에 따라 향후 농어촌 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함
 - (지표 기반 관리) 정기적인 농어촌 관리 지수 산출을 통해 지역별 위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환류 체계 구축
 - (공간의 재구성) 학교를 학생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 소멸을 막는 마을 공동체의 거점(지역화)으로 재정의 필요
 - (다층적, 다각적 접근)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정주 여건 등 인프라가 결합된 통합적 정주 생태계 조성 필요
- 향후 연구 고도화를 위한 조사 설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현재 실태조사의 구조는 동일 시점의 지역 간 비교에는 강점이 있으나, 인구 유출의 핵심 기제인 학교급 전환에 따른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 설계 고도화 방안을 제안함
 - (시계열 조사 체계 구축)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 변화와 정주 의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격년 주기 조사 정례화를 제안함. 특히 학교급 전환기를 고려한 주기 설정하고, 동일 집단 또는 코호트 집단을 설정하여 추적하는 종단적 분석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학교급 전환기 특화 문항 도입) 현재 학생 실태조사의 모든 학교급별 공통 문항 체계를 유지하되 상급 학교 진학 의사, 상급학교 결정 요인, 학업 성취도에 따른 도시 이탈 의향 등 전환기 전용 문항의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시점에서 발생하는 만족도 하락의 실질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공공 데이터 연계 확장) 설문 결과와 지역별 실제 진학을 등 행정 데이터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인식(진학 의사)과 실제 행동(정주 이탈) 간의 연관성을 파악함. 또한 생애주기적 교육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데이터 신뢰성 제고) 이번 조사는 시·군에 따른 응답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연구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학교에서는 바쁜 일정에 밀려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별 응답률의 편차를 초래하고 결측치를 늘려 전체 통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부의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거나 법령상 실태조사의 지위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함.
- (사전 행정 승인 구조 마련)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일선 교육 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미리 협의하여, 교육 지원청 단계에서 별도의 검토 없이 학교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함.
- 행정구역 단위 분석에서 나아가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영향 요인을 발굴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가구 형태별 정주 기제 차별화) 귀촌(이주) 가구와 전통적 농어촌 정주 가구의 교육 수요 및 지역 만족도 차이 분석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이질적 정주 기제를 도출하여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 기초자료 마련하고자 함
 - (교육 제도 실효성 검증) 농어촌 특별전형 등 대학입시 제도가 실질적인 정주 유인책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제도가 지역 잔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지역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를 지속적으로 검증·보완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물리적·비물리적 요인의 균형적 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난 물리적 요인의 높은 불만족도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중심 분석을 수행함. 추후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 등 교육 정서적 요인을 결합한 통합 지수로 고도화하고자 함
 - (다각적 지역 내 격차 반영 지수 개발) 농어촌 내에서도 발생하는 인프라 접근성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수를 보완하여,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VIII. 참고문헌

- 고정국, 이민우(2024). 농어촌 청년의 생활여건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33(4), 439-450.
- 김경태, 김은주, 김지현(2024).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농어촌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2(2), 151-167.
- 이로(2025). 농촌의 초·중등학교 STEM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미국과 호주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5), 597-606.
- 이지나, 황명진, 박소영(2025).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보호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리뷰, 10(1), 225-244.
- 황명진, 최성욱, 김형석, 이지나, 이희준(2023).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R2023-10.
- 황지원, 양희준, 길혜지, 김휘영(2023).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모델 개발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KoRec-202301
- 황혜민, 김효정(2025).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학교 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인식조사: 초등학교 학부모와 미술강사를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371-403.
- 농촌진흥청(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부록 1] 설문지 최종(안)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및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교육에 도움이 될 적절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025년 11월

연구책임자 **황지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황지원**(서울시립대학교, vtedu11@uos.ac.kr)

문의처 **문지영**(서울시립대학교, jymoon00@uos.ac.kr)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I. 기본항목

S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S2 태어난 연도를 네 자리로 적어 주세요.

2	0		
---	---	--	--

 년

S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급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일반계)
- ④ 고등학교(특성화)

S5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 및 자매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S6 살고 있는 곳을 시·군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군·구

S7 살고 있는 곳은 읍·면·동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읍 지역 ② 면 지역 ③ 동 지역

Ⅱ. 교육여건 및 현황

※ 학교 교육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모니터, 스크린 등)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의 냉난방시설(에어컨, 난방기 등)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체육관, 강당, 운동기구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보건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급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습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발표나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약간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선배·후배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전체적인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 ① 고등학교 수준 ② 전문대학(2-3년제) 수준
③ 대학(4년제) 수준 ④ 대학원(석사, 박사) 수준

5 (고등학생만 응답) 본인의 장래 발전(진학 및 취업 등)을 위해 현 교과
과목 이외에 추가로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 ① 특별히 없다
- ② 영어 회화 과목
- ③ 코딩 작업등을 위한 정보화 관련 과목
- ④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통계 과목
- ⑤ 농림어업 분야의 기술 과목
- ⑥ 예체능 과목
- ⑦ 기타(본인이 생각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가정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가정 환경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정은 행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에서 용돈은 필요한 만큼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나의 공부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이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신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약간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1) 같이 살고 있는 어른들과의 관계(부모님, 조부모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정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 (못 산다)
- ② 중하 (못 사는 편이다)
- ③ 중 (보통이다)
- ④ 중상 (잘 사는 편이다)
- ⑤ 상 (잘 산다)

※ 지역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9 살고 있는 지역에 다음과 같은 환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원, 과외 등 학교 밖에서의 교육 기 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보건소, 병원 및 의료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등)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교육활동 및 성취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수업시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자주 하는 편이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에서 받는 다음 교과목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20% 이하	21~40%	41~60%	61~80%	81~100%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12 최근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①	①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①
3) 미래 기술 관련 활동(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①	①
4)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①
5)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 응급처치 등)	①	①
6)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①

13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예. 스카우트, 누리단·한별단, 해양소년단 등)	①	①
2)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①
3)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 단체 포함)	①	①

14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매우 못 한다
- ②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잘 한다

※ 자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필요한 학습 자료를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 과제 수행 시 디지털 도구(문서, 슬라이드, 간단한 영상 편집 등)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디지털 역량(AI, 코딩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보호자)이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꿈(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Ⅳ.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1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주변 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9-1

(문19에서 '2) 주변 환경 만족도'에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와 '②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원, 도서관 등 교육환경이 좋지 못해서
- ② 병원 등 보건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 ③ 학교 교육이 충분하지 못해서
- ④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 ⑤ 문화시설(영화관, 박물관 등)이 부족해서
- ⑥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 ⑦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⑧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0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도시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고 싶습니까?

※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진학,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을 의미

- ① 그렇다 (☞ 20-1번 문항으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20-2번 문항으로 이동)

20-1

(문20에서 '①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 ② 경기, 인천
- ③ 가까운 대도시
- ④ 동일 지역 내의 읍 지역

20-2

(문20에서 '②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도시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좋아서
 ② 학원, 도서관 등 교육환경이 충분해서
 ③ 학교 다니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④ 현 지역의 체육 및 문화시설이 좋아서
 ⑤ 가족들과 멀어지기 싫어서
 ⑥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1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내가 도시 지역 학교로 가기를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2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더 큰 학교로 합쳐지는 것(통폐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22-1번 문항으로 이동)
 ② 반대 (☞ 22-2번 문항으로 이동)

22-1

(문22에서 '① 찬성'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더 큰 학교로 합쳐지는 것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더 다양하고 많아질 것 같아서
 ② 학교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③ 진학지도나 진학정보 제공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④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귄다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2-2

(문22에서 '② 반대'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더 큰 학교로 합쳐지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학교의 교육에 만족하고 있어서
- ② 현재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이 좋아서
- ③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 ④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서
- ⑤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3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호자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및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교육에 도움이 될 적절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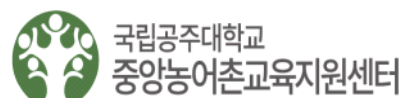
2025년 10월

연구책임자 **황지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황지원**(서울시립대학교, vtedu11@uos.ac.kr)

문의처 **문지영**(서울시립대학교, jymoon00@uos.ac.kr)



I. 기본항목

S1 보호자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S2 보호자님의 출생년도를 네 자리로 적어 주세요.

1 9 년

S3 보호자님은 학생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할아버지
- ④ 할머니
- ⑤ 친척
- ⑥ 기타(적어주세요:)

S4 보호자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학(2-3년제) 졸업
- ⑤ 대학교(4년제) 졸업
- ⑥ 대학원 이상(석, 박사) 졸업

S5 보호자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십니까?

(다문화 가정: 부부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이거나 대한민국 귀화 국적 취득자인 경우)

- ① 예
- ② 아니오

S6 설문지를 받아온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설문 응답 사이트 주소를 가져온 자녀를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 ① 남자
- ② 여자

Ⅱ.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 및 현황

※보호자님께서서는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학교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을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4) 급식을 맛있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학교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호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해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주민의 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는 지역사회와 잘 협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는 학부모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상급학교 진학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의 학교 통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km 미만
- ② 1km 이상 3km 미만
- ③ 3km 이상 5km 미만
- ④ 5km 이상 10km 미만
- ⑤ 10km 이상
- ⑥ 잘 모름

3-1 자녀의 학교 통학 수단 및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통학수단	소요 시간
도보	()시간 ()분
대중교통	()시간 ()분
자전거	()시간 ()분
통학 버스	()시간 ()분
통학 택시	()시간 ()분
자가용	()시간 ()분
합계	()시간 ()분

3-2 자녀의 학교 통학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3 (질문 3-2에 ①, ②로 응답한 경우만 해당) 희망하시는 자녀의 통학 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가용 ④ 대중교통 ⑤ 통학버스 ⑥ 통학택시
⑦ 기타(적어주세요:)

4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해당하는 부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과정 개설 여부			참여 여부		
	개설	미개설	잘 모름	참여	미참여	잘 모름
1) 국어/논술	①	②	③	①	②	③
2) 영어	①	②	③	①	②	③
3) 수학	①	②	③	①	②	③
4) 예체능	①	②	③	①	②	③

4-1 (4번 문항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경우만 응답) 자녀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②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받으므로
③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④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⑤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⑥ 방과 후 학생을 돌봐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⑦ 기타(적어주세요:)

5 귀하가 보호자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떻게 참여하시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학교소식(가정통신문 등)을 잘 읽고 학교 일정과 상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예회, 전시회, 운동회 등의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6 평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할 때,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30분 미만)
- ② 30분 이상~1시간 미만
-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④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7시간 미만

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자녀와 함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1) 영화 관람, 공연보기 등 문화 체험	①	②
2) 놀이공원 가기, 가족여행 등	①	②
3) 운동, 등산, 산책 등 신체 활동	①	②
4) 외식	①	②

8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고등학교	전문대학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이상 (석사, 박사)
1) 희망교육 수준	①	②	③	④
2) 가능교육 수준	①	②	③	④

9 자녀 양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의 온라인 학습 환경 및 미래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집에는 자녀가 온라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디지털 기기(PC, 태블릿)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미래 진로를 위해 디지털 역량(AI 이해, 코딩 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의 디지털 학습을 위해 정보화 기기 구매나 인터넷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데 부담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다음과 같은 환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원, 과외 등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 기 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보건소, 병원 및 의료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등)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도서관, 공부방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지역은 자녀의 디지털 역량(코딩, 정보화 등)을 키울 수 있는 학원이나 교 육 기관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교육활동 및 성취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자녀의 현재 성적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 (못한다)
- ② 중하 (못하는 편이다)
- ③ 중 (보통이다)
- ④ 중상 (잘하는 편이다)
- ⑤ 상 (잘한다)
- ⑥ 잘 모르겠음

13 학업 성적 이외에 자녀의 여러 측면의 발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성(도덕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성(협동심)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의 일을 알아서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신체가 잘 발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공부 이외에 특기(잘하는 것)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14 귀하의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주변 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거주지에서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하십니까?

- ① 희망한다 (☞ 15-1번 문항으로 이동)
 ② 희망하지 않는다 (☞ 15-2번 문항으로 이동)

15-1

(문15에서 '① 희망한다'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거주이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② 통학 여건이 불만족스러워서
 ③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④ 사회적 인프라(시설, 환경 등)가 좋지 않아서
 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일자리, 소득 등)
 ⑥ 아이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⑦ 기타(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5-2

(문15에서 '② 희망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현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② 통학 여건이 만족스러워서
 ③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④ 사회적 인프라가 좋아서
 ⑤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서(일자리, 소득 등)
 ⑥ 자연 환경이 좋아서
 ⑦ 기타(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6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도시(읍지역 포함) 지역 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적이 좋으면 도시 지역 학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1

(문16의 (1)에서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 ① 서울 ② 경기, 인천
 ③ 가까운 대도시 ④ 동일 지역 내의 읍 지역

16-2

(문16의 (1)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도시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좋아서
- ② 학원, 도서관 등 교육환경이 충분해서
- ③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 ④ 일부러 비경쟁적인 환경을 찾아온 것이어서
- ⑤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 ⑥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7

귀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보다 큰 학교에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17-1번 문항으로 이동)
- ② 반대 (☞ 17-2번 문항으로 이동)

17-1

(문17에서 '① 찬성'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학교 통폐합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시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 ② 현재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 ③ 진학 등 교육관련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④ 자녀가 지금보다 많은 학생들과 지내기를 바래서
- ⑤ 통학이 불편해서
- ⑥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 ⑦ 기타(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7-2

(문17에서 '② 반대'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시설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 ② 현재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해서
- ③ 진학 등 교육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 ⑤ 가까운 학교여야 통학이 편리해서
- ⑥ 학생 수가 적어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8

농어촌 교육 지원 방안으로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학금,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
- ② 통학버스 등 통학 여건의 개선
- ③ 낙후된 학교교육시설의 개선
- ④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교 통합
- ⑤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 활동 지원
- ⑥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업성취 지원
- ⑦ 기타(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9

농어촌지역에서 학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지도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민들의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민 통합 및 화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어촌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및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농어촌 지역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교육에 도움이 될 적절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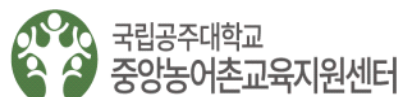
2025년 10월

연구책임자 **황지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황지원**(서울시립대학교, vtedu11@uos.ac.kr)

문의처 **문지영**(서울시립대학교, jymoon00@uos.ac.kr)



I. 기본항목

S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S2 선생님의 출생 연도를 네 자리로 적어 주세요.

1 9 년

S3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학 졸업
- ② 석사 졸업
- ③ 박사수료 이상

S4 학교 소재지 주소를 읍·면·동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읍·면·동
(예시: ○○군 △△면, ○○시 △△동)

S5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국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 ① 국공립
- ② 사립

S6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S6-1 근무하시는 학교는 다음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아니오
기숙형 학교(중고등학교)	①	②
자율형 학교(중고등학교)	①	②

S7 (고등학교만 해당) 학교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계고
- ② 전문계고

S8 근무하시는 학교는 복식학급을 운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S9 교직경력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년	월
1) 총 교직경력	()	()
2) 농어촌학교 근무 연수 (읍·면·도서벽지 소재 학교)	()	()
3) 현 학교 근무 연수	()	()

S10 학교에서 맡고 계신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교장·교감
- ② 부장교사
- ③ 교사
- ③ 기간제 교사
- ④ 기타(적어주세요:)

S11 현재 담임을 맡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S11-1 (문11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몇 학년 담임을 맡고 계십니까?

()학년

S12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 및 담임학급의 학생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학교 전체	학년 전체	담임 학급
학생수	()명	()명	()명

Ⅱ. 학교여건 및 현황

1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의 교육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의 냉난방시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체육관, 강당, 운동기구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보건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급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교직원 복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시설 여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의 풍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해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주민의 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는 학부모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상급학교 진학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원, 과외 등 학교 밖에서의 교육 기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보건소, 병원 및 의료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도서관, 공부방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방과후 학교 강사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주민의 협조와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육청의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사회단체나 기업의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학교 교육활동

4 근무하시는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 시간에 발표와 질문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에게 견학, 음악회,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AI,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관련 교육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의 사항이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방해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의 사교육	①	②	③	④	⑤
2) 학급 내 학생들의 능력 수준 차이	①	②	③	④	⑤
3) 과제물을 해 오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①	②	③	④	⑤
6) 수업 외 학생 지도 부담	①	②	③	④	⑤
7) 진도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⑤
8) 수업 중 학생들의 산만함	①	②	③	④	⑤
9) 학교 행사로 인한 수업 시간 부족	①	②	③	④	⑤
10)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	①	②	③	④	⑤
11) 학부모의 지나친 무관심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은 반 학생들에 대하여 다음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합니까?

	거의 매일	1주일 1~2번	1달 1~2번	1학기 1~2번	1년 1~2번	거의 하지 않음
1) 학습·진로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생활이나 태도와 관련하여 개인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학생의 학업·진로와 관련하여 학부모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선생님은 주로 어떤 문제로 학생과 상담을 하십니까?
가장 많은 내용을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진로, 진학 문제
- ② 친구(이성) 문제
- ③ 가정배경(경제적, 부모님 관계 등)
- ④ 성적 문제
- ⑤ 기타(적어주세요:)

8 선생님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정규수업 기준)는 몇 시간이십니까?

()시간

9 주당 방과후 수업 지도는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시간

N. 교육결과

10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0~19% ② 20~39% ③ 40~59% ④ 60~79% ⑤ 80~100%

11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학생 개인의 수준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① 0~19% ② 20~39% ③ 40~59% ④ 60~79% ⑤ 80~100%

12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학생들에 대하여 다음 행동의 심각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없거나 매우 경미함	경미한 문제	다소 심각한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
1) 지각/결석 등	①	②	③	④
2) 교실 소란 행위	①	②	③	④
3) 시험 부정 행위	①	②	③	④
4)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①	②	③	④
5) 다른 학생에 대한 협박과 모욕, 폭력	①	②	③	④
6) 교직원에 대한 협박과 모욕, 폭력	①	②	③	④
7) 흡연/담배 소지	①	②	③	④
8) 음주/술 소지	①	②	③	④
9) 기타 비행	①	②	③	④

13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나는 현 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 학교에서 좋은 교육적 경험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현 학교에서의 교직원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나는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생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급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교과 간 융합 수업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업 시간에 디지털 도구(AI 도구, 태블릿, 학습 플랫폼 등)를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15 선생님의 주된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① 학교 소재 시군 내 ② 타 지역 ③ 학교 사택

15-1 (문15에서 '② 타 지역'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래부터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
 ② 자녀의 교육문제
 ③ 배우자의 직장문제
 ④ 문화 생활 영위의 어려움
 ⑤ 기타(적어주세요:)

16 선생님의 학교 통근 수단 및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통근수단	소요 시간
1) 도보	()시간 ()분
2) 대중교통	()시간 ()분
3) 자전거	()시간 ()분
4) 오토바이	()시간 ()분
5) 자가용(카풀 포함)	()시간 ()분
합계	()시간 ()분

17 선생님의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주택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주거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8 선생님께서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향이거나 연고지역이어서
- ② 농어촌 지역 근무를 희망해서
- ③ 생활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지원
- ④ 승진 가산점 때문에
- ⑤ 초빙교사
- ⑥ 신규 배치(행정)에 의한 배치
- ⑦ 순환근무제에 의한 배치
- ⑧ 기타(적어주세요:)

19 현 학교나 인근 농어촌 학교에서 기간 제한 없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다면 계속 근무하시겠습니까?

- ① 예 (☞ 19-1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19-2번 문항으로 이동)

19-1 (문19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학교 생활이 보람있다고 느껴서
- ② 아이들과 정이 들어서
- ③ 지역 연고가 있기 때문에
- ④ 승진 가산점 등 행정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 ⑤ 학생이 적어서 교육하기 좋아서
- ⑥ 기타(적어주세요:)

19-2 (문19에서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계속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학교 생활이 흥미가 없어서
- ② 주변 환경이 너무 무료해서
- ③ 도시 지역의 큰 학교에서 생활해보고 싶어서
- ④ 학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20 농어촌 교육 지원 방안으로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학금,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
- ② 통학버스 등 통학 여건의 개선
- ③ 낙후된 학교교육시설의 개선
- ④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교 통합
- ⑤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 활동 지원
- ⑥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업성취 지원
- ⑦ 기타(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21 농어촌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다음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 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학교 소재 지역에 주택지원을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장공모·초빙교원제를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승진·전보 가산점을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내 계속근무연한을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근무수당을 확대·인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선적으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사의 자발적 열의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선생님께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가 더 큰 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22-1번 문항으로 이동)
- ② 반대 (☞ 22-2번 문항으로 이동)

22-1 (문22에서 ‘① 찬성’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선생님께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가 더 큰 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업 시수, 업무 분장 등 근무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 ② 학생들에 대한 진학 및 진로지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 ③ 학교시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 ④ 통근 여건이 불만족스러워서
- ⑤ 체육 및 문화시설이 좋을 것 같아서
- ⑥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 ⑦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2-2

(문22에서 '② 반대'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선생님께서는 더 큰 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강의 등 근무환경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② 학생들에 대한 진학 및 진로지도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③ 학교시설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④ 통근 여건이 만족스러워서
 ⑤ 체육 및 문화시설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⑥ 학생 수가 적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⑦ 기타(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3

농어촌지역에서 학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지도 역할을 수 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민들의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주는 역 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민 통합 및 화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제안
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